

KAA JOURNAL

건축사

JOURNAL OF THE KOREA ASSOCIATION OF ARCHITECTS

1970

3

특별
재



特殊配合 하어 만

국립보사, 쌍용 세

PVC백재 및 전점저
원 / 식당 / 다방 /
무실 / 일반가정용

전선관용통 관수용
대치한다는 정부의
일로에 있는 PVC
(우수성과 가격이
받고 있습니다.
(생용 / 첫-당 / 용

관 / PVC공인용관
장공필립 / 꽃장만

式会社
事<株

街 23 番
通 23 2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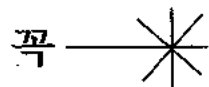
岩綿

은 이렇게 使用된다

天龍賞金메달受賞

全國商品전람회 大法院長賞受賞

여러분의 設計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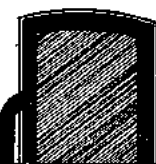


岩綿을 잊지 마세요



防音

탱크保温에



結露防止에

防
露
音
火
熱

燃料 1/3 節約

DUCT의 保冷, 保温에

파이프 카바에

보이라

防火 및 斷熱

主要納品處

韓國岩綿工業株式會社

交通部 交通선타 韓電Co 各 發電所、羅田産業 Co-

썬미코아 電子Co. 東洋나이론Co. 大成木材Co.

文化放送局、星信化學Co. 韓一세멘트

東立産業Co. 大韓보이라 Co.

豊田産業Co. 湖南精油 Co.

本社 및 工場：仁川 ②7247 · 8163

서울事務所：(그랜드호텔203호) ②8 3895 ②2 3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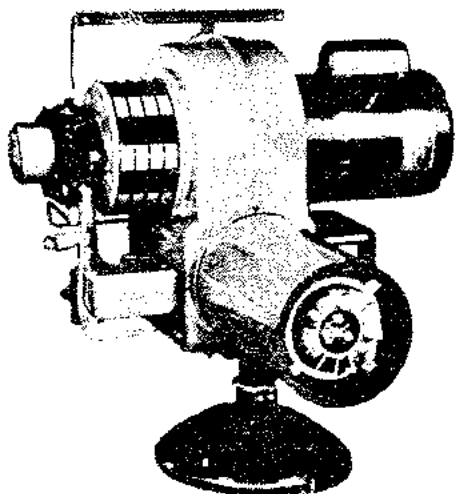
서울直売所：(국도극장앞) ③ 8161

오일바-나는.....

暖房設備의 心臟!

燃料費를 半減시킨

ABC 오일바-나



— 輕油用 (完全自動) —

ABC바-나의 特徵

1. 最新式 完全自動이라 사용이 便利하다.
必要時에만 燃燒함으로 經濟的이다.
3. 五重安全裝置가 되어있어 위험이 없다.
4. 設置가 간단하여 누구나 取扱할 수 있다.
5. 아후터 서비스를 長期間 保障.

製造元 ————— 美國 —————
Automatic Burner Corpo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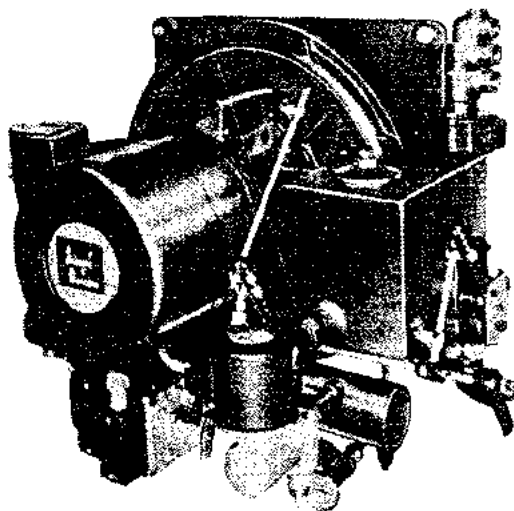
70 年의 歷史

튼튼하고 믿음직스런

존슨



로라리 바-나



방카 C 油用 (輸入完製品)

1. 計量펌프式이므로 正確한 燃燒量을 表示
2. 모든 事故를 完全히 防止하는 安全裝置.
3. 어떠한 보일러에도 適合한 構造
4. 自由로 選擇할 수 있는 自動方式.
5. 아후터 서비스를 長期間 保障

製造元 ————— 美國 —————
S. T. Johnson Company



韓國總代理店

三成設備工業株式会社

서울中区乙支路2街163의5호 東洋빌딩5層

TEL. 23 9696 / 9697 / 9698

■ 카탈로그 및 설계상 필요하신 자료와 문헌은 위의 주소 또는 전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더불어 25年



各種塗料製造元

三和페인트工業株式會社

本社：서울特別市 鍾路区 廟洞 125番地

TEL. (交) ⑦5 7734 (代表) - 40

工場：서울特別市 城北区 倉洞 592番地

TEL. ⑨2 2736 - 8

新建材의 綜合메이커

唯信化学의 新製品 案内

유신岩棉텍스 (鉍物質 不燃性) (吸音 天井材)

岩棉인슈레이손 (輕量断熱材) 防音, 防暑, 防寒 鉄筋콘크리트, 스타부建物用

世界的인 原木 무늬 그대로의 高級銘木 化粧合板

라미날化粧合板 (內裝材)

耐熱性 耐磨耗性 耐藥品性에 最強인 메라민 積層板

하이톤 (테블, 카운터, 家具材)

傳統과 品質을 자랑하는

유신텍스 (有機質, 吸音天井材)

原板은 콘크리트 絶緣材로 많이 利用

아크릴 (自動出入門, 各種沐浴槽, 室內照明 裝飾用)

본드 (各種建材用接着劑)

模樣紙 (나무 무늬의 安価이며 品位있는 室內裝飾에 多角利用)

乙支路入口에 現品展示場 3月 1日 開場
一般市販品外에 特殊 新建材注文 歡迎



近代建築에 貢獻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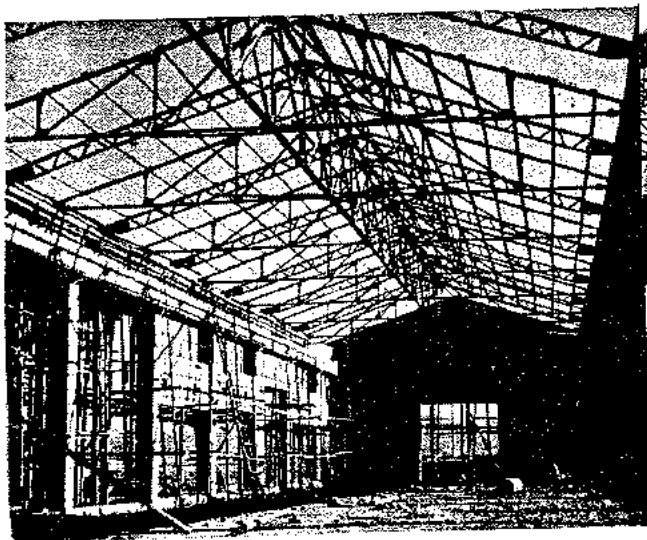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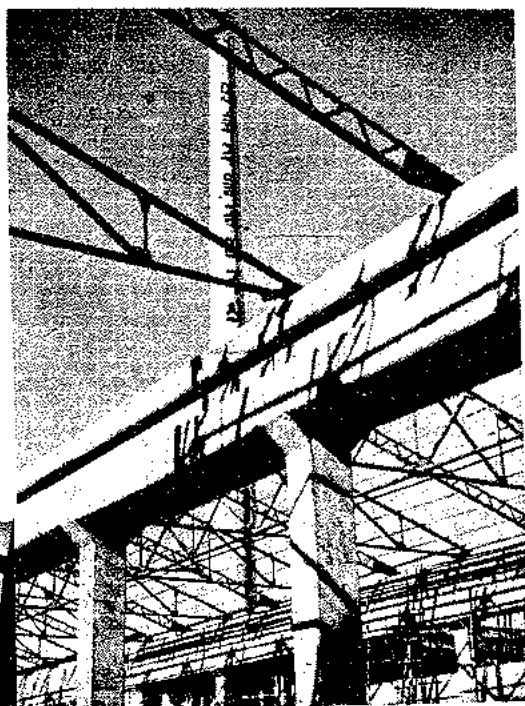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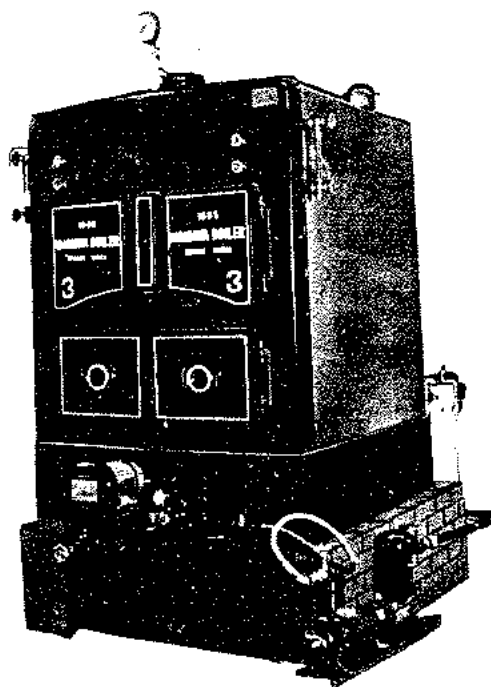
唯 信 化 学

本社・工場 Tel. 62-1081, 1086, 1096, 1681
서울영업소 Tel. 22-5562, 28-9330

MANHWA

새로운 보일러 · 라지에타 생산을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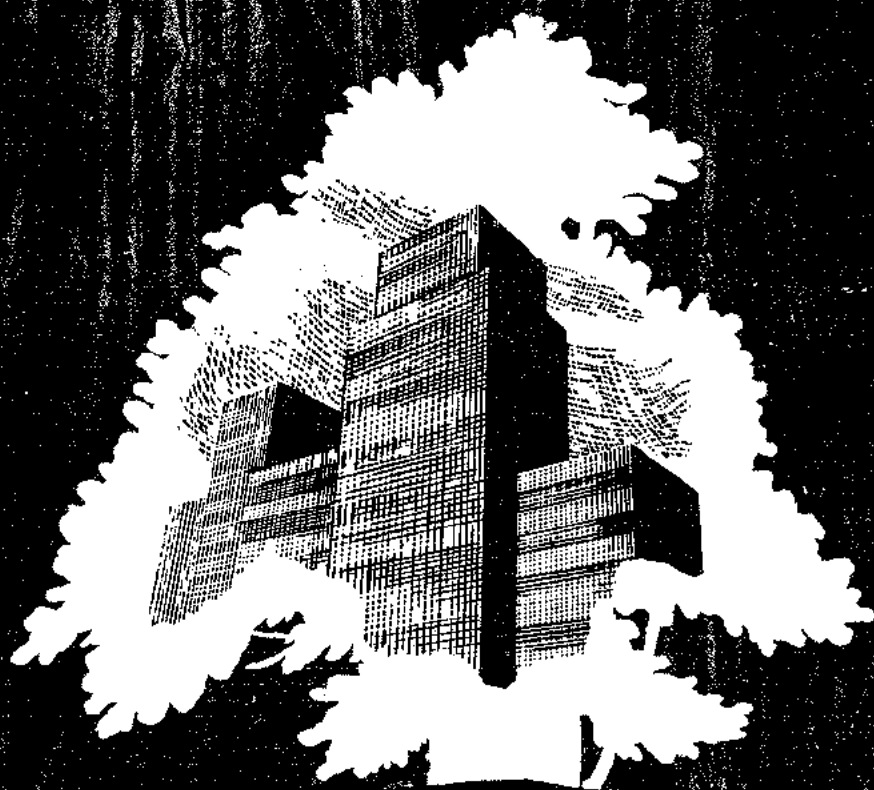
현대화 하는 만화주물



만화주물공업주식회사

본 사	인천시 남구 송의동 349
전 화	② - 0930
	2 - 3491
	3 - 1156
	3 - 1157
서울연락소	서울특별시종로구 장교동 48
전 화	② - 3716
	② - 7716
	② - 1316

現代建築이 選擇하는 優秀한 內裝材!



現代建築內裝의 三大課題!

보온, 방습, 방음을 完全解決한 壁材用

三榮 프린트보드

■ 國內唯一의 木材纖維質製品인 하-드 보-드 原板을 熱處理(Heat treatment) 함으로써 더욱 強化된 材質.

■ 最新施設의 3色 印刷機로 특수도장하여 탁월한 耐久性은 물론, 고급木材 天然의 質感을 그대로 再現한 아름다운 무늬.

■ 事務室、各種廳, 自動車內部, 家具 및 一般住宅內部等 폭넓은 用途의 最新壁材.



三榮 하-드보-드 工業株式會社

서울特別市中區乙支路3街 296-2 ☎ 3201-5

서울總販賣店 ☎ 3006-7



표시허가 제374호
SC-650방열기
표시허가 제420호
관이음쇠



기술의 상징
KANGWON BRAND

강원 라지에타
콘 벡 타
관이음쇠

- SC-650 RADIATOR
SC-500 RADIATOR
- WAJJ RADIATOR W-7B
($5\text{kg}/\text{cm}^2$ 水压試驗合格品)
- CONVECTOR
- PIPE FITTINGS
($10\text{kg}/\text{cm}^2$ 水压試驗合格品)

暖房·配管用生産品種



國內 最大規模의 量産体制로서
여러분께 奉仕하고 있습니다.

【兼營業種】

江原製作所·江原炭砒·三票煉炭
三票石油·三票骨材·三江運輸

江原産業株式会社

本社 서울特別市鍾路区新門路二街6 營業部(直) 73-5514

TEL. 75-2381~5

JOURNAL OF THE KOREA ASSOCIATION OF ARCHITECTS

Published monthly at 25, 1ka, Euljiro, Chung-ku, Seoul Korea

U.D.C. 69/72(054-1):061.22(519) 1970년 4월5일 발행(월간)

목 차

분류번호	建築士誌
도서번호	통권 제 19 호
구입년월일	1970년 3월 1일
대한건축사협회 서울특별시지부	

70년대의 작가 ③ 한스·홀라인 8 편찬위원회

새로운 건축의 모습

김 석천

4 작품

모든 것이 건축이다

한스 홀라인

이달의 작품 27

삼주빌딩

변 용

수원외곽

나 상진

삼도동 교회

조 창한

Y 사강택

정 인국

신촌집

김 원

농촌주택

송 기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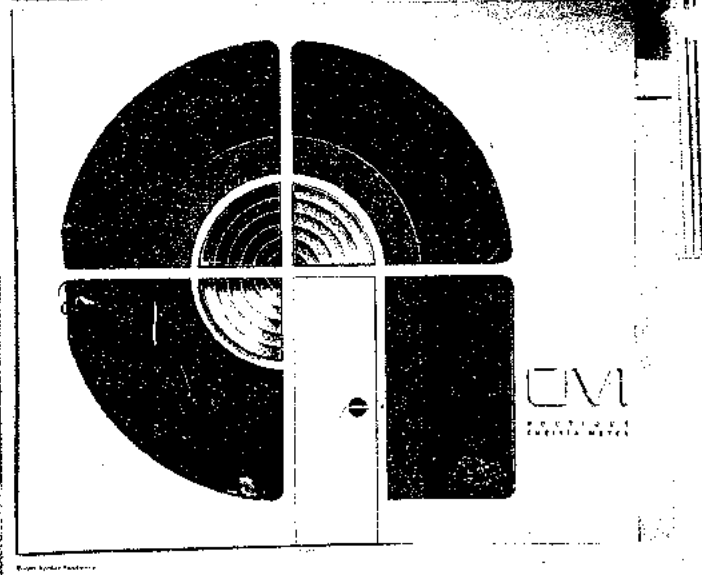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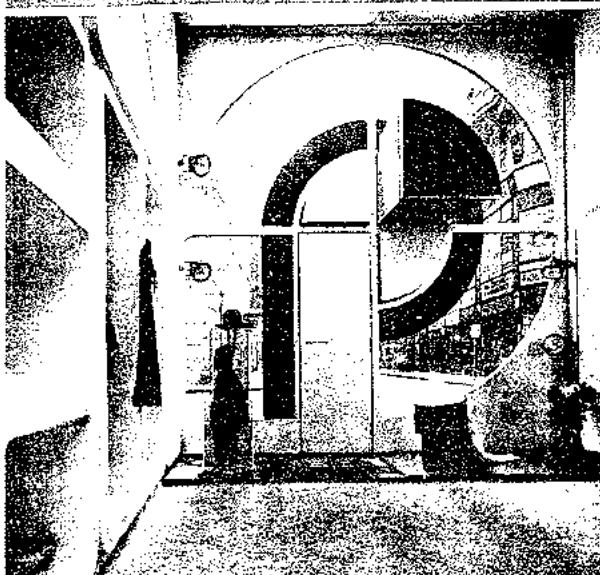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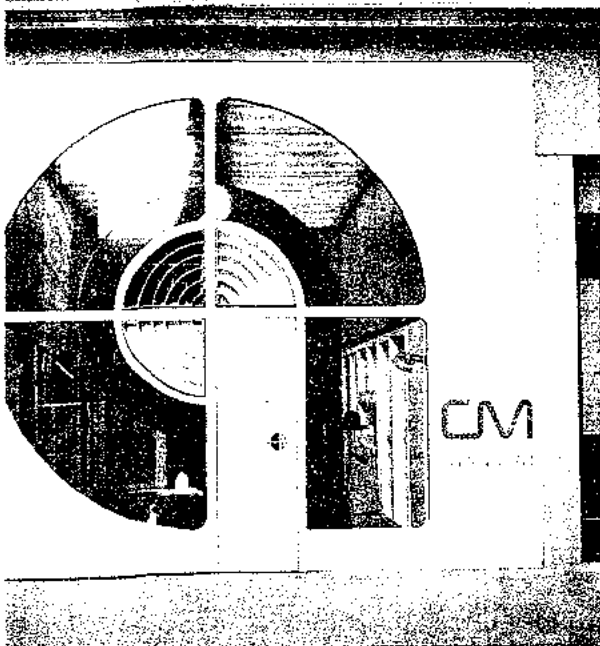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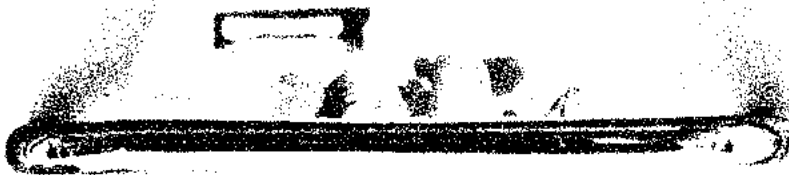
르·모뮐로 그후 20년 42 연 상만역

지난달의 작품에 대해서 47 오 광수 조 창걸

시공도면의 방법 52 편찬위원회

협회기사 67

■ 발행소 / 사단법인 대한건축사협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25번지점 양명빌딩 601호실 / 전화 28-9802
 ■ 발행인 겸 편집인 / 강명구 ■ 인쇄처 / 대한공보사 ■ 등록일자 1967년 3월 23일 ■ 등록번호 / 1970년 1월 8일 ■ 등록번호 / 바-216호 ■ 인쇄 / 1970년 1월 28일 ■ 발행 / 1970년 1월 31일 ■ 월간 ■ 인쇄
 구좌 / 한은부 교지전 1955호



HOLLEIN:

새로운 건축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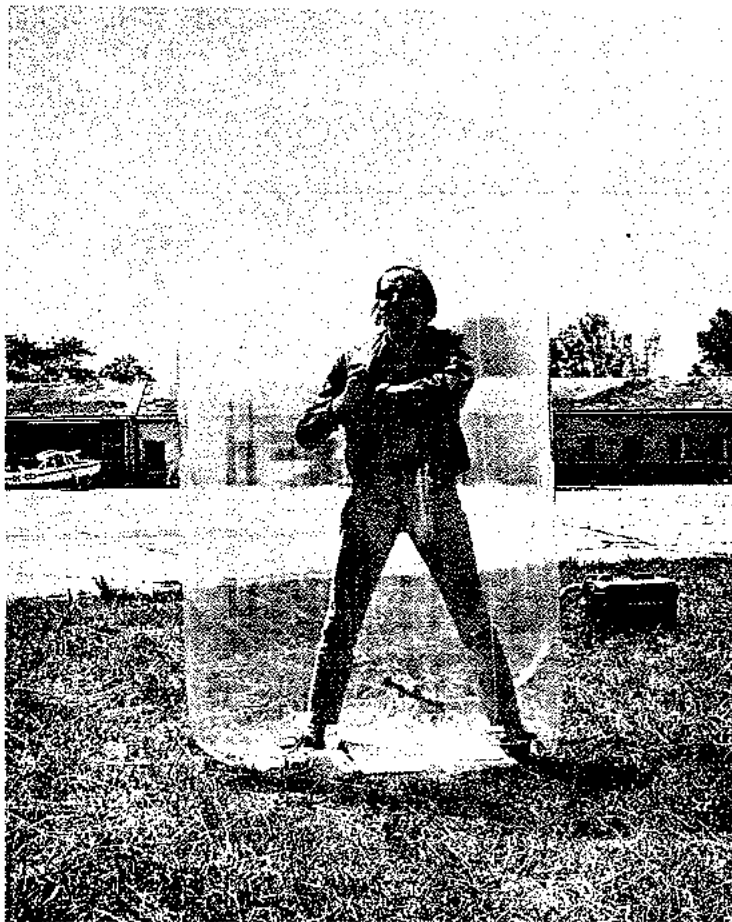
한스·홀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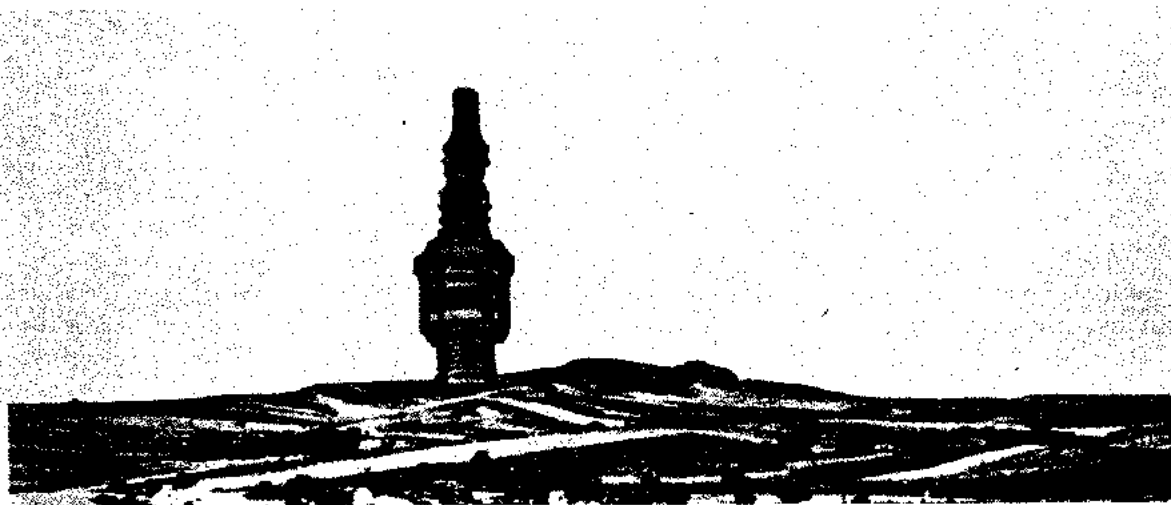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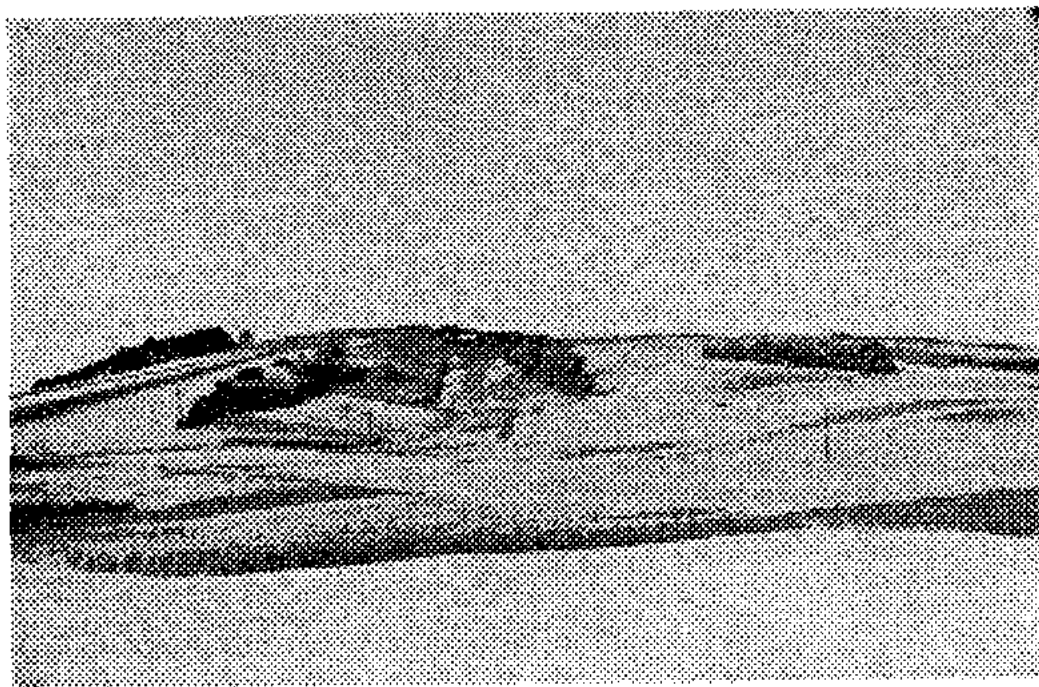
편찬위원회

한스·홀라인이 건축가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65년 랫티·켄 들숍이 완성된 때 부터였다. 그의 환상적인 몽타주는 일부 건축가들에게는 강한 인상으로 기억되었으나 그들조차 그의 건축가로서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랫티에 이어 C.M., 와이젠 겔리티 등이 발표되면서 건축가들은 갑자기 이 놀라운 사나이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가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들은 참다운 의미에서 새롭다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었다. 그는 확신있는 어조로 《오늘은 어제와는 다른 스케일, 전혀 다른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전혀 다른 狀況人間的 場이다》라고 선언한다.

그의 프로젝트들은 그의 말대로 ·제한된 여건속에서 이루어진 간단한 실험들 이나 실지에 있어서 그것은 물리적 공간의 실험을 넘어선 狀況—人間的 실험을 새로운 감각의 발견을 통해 시도한 것 들이다. 그는 몇 안되는 그의 조그만 실험실들 통해서 우리에게 異邦의 경이를 보여주었고 새로운 未知의 세계로 열린 창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

68년 6월 시카고에서 열린 그의 개인전에는 그냥 대지를 찍어놓은 SITE 라는 제목의 《선언》과 《항공모함도시》 《초고층건축》등이 전시되어었다. 《선언》은 건축의 본질에 대한 혁명과 해체의 선언이며 《항공모함도시》는 대지위에 항공모함이 파초한 듯한 몽타주 (지층단면에 묻혀있는 항공모함의 단면도는 삼지에서 오려낸 것이다)며 《초고층건축》은 동일한 구분위에 볼트를 뿜출시킨 사진으로 되어있다.





일전 올덴·버크의 《공상의 모뉴먼트》 시리즈를 연상시키는 "이것들은 그러나 회화적인 장면이 아니다. 이것들은 《건축 조각 화회는 하나로 귀일되는 것이다. 공간의 전체성은 물체에 의해서 지배된다》는 그의 신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이 전시회를 통해서 시도한 것은 건축 그 자체의 개념을 해체해 감으로써 건축을 전혀 새로운 시점으로 끌고가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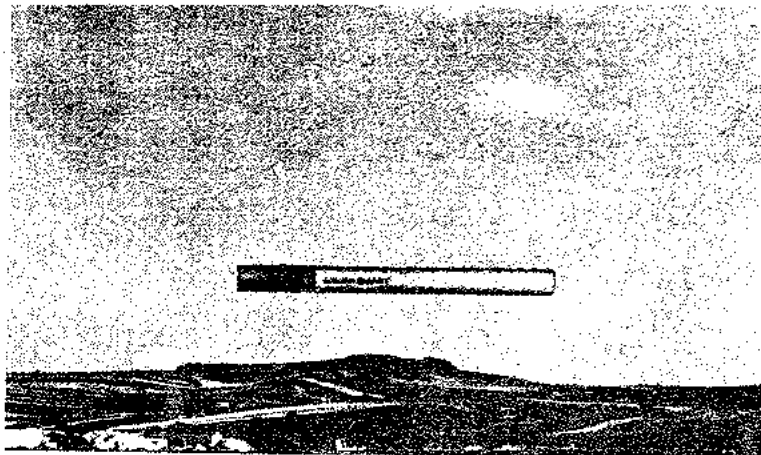
1963년 윈에서 가진 전시회에서 그는 조각인지 건축인지 도시인지 구별할 수 없는 논 스케일의 스케치와 모델을 전시했었다. 그가 시종 보이려고 했던 것은 실현될 수 있는 유용한 계획안이 아니라 새로운 건축의 《선언》이었던 것이다.

《형태는 기능의 결과가 아니다. 형태는 그 자신으로 부터 나온 것도 아니다. 입방체나 작구나 구를 써서 건축을 만들어 낸 것은 인간의 위대한 결단력이다》 그는 이 결단력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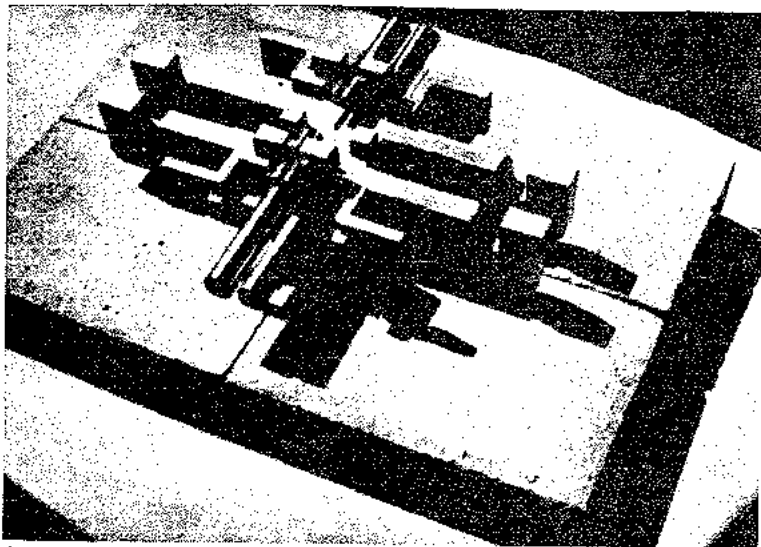
그는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통해서 《強權의 官能的인 實現化》를 추구하였고 《超人間的인 테크놀로지 自體의 絶對的인 表現》을 제출한 것이다. 항공모함도시들은 윈의 전시회에서 變形이라는 이름으로 나왔던 쿨타츄들이 거대한 모뉴먼트의 원형으로 된 것들이다.

로켓트 발사대, 석유채굴 스테이션, 원자력함의 마스트, 마야의 신전, 스페인의 폐허의 성벽, 지하미사일 발사시설의 해부도, 수소폭탄, 항공모함, 나치대공 잠서소— 이러한 反人間的인 이미지에서 그는 건축의 원원을 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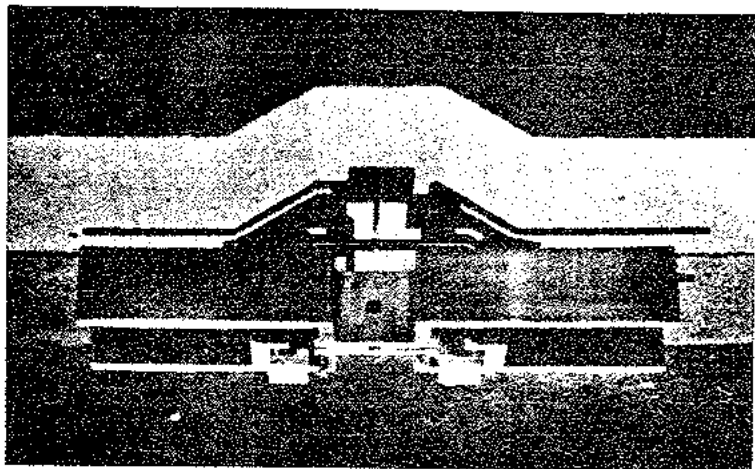
이것은 팔호뮈제가 초기에 비행기, 기선, 사일로, 자동차 등의 20세기의 테크놀로지의 산물들에서 새로운 건축의 모습을 발견하던 것을 연상시킨다. 그러나 팔호뮈제의 경우 그는 그것들 속에서 情緒를 추구하였으나 플라인은 物自體의 感覺을 발견하고 있다.



都市의 커뮤니케이션·인터체인지 플랜 196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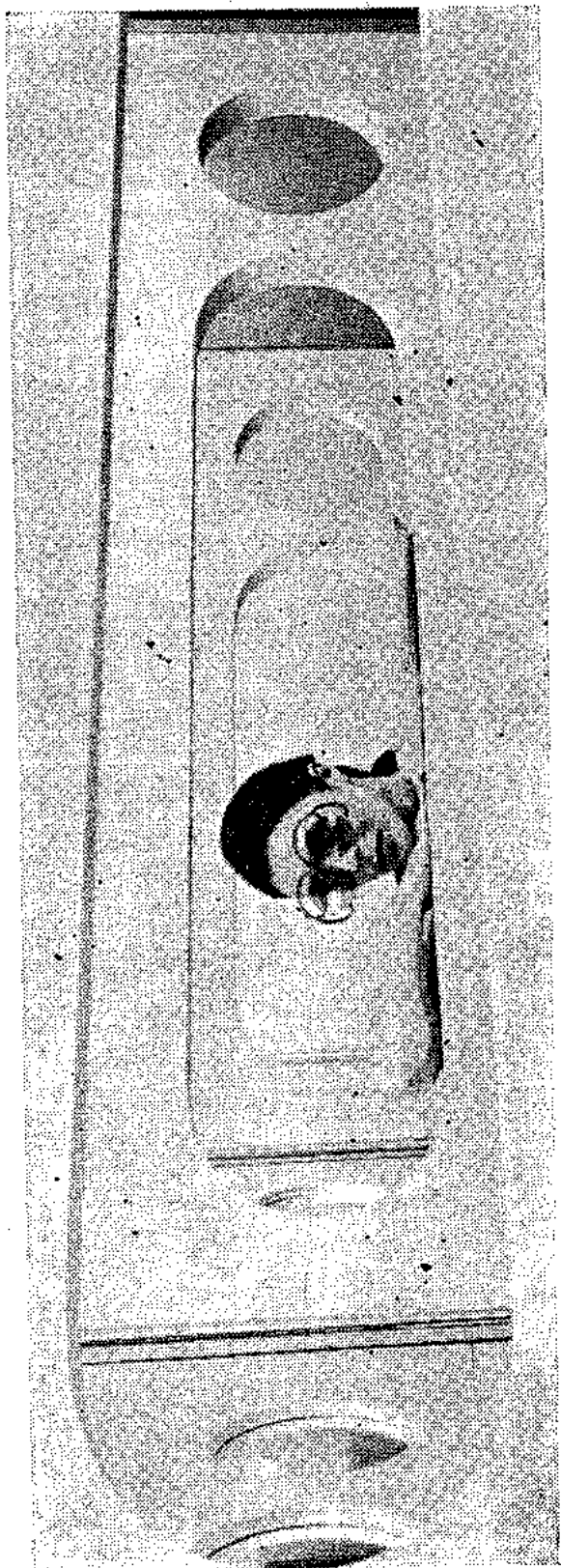


트랜스포메이션·인터체인지가 있는 都市構造의 模型 1963



기술을 이용하면서 그것에 종속하지 않는 건축이야말로 순수한 건축이다.





2차대전중에 유년기와 소년기를 보낸 그에게 테크놀로지가 情緒的인 것이 아닌 感覺的인 것으로 刻印된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르기는 하다.

그의 건축에는 物質(매티리얼)이 가진 다양한 表情은 位置(potential)와 視點의 이동에 의해서 의미가 반복되고 여러가지 부가적 요소가 삭제되면서 原形의 존재로 환원되어 가는 많은 모습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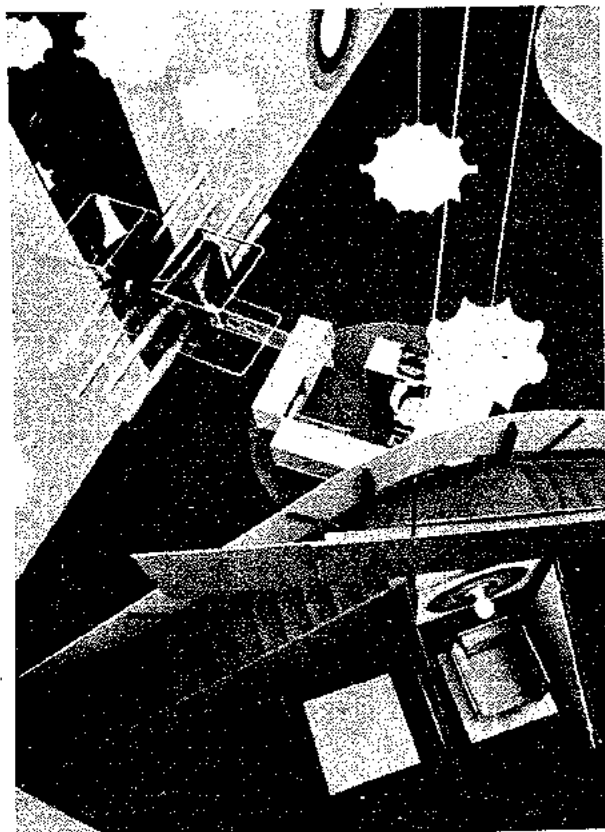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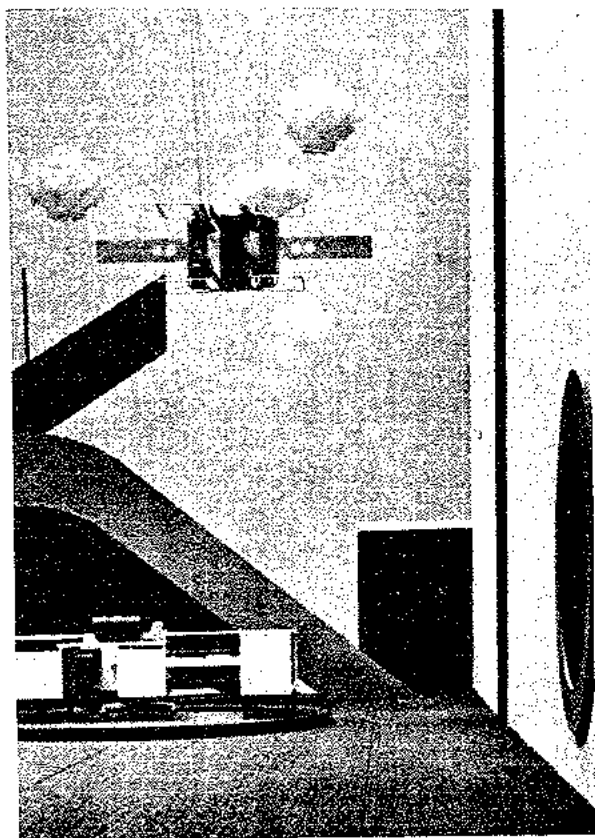
그는 이터 것들에 대해서 《나는 우리 세기의 재료를 쓰고 싶다. 나의 모든 건축은 우리가 1970년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역시 신중한 사람이고 신뢰할 수 있는 건축가다. 화이젠 갤러리계획에서 그는 독일의 모든 가능성을 조사하고 필요한 모든 자료에 근거한 수 많은 제안을 만들고 스케치(이것은 상당히 전진된 도면들이다)를 그리고 또다시 마지막 것이 완성될때 까지 몇번이고 다시 고쳤다. 양상한 형이상학만을 의지해서 갖가지 모험을 주저없이 자행하고 있는 한국의 젊은 건축가들의 한심한 모습을 상기할때 그는 참으로 믿음직한 보통의 건축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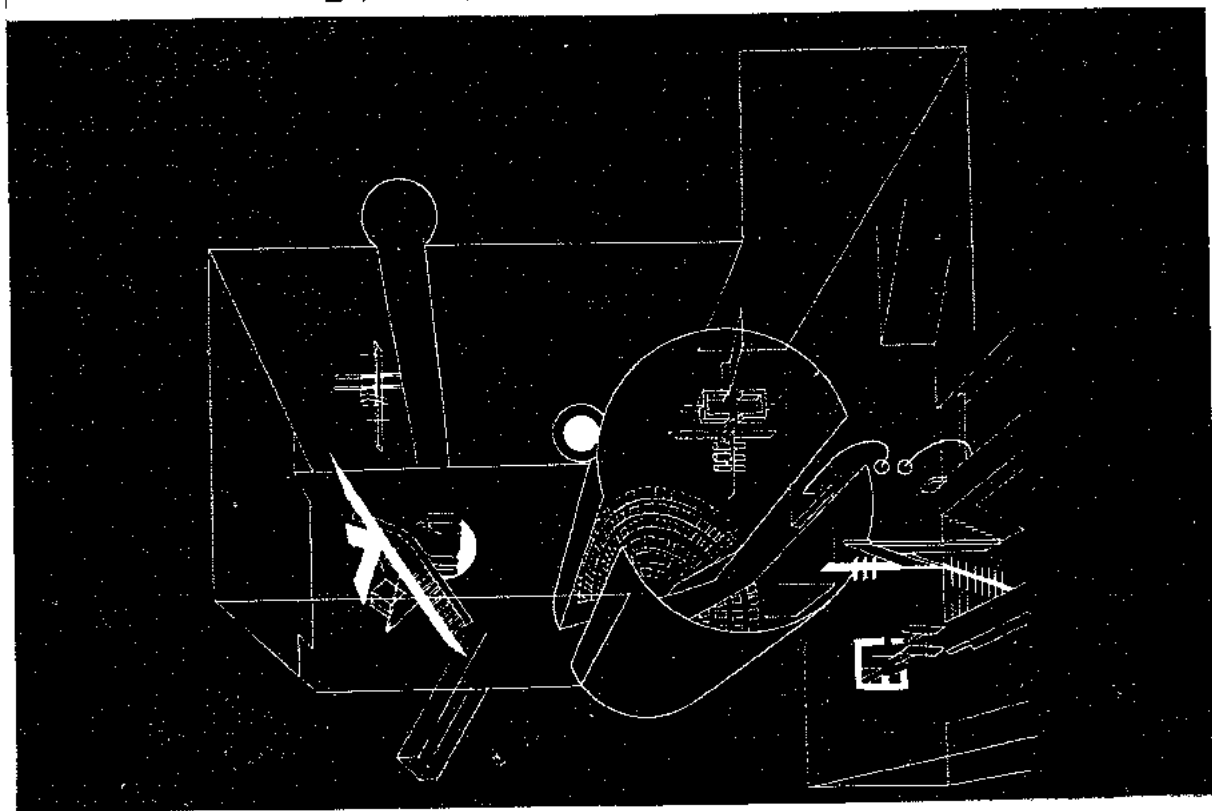
그러나 《사람들이 집 집 집……을 짓고 있는 중에》 그는 겨우 내부 수리인 실내장식을 비가지 했을 뿐이다. (한국 건축가들이 받고 있는 그 엄청난 행운을 상기해보라. 일 일 일 그버런서도 그들은 불평이 많다—전망지제도)

그러나 그것들은 혼돈의 현대건축에 새로운 바람을 몰고 왔다.

물질자체로 환원되어버린 듯한 매티리얼에 의해서 발가벗겨진 공간의 모습은 아직은 우리에게 미지였던 새로운 건축의 모습이며 가우디, 화이트, 팔로워세, 미스의 위대한 현대건축에 한 전환의 이포크를 시사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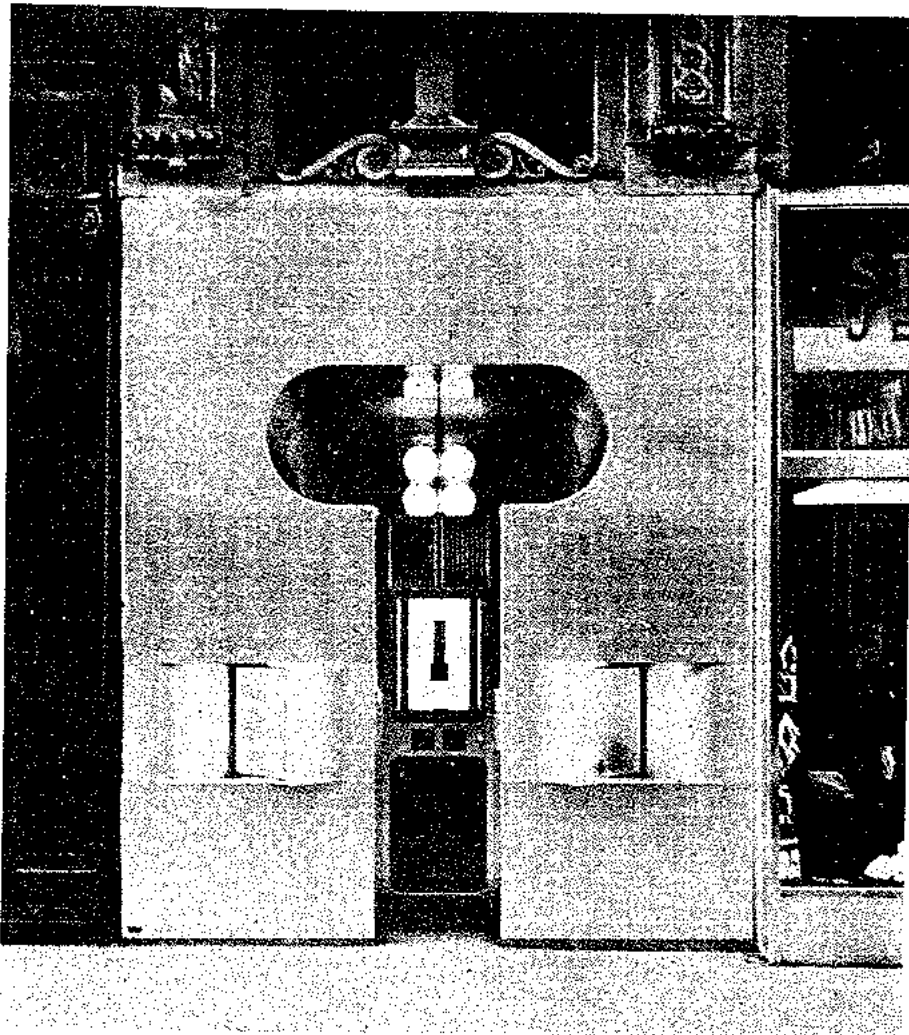
원의 스오보다 가구점 가구전시회의 회장구성 형태는 기능의 결과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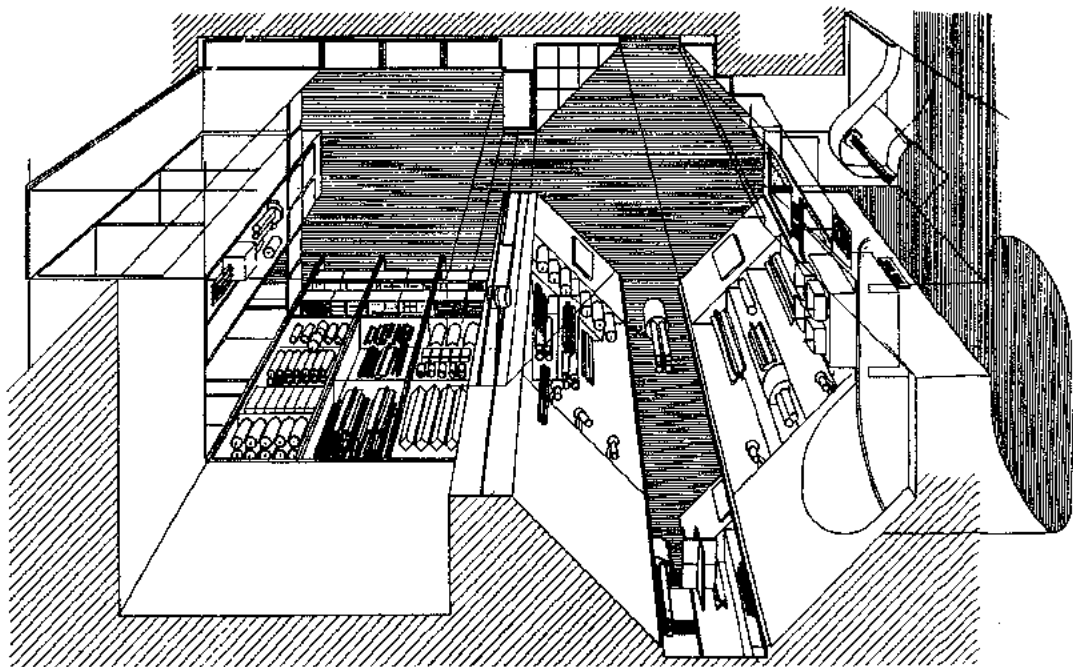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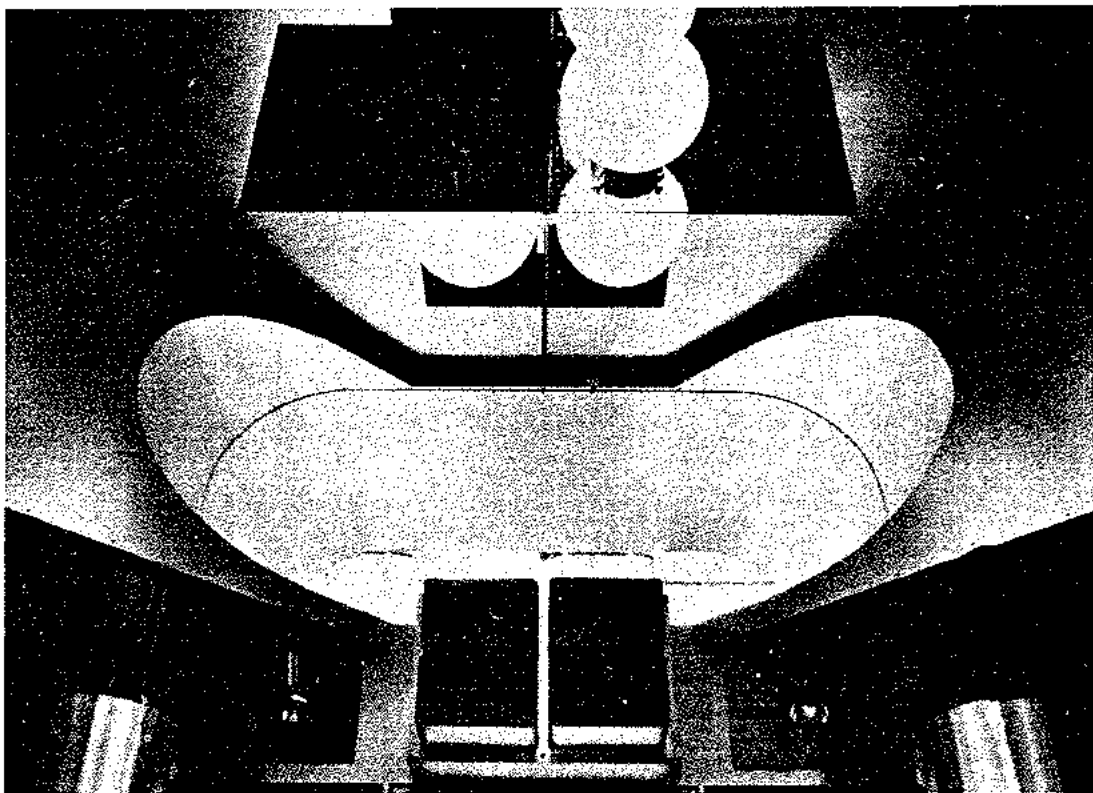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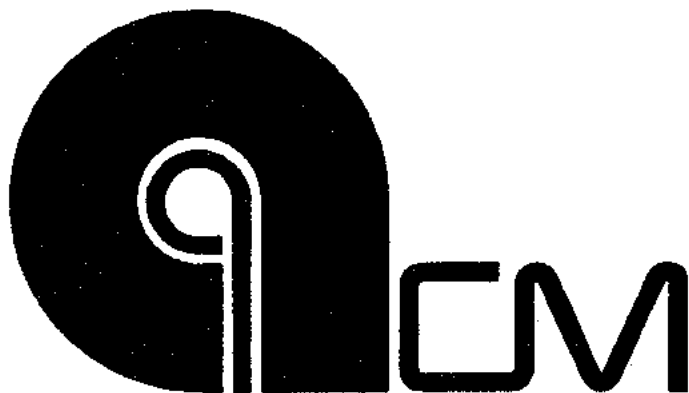
랫티캔들 숍

건축은 공간에 의해서 공간을 지배한다.
건축은 매트와 빈틈으로써 공간을 지배한다.

5m각의 뻘뻘한 열쇠처럼 구멍이 뚫힌 파사드를 가진 랫티·캔들숍은 오래된 큰 석조 건물의 아래층 한 부분에 있다. 열쇠처럼 뚫린 정면 파넬은 대각선으로 놓인 사각의 제1전사실의 모서리 부분으로 연결되면서 45°방향으로 동일한 모티프로 뚫린(이번에는 파넬이 아니고 공간이다) 천정면으로 금속성을 울리듯 비껴어져 있다. 좌우의 구멍면의 거울은 서로의 반사효과에 의해서 기묘하게 안쪽에서 일그러진 파사드의 파넬이 있는 입구홀이 정방향의 대각선 방향으로 정속되면서 다시 각 모서리에 리드미칼한 공간의 반사에 의해서 미끌어져 간다. 내부의 면이 모두 둔하게 번쩍이는 알미늄이지만 입구의 문과 연결되면서 대각의 면이 양측에서 서로 포위해 오는 듯한 공간의 전조에 의해서 알미늄의 텍스처는 강렬하게 연결되어 찬란한 효과를 이룬다. 그야말로 이 자체가 캔들이다. 이것은 비물건화된 마티리엘이 이루어 놓은 새로운 감각의 형상이다. 우리가 들여서기도 전에(동선은 현대건축의 시금석이었던!) 이 공간들은 서로 울려 소리를 한다. 우리는 이 찬란한 빛의 소리 속으로 전율을 느끼며 걸어들어 가게 되는 것이다.







CM은 원의 크리스타·에텍을 위한 양장점이다. facade는 이 상점의 표지로 채용되어온 심볼의 성격을 갖고 있다. 심볼로서의 프론트, 프론트로서의 심볼, 그 속에 전체의 구조적 기능적 설비적 요소가 포함된 비 릴리프적인 그래픽으로 변환된 일종의 수퍼 그래픽이다. 자연색의 알미늄과 판유리 안측의 오렌지색 에나멜을 입힌 원관은 모두 닫고 댔을 것이다. CM이라는 글은 녹색 플라스틱이며 그 밑의 글자와 손잡이는 크롬메기다. 화사드의 유리면을 통해서 내부가 보이나 효과적으로 부분만이어서 홀라인이 「더욱 친화적인 상행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마도 간헐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하는 종류의 프라이버시가 이루어져 있다.

입구문 위에는 에어·콘디셔너가 북 뒤편에 나와 있다. 그는 「나는 설비기구를 표현의 媒介로 그리고 공간의 進退으로 사용하고 싶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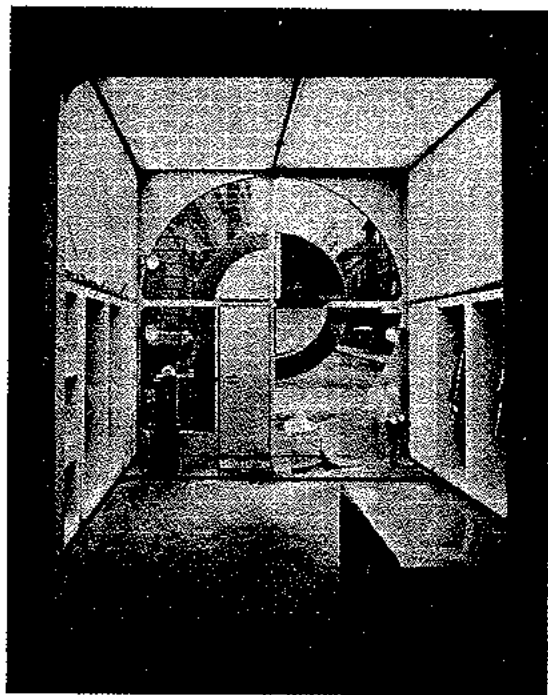
四角의 에어컨 유니트를 둘러싸고 스피커와 슬라이드처럼 꾸며진 1/4원통면이 동심원을 이루고 있다. 입구문은 디자인과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막혀있으나 손잡이 부분에 다른 사람이 온 것을 알 수 있도록 조그만 원창이 달려 있다!

곧 있을 확장을 고려해서 210sq-ft의 내부는 전시용으로 쓰이기도 하는 벽과 천정을 이루는 성형된 글라스·화이버를 격자로 연결하여 이루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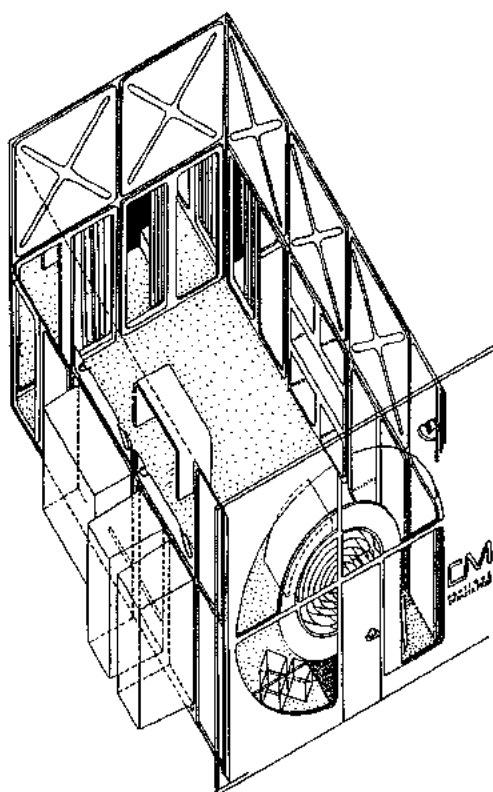
벽을 칠해져 있고 천정은 광천정이 되도록 투명하다. 이런 경량재료의 사용과 투명한 천정들은 내부를 거의 초원 같이 텅빈 느낌으로 가득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쇼케이스 마저 구조의 일부가 되어 있다.

이러한 작은 시리즈의 성형된 요소들은 반복적인 형태를 이루어 유연한 표면질감을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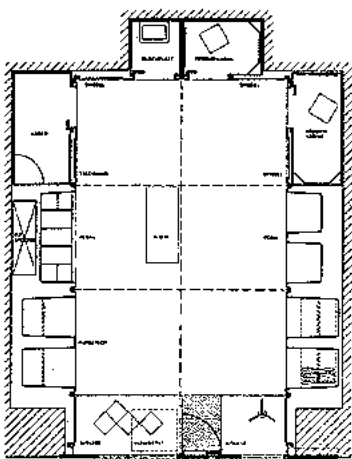
CM에서 구현된 홀라인의 주목할 만한 투명하고 확실히 경제적인 디자인은 기술과 오늘 의 수퍼스케일의 발전적인 융합을 시사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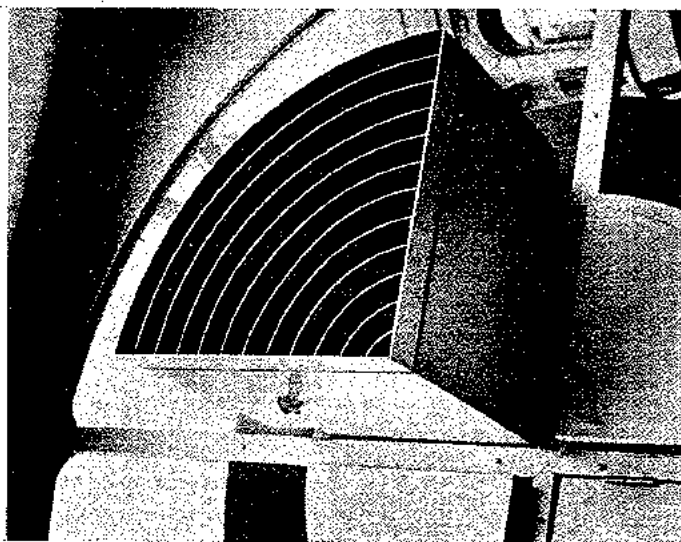
CM양장점 내부



CM양장점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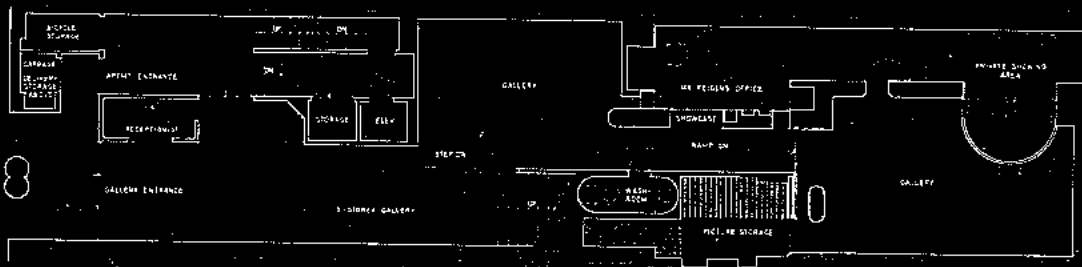


pian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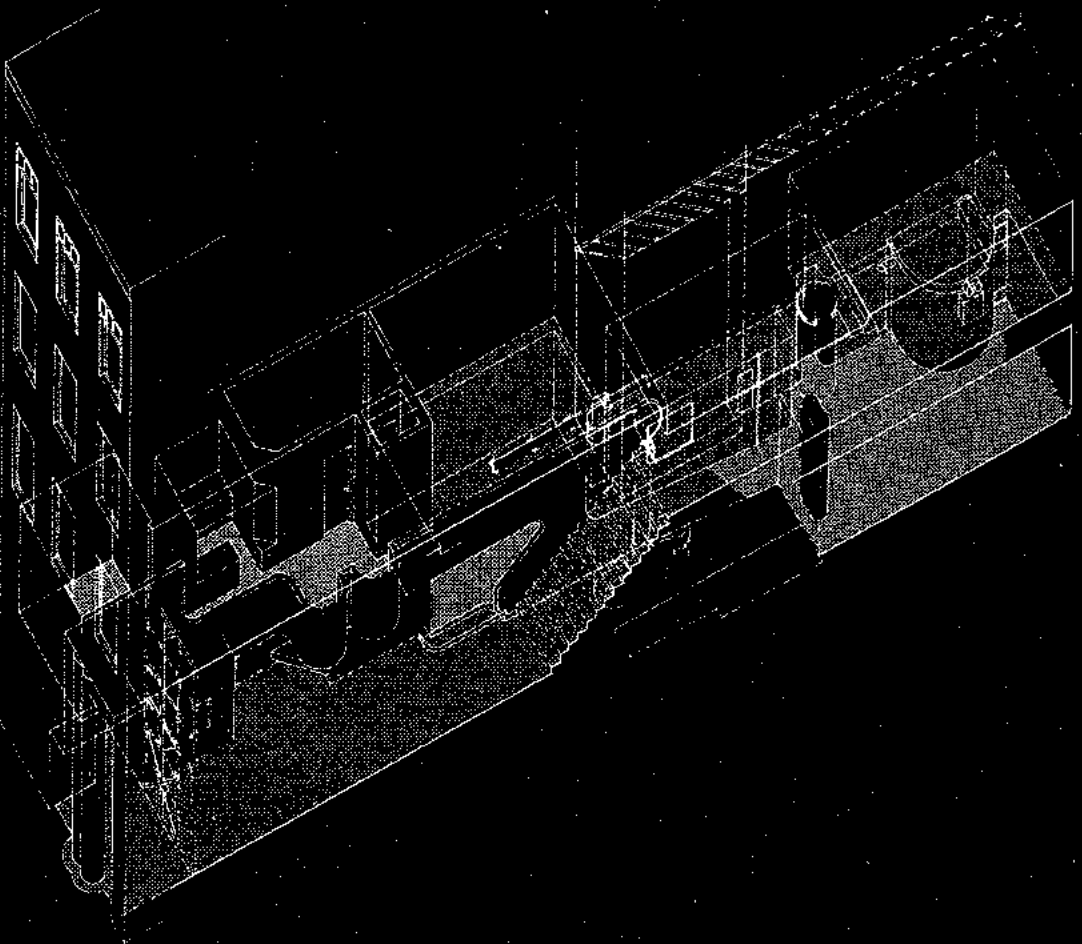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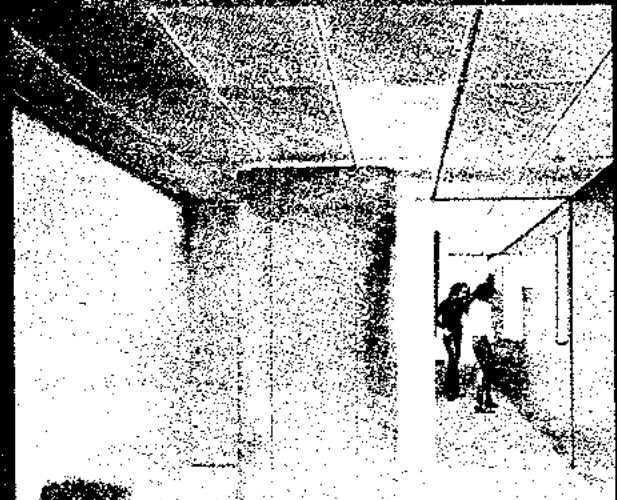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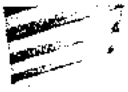
2nd FLOOR



3rd FLOOR



화이겐화랑



작년에 홀라인이 완성한 만하탄의 화이젠 화랑은 모든 종류의 예술을 전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교하게 제작된 《기계》다. 이 기계는 차디찬 백색대리석, 스테인레스 스틸, 지극히 정밀하게 이루어진 밝은 색조의 표면 그리고 정교한 디테일에 의해서 풍성한 표현을 주고 있다. 이 표현들은 꼭면과 직면 그리고 우아한 공중의 공간과 내밀한 사실들의 전개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水平의 탑이다. 입구홀의 18ft 높이의 이글거리는 파열적인 스테인레스·스틸의 작기들은 인도위에 유혹하듯 걸려 있다. 정면의 비례와 입구홀은 내부공간에 관련된 모뉴먼트다. 그랜드 스테어를 갖는 두층의 화랑은 어떤 신비로운 儀式의 무대처럼 이루어졌다.

이 늦게같은 연극적이며 상징적인 화랑은 비대칭인 낮은 건물 아베층의 18ft의 높이를 가진 22ft×100ft 속에서 이루어 졌다.

홀라인도 ‘그것은 너무 좋았다. 만약 나에게 이상적인 화랑을 부탁한다면 절대 나는 22ft 폭에 100ft 깊이를 가진 18ft의 높이는 요구하지 않겠다’고 처음에는 몹시 불평을 했다. 더욱 곤란했던 것은 이미 있는 내력벽, 계단, 엘리베이터들이었다. 그러나 그는 곧 ‘물론 나는 어떤 장애도 없이 시작할 수 있는 텅빈 초원 위에 집을 짓고 싶지만 도시적 스케일 속에서 우리는 항상 어떤 제한 속에서 일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들은 영원히 기존의 상황을 재구성하고 변화시킬 것이므로……’.

홀라인은 이 화랑을 하나의 道具——기거서 경험으로서의 전시가 장치되는 空間으로서의 도구가 되도록 하였다.

그러한 기본적인 사고는 집 전체에 일관되어 있다. 변형거리는 디퓨저들이 벽과 천정의 사방에서 폭죽 튀어나와 있고 천정에는 전자장치가 노출되어 있다. 입구홀에서 들어서면서부터 공간 조직은 無性的인 대중적 공간으로 부터 內密한 구석으로 접속되는 경험의 조작된 연쇄에 의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 조직은 색깔, 질감 그리고 15번이나 달라지는 바닥과 천정의 높이 등의 다른 사용을 나타내는 촉각적이고 다면적인 전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디자인의 가장 큰 요소중의 하나는 홀라인이 多量要素라고 부르는 화랑의 100ft 깊이를 연속하는 동축의 백색회벽이다. 사람들은 문을 들어서면서 그 벽을 따라 입구에서 계단을 지나 이중 뿔뿔까지를 예감하게 된다. 시선의 프로토포우터가 되는 이 회고 찬 공간은 최근의 미술을 위한 무성적인 벽이다.

기존벽과 엘리베이터 때문에 두 반원으로 된 발코니의 맞은 면에는 손이 닿으면 안 되는 거작들이나 고정된 위치를 요하는 현대화화를 두도록 되어 있다. 대리석 계단아래서 화랑에 오는 사람들은 이층으로 올라가서 중심적인 영역에 계속 남든가 혹은 좀 더 작은 오브제나 古典의 걸작들이 있는 내밀한 곳으로 가든가를 선택할 수 있다.

機能의 轉異는 차고 딱딱한 것에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으로 즉 백 대리석에서 깔발색의 노란 카페토로 그리고 두층 높이의 천정고에서 8ft로의 진진으로 표현되어 있다. 아래층 뿔 전시실으로 펼쳐지는 카페트는 더욱 더 찬밀하고 화려한 공간으로 계속적으로 열려져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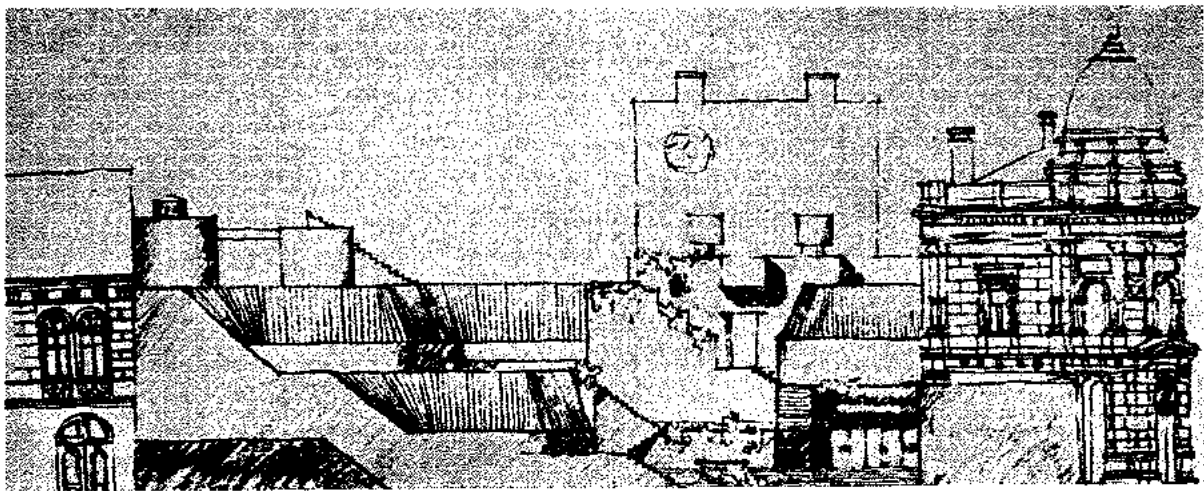
리처드·화이젠의 개인적인 사무실은 입구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내부의 聖所같은 곳에 천창으로 밝혀져 있다.

완전히 다른 세계인 그곳은 데스크며 사무실인 동시에 라스베가스의 어느 나이트 클럽의 무대처럼 된 사적인 전시실이다. 홀라인은 이곳이 ‘休止된 약간은 매혹적이고 조금은 예로 토크한 분위기를 갖게 하려 하였다.’

이층에는 대리석 바닥인 세계의 크기가 다른 四角의 전시실이 있다. 반쯤은 私室인 화랑 지배인실과 사무원실과 그곳에 이르는 발코니에 이어진 통로는 하늘색 카페트 바닥으로 한 단 높여져 교묘하게 분간되어 있다.

역시 이 화랑에서 가장 센세이션날 디테일과 자극을 주는 것은 배의 승강구 같은 문을 넘게 되는 욕실이다.

그곳은 발가벗은 공간, 발가벗고 싶어지는 원색의 침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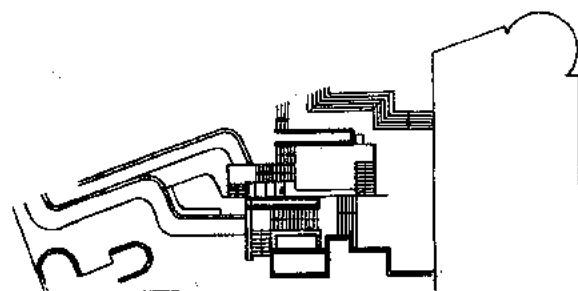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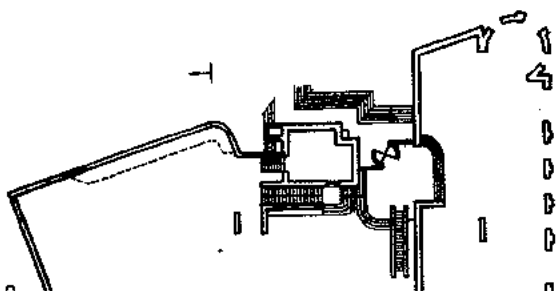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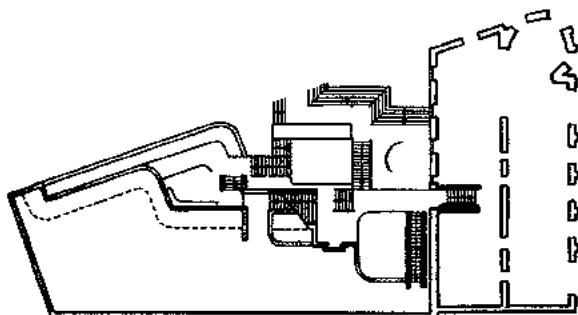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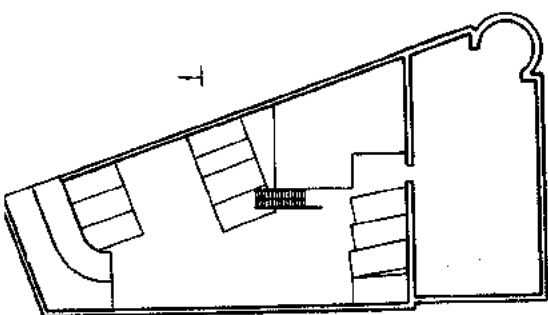
센트랄 스파카세 은행 지점 중축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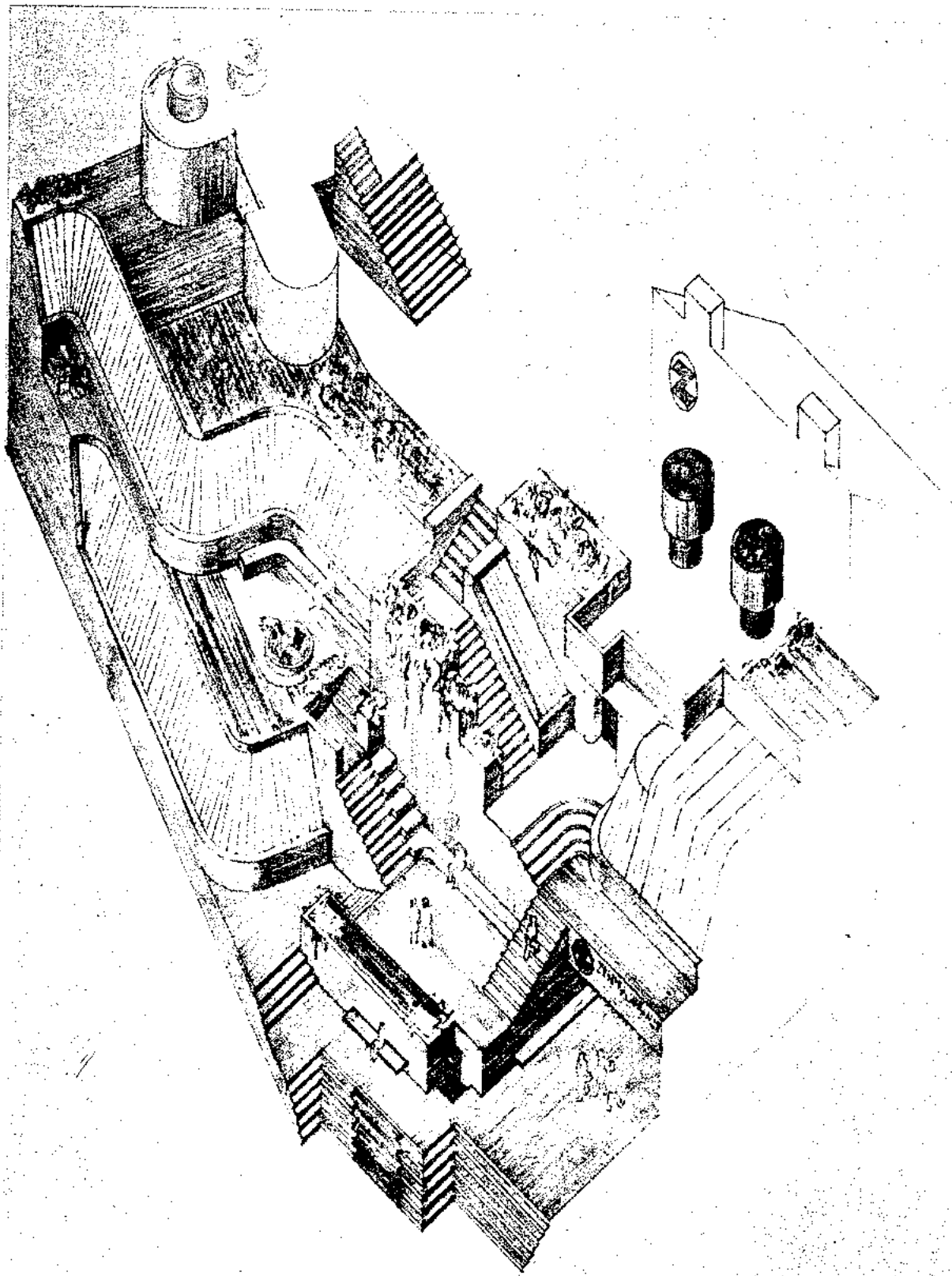
이 계획은 홀라인의 다른 작품들처럼 지배적인 어떤 아이디어가 세부에 까지 일관되어 전체가 건축이면서 전혀 별종의 의미를 문득 갖게되는 그런 기법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다. 철저히 어떤 지배적인 아이디어가 그 외형을 침식해 가고 있다. 지붕은 여러단의 외부에서 걸어 올라갈 수 있도록 된 테라스의 연속으로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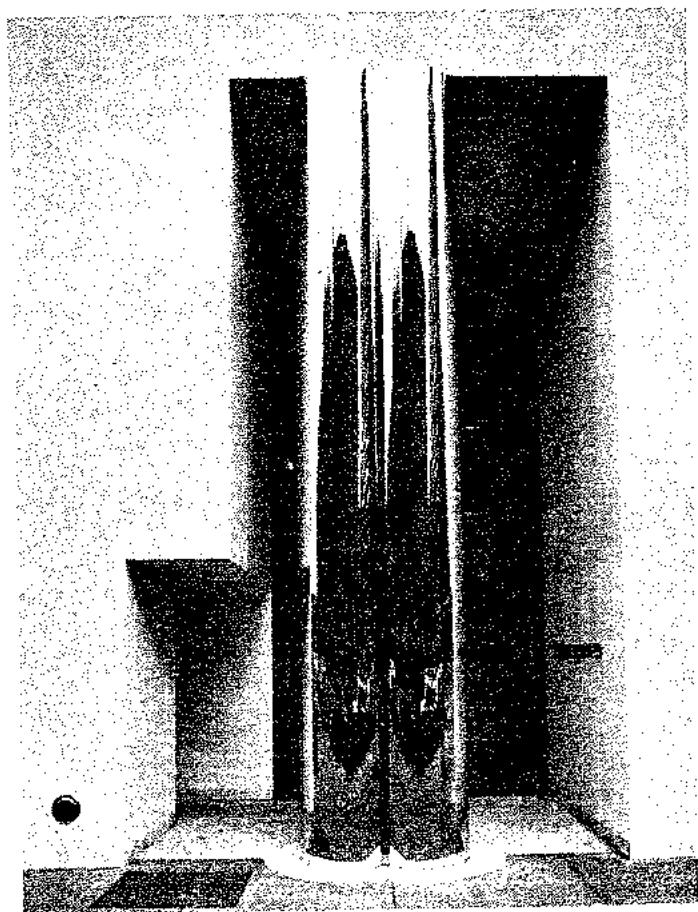
테라스(지붕) 위는 일종의 작은 공원들이어서 벤취와 분수가 있고 나무들이 있어 산책이나 야의 콘서트 등에 쓰이도록 되어 있다. 길에서 걸어서 지붕까지 오르게 되는 이 기발한 착상은 공간의 지리적인 성격을 추구한 것이다. 안과 밖, 위와 아래가 동선 속에 뒤섞여 드디어는 구분할 수 없게 되는 이 이미지는 60년대부터 시작된 일련의 건축적 스케취에 일관된 주제였었다.

이것은 키슬러의 앤들러스·하우스가 보여준 지리적인 공간의 이미지에서 연역된 것이지만 키슬러의 경우, 환상의 차원에 머물렀으나 홀라인은 실지의 공간으로 산화하여 환경의 구체적인 스케일로 만들어낸 것이다.

"의미와 효과에 대한 중요성은 달라졌다. 건축은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건축은 정보체계다. 그 메시지는 드디어는 정보의 수단에 의해서 체험되게 될 것이다. 건축은 의태화 될 것이다." (홀라인 19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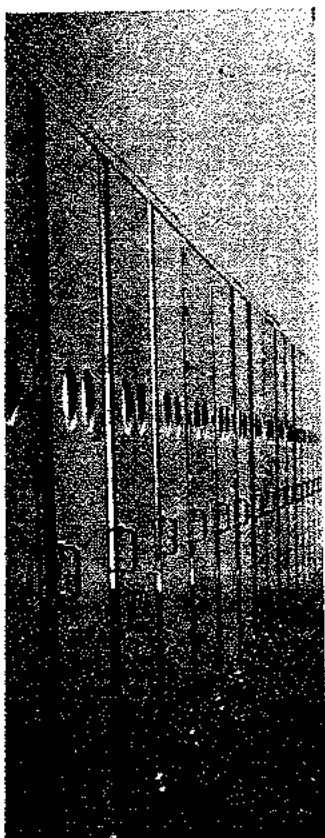
모든 것이 건축이다

한 스 · 폴 라 인

이것은 한스·폴라인이 주재하는 건축과 도시계획 잡지(BAU)
1967년 1~2호에 발표된 논문의 전역이다.

건축과 그 수단의 극히 한정된 개념 규정과 전통적인 정의란 오늘에 있어서는 아무런 유효성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들이 창조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전체로서의 환경이며 그것을 규정하는 여러 미디어이다. 그것은 T.V.이기도 하고 인공적인 거후이기도 하며 수송, 전화, 의상 및 주택군이기도 하다. 인간의 영역과 주위의 「세계」를 규정하는 수단은 비약적으로 확장되어 가며 그것은 종래의 건축의 개념을 훨씬 증가하여 오늘날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건축으로 되는 것이다. 「건축」이란 이들 미디어의 하나인 것이다.

오늘 우리들의 행동과 우리들의 주위를 규정하는 여러가지 미디어의 하나로서의 가능성을 「건축」은 가지고 있다.



인간은 인공적으로 여타까지 형태를 만들어 낸다. 이것이 건축인 것이다. 인간은 육체적인 영역과 정신적인 영역을 끊임없이 변형하며 확장하고 또한 훨씬 광범위한 의미로서의 「환경」을 규정해 간다. 인간은 요구와 열망을 쫓게 되면 그 요구를 만족시키고 또한 그 열망과 꿈을 실현시키는 수단을 배운다. 인간은 자신을 스스로 확장하고 자체를 확장하며 자신을 전달시킨다.

「건축」은 커뮤니케이션의 미디어이다.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개인이기도 하며 동시에 사회를 구성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것은 인간의 행동을 규정한다. 인간은 원시적인 존재에서 미디어를 통하여 끊임없이 자신을 확장해 왔었고 자신도 그 미디어를 끊임없이 확장해 왔던 것이다.

인간에게는 이성이 있다. 인간이 갖는 지각은 환경을 인지(認知)하는 기초가 되나 환경을 규정하는 미디어는 이 지각의 확장과 같이 증가하는 것이다.

그것이 건축의——훨씬 넓은 의미에서의 건축의——미디어인 것이다.

건축의 개념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그 역할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1) 건축이란 祭祀(제사)적인 것이다. 즉 기념비이고 심볼이며 기호이기도 하고 표현인 것이다.

(2) 건축이란 체온을 컨트롤하는 것——인간을 보호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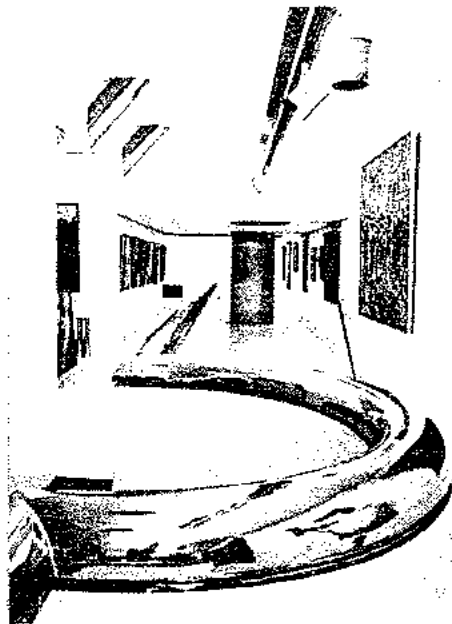
(3) 건축이란 심리적인 상태를 조화시키는 것이다.

수천년을 두고 기후에서 보호하는 수단으로서의 환경의 인공적인 변화와 규정은 계속되었다. 그것은 건축가의 손을 거치지 않은 건설에 의해서 혹은 건축가의 손을 가진 건물에 의해서도지만 이들 건축물은 본질적인 선언이며 표현이었다. 건설은 3차원적인 현상의——공간의 규정으로서 혹은 보호막으로서 혹은 도구 기계로서 혹은 심리적인 수단으로서 혹은 심볼로서의 요구에 일치된——창조로 이해되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과 사회의 필요성과 요구의 발전에 의해서 종래와는 전혀 다른 상황에 우리들이 가담되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것은 먼저 종래의 원칙이었던 기술면에 있어서의 개량이며 또는 물리적인 건축재료를 새로운 재료와 방법에 의해서 확장되며 또한 비물질적인 것이 공간을 규정하는 수단이 되어가는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많은 과제와 문제가 오늘날 종래와 다름없이 건설과 건축에 의하여 해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종래와 같이 이해되어 왔던 건축이라는 것인가? 혹은 다른 발전한 수단이 있는 것인가?

건축가는 여기에 있어서 최근 눈부시게 발전을 이룬 전략기술의 몇 개를 참고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전략기술이 건축이나 그것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연구를 하지 않았던들 오늘날의 방위력이나 감시탐을 설치한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전략기술은 건축 불에의 의존을 벌써 완전히 포기하고 그 파제를 추구하는 데 새로운 수단을 개발했다. 또 예를 들어 하수구를 연외로 끌어내려 만든다든지 혹은 전체관측장치를 홀로 쌓아올려 건설한다고는 누구든지 생각지 않을 것이며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미디어(전화, T.V. 라디오)가 취급하는 것은 대단히 급진적인 것이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건축이란 개념도 언젠가는 없어지고 이러한 새로운 수단에 의해서 변경이 될 것이다.

건축가는 건축불만의 사고를 그만 두어야 한다.

건축이 가진 작용의 의의에 대해서도 쓸 수 밖에 없겠다. 건축은 어떠한 효과를 갖는 것이다. 즉 그 소유 혹은 사용방법들이 중요한



것이다. 하나의 건물은 완전히 情報體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명은 같은 정보(신문, T.V.)의 미디어에 의해서만이 달성된다. 사실 아크로폴리스 또는 피라미드가 물리적으로 존재하느냐 안하느냐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실제로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미디어에 의해서 의식되기 때문이다. 또 그 역할을 잘 생각해 보면 정보의 효과에 의존하는 것이기도 하다.

건물은 즉 실체로서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건축의 커뮤니케이션의 미디어에 의한 확장의 초기의 예는 전화박스——최소의 크기지만 地球規模的 環境을 직접 포괄한 건물——인 것이다. 이런 종류의 환경에 다시 인간의 신체에 의해 밀착하고 집중화된 피막으로서의 예를 들어 젓그기의 파일릿트의 헬멧일 것이다. 그것은 전파장치에 의해서 감각과 감각기관을 확장하고 광범위한 영역과 직접 연관시키는 것이다. 그들의 건축적 입장을 훨씬 급진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우주캠퍼스, 특히 우주부의 발전을 들 수 있다. 여기서는 종래의 건물과 비교하여 훨씬 완전히 채운과 영양보급과 배설 그리고 쾌적성으로 훨씬 적절한 상태로 컨트롤하는 또한 움직이는데 대단히 쉬운 점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급격히 발전한 물리적인 가능성은 인공적 환경의 심리적인 가능성을 훨씬 더 시각에 들게 한다. 왜냐하면 환경을 건설하는(예를 들어 덮는다, 기후로부터 보호한다, 공간을 규정한다) 필요성이 없어질 때 완전히 새로운 자유가 예상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인간은 공간을 규정하는 참된 중심점이며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순수히 구조적인 건물을 능가하는 건축의 미디어의 확장은 여러 가지 실험, 특히 잡아 당기는 구조를 가지고 시작되었다. 우리들의 환경을 희망에 따라서 될 수 있는대로 신속히 그리고 간단히 변경하고 그것을 수송한다는 희망은 처음으로 재료와 가능성에 대하여 훨씬 광범위한 영역에 대해서만 전망을 주었다. 건축외의 다른 분야에서는 일부 이미 사용된 수단에 의해서 즉 우리들은 오늘날 풍선으로 불리는 건축이나 또는 매어 단 건축을 실현 시키고 있다.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건축재료적인 것이 아닌 건축의 수단이다.

물리적인 것과는 다른 수단(예를 들어 빛, 온도, 냄새)으로 우리들의 환경을 규정하고 공간을 규정한다. 시험삼아 하는 것은 아직 한번도 행하지 않았다. 과학 제품이나 약품을 사용해서 체온이나 신체기능을 컨트롤하거나 혹은 환경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실제로 전혀 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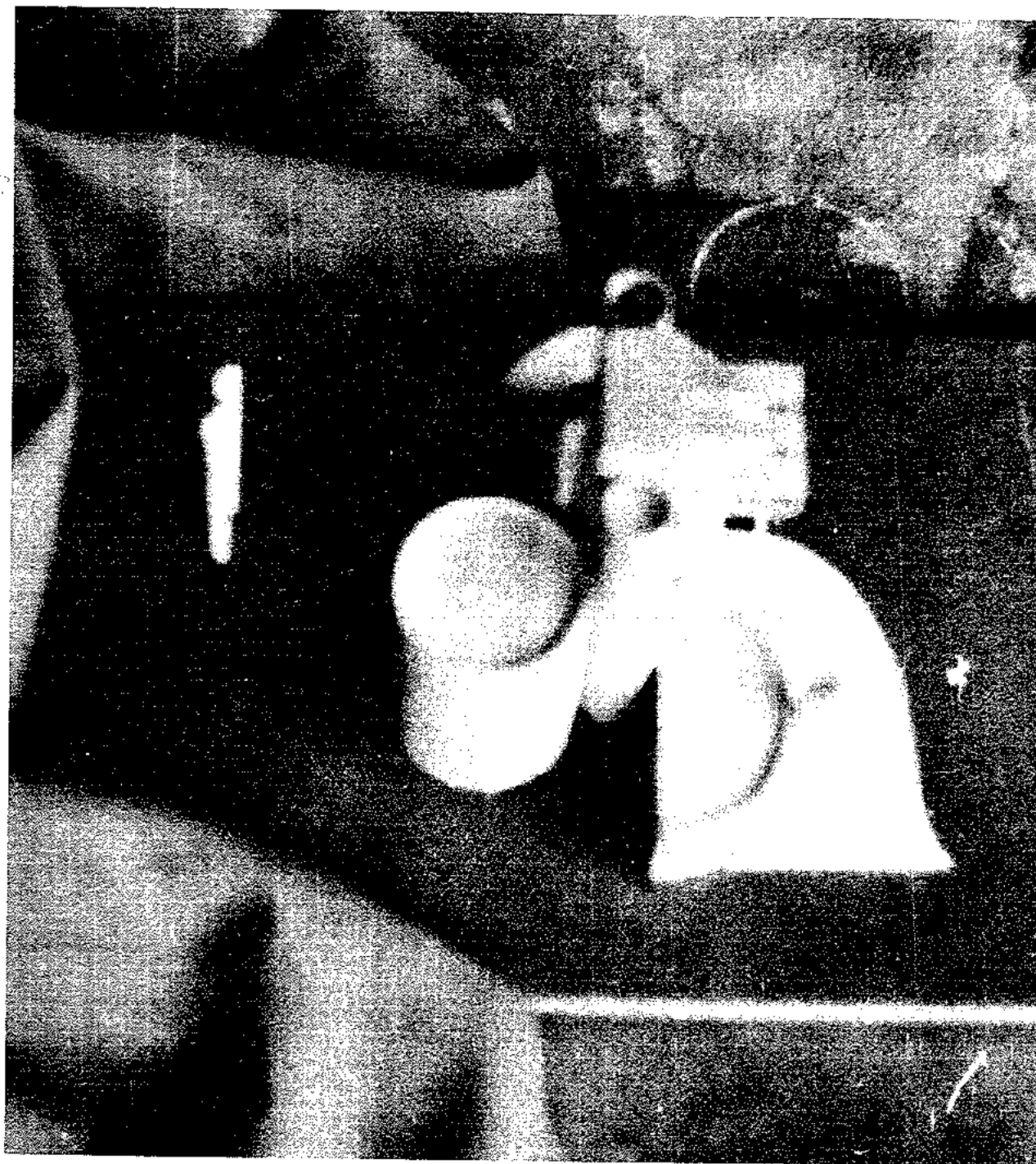
건축가는 재료만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만두어야 한다. 건축은 지난 시대의 대단히 수가 적은 한정된 수단과는 반대로 지금이야말로 무한한 수단이 있기 때문에 공간의 질이나 심리적, 생리적 요구를 만족하는 데 힘을 쓸 수도 있고 건축의 건설과정에서의 또 하나의 연관성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공간은 훨씬 의의적으로 예를 들어 기계적, 시각적 음향적인 질도 있을 것이고 정보의 효과를 내포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며 감정적인 요구에 직접 적응시킬 수 있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오늘은 참된 건축이란 미디어라고 새로이 정의할 시대이며, 그 수단의 영역을 확장하는 시대이기도하다. 건축외의 다른 많은 분야가 건축에 침투되어 가고 있으며 또 건축도 건축가도 넓은 영역을 포괄시켜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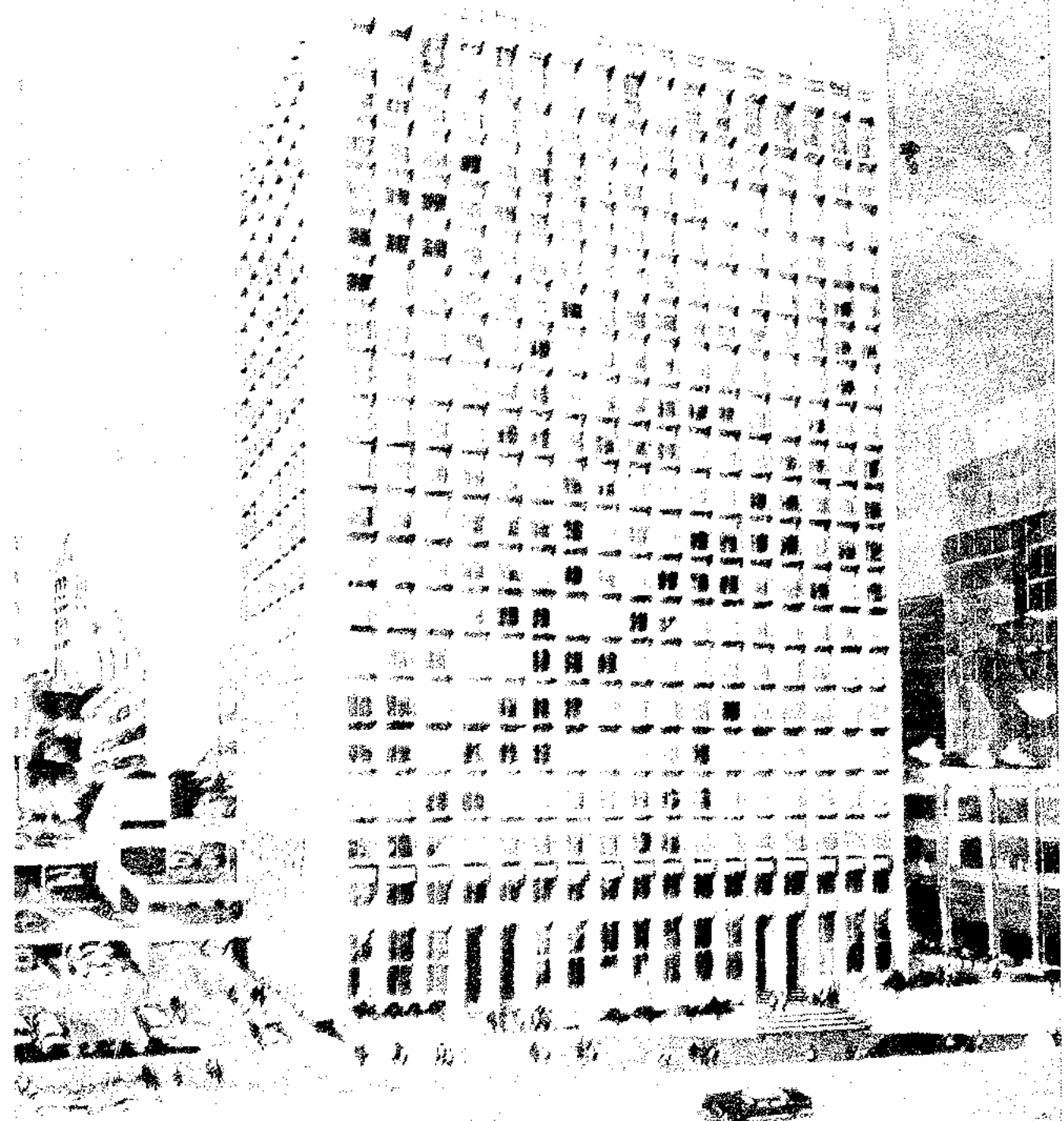
모든 사람들은 그 누구도 건축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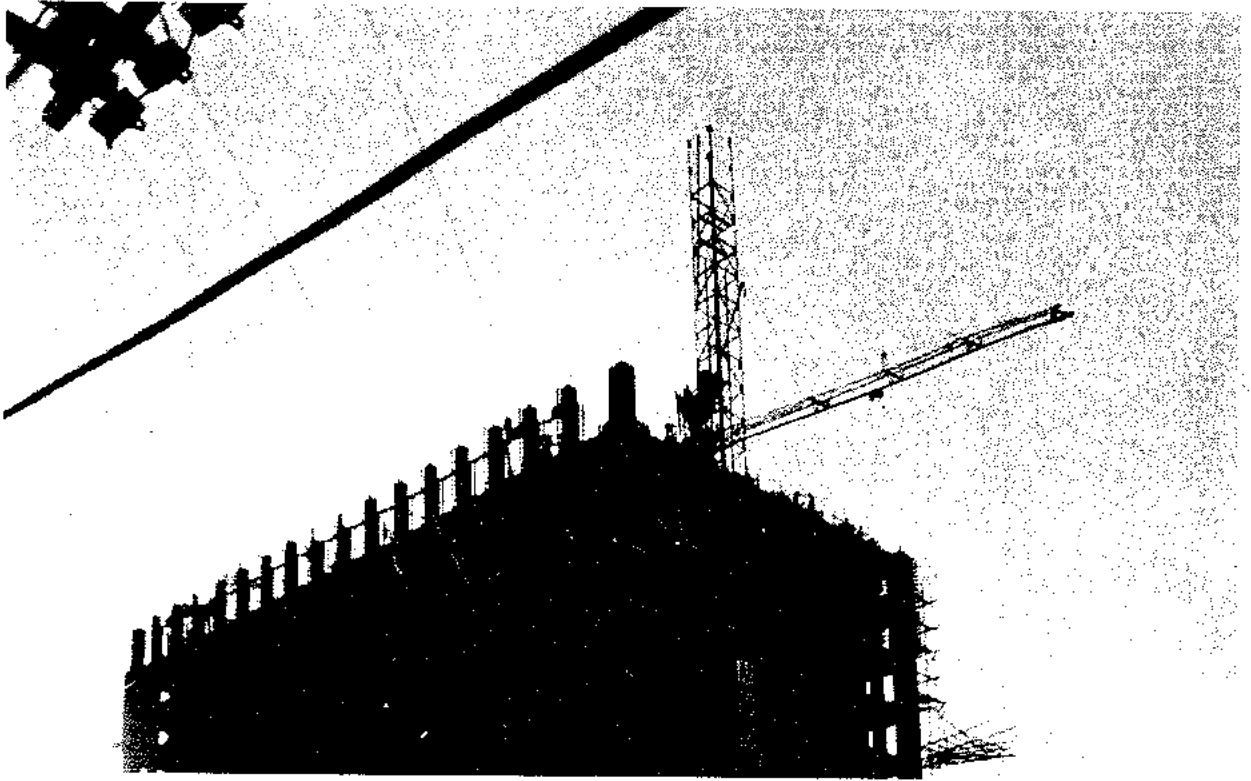
모든 것이 건축이다.

이달의 작품



삼주벨딩





層 數：地下 2 層，地上 22 層，地上高 78m

建 坪：400 坪（延建坪 9,450 坪）

構 造：鐵筋콘크리트造

에 레 이 터：18 人乘 8 臺，分速 150m

瑞西 신들러 製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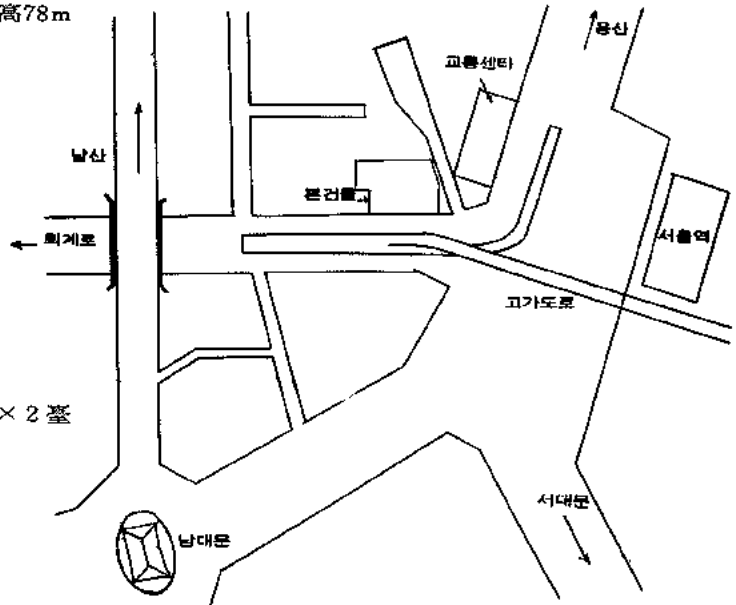
冷暖房設備：860 R/T 中央調節式

電 氣 設 備：事務室 照明 500 LU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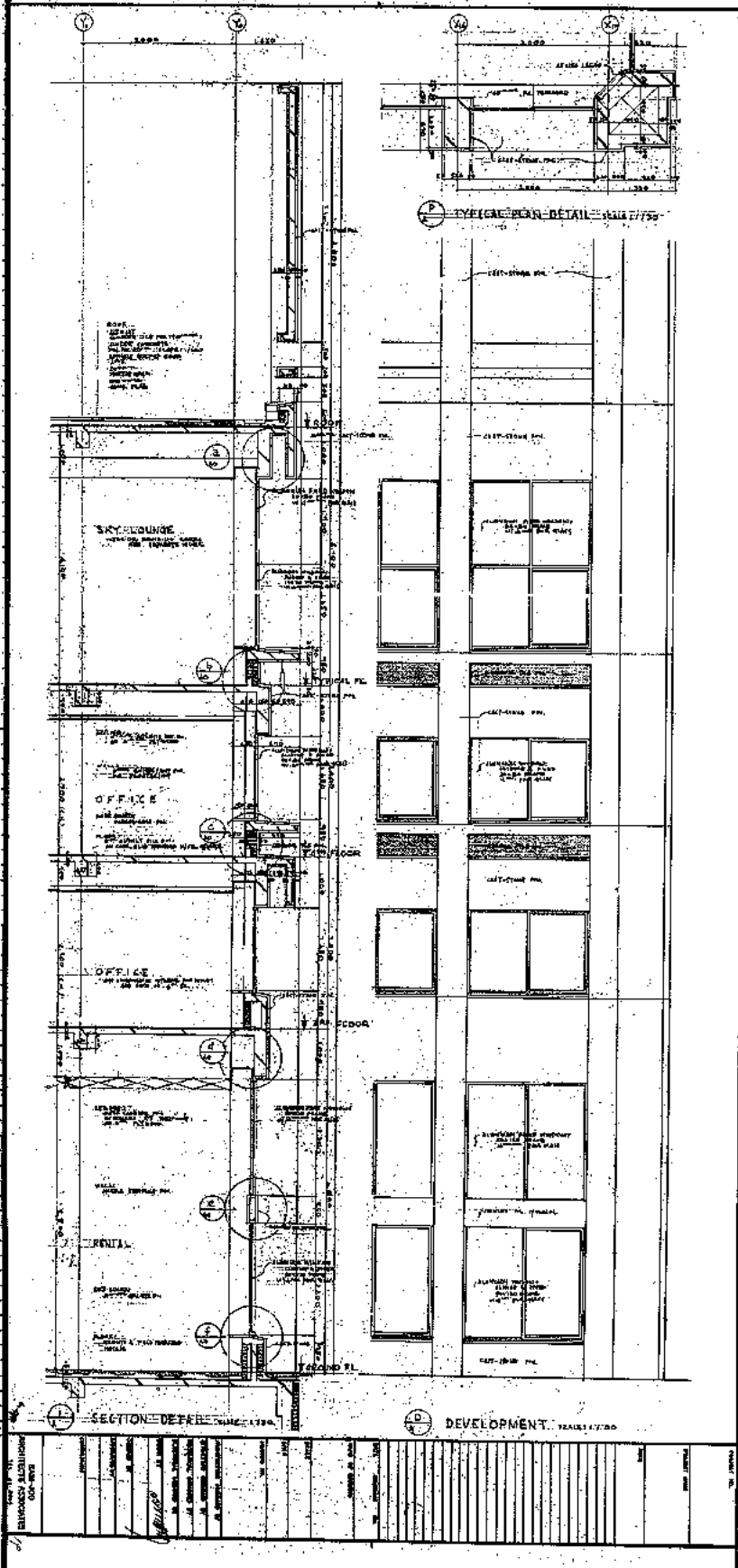
非常用發電機 500 KVA × 2 臺

駐 車 施 設：屋內 30 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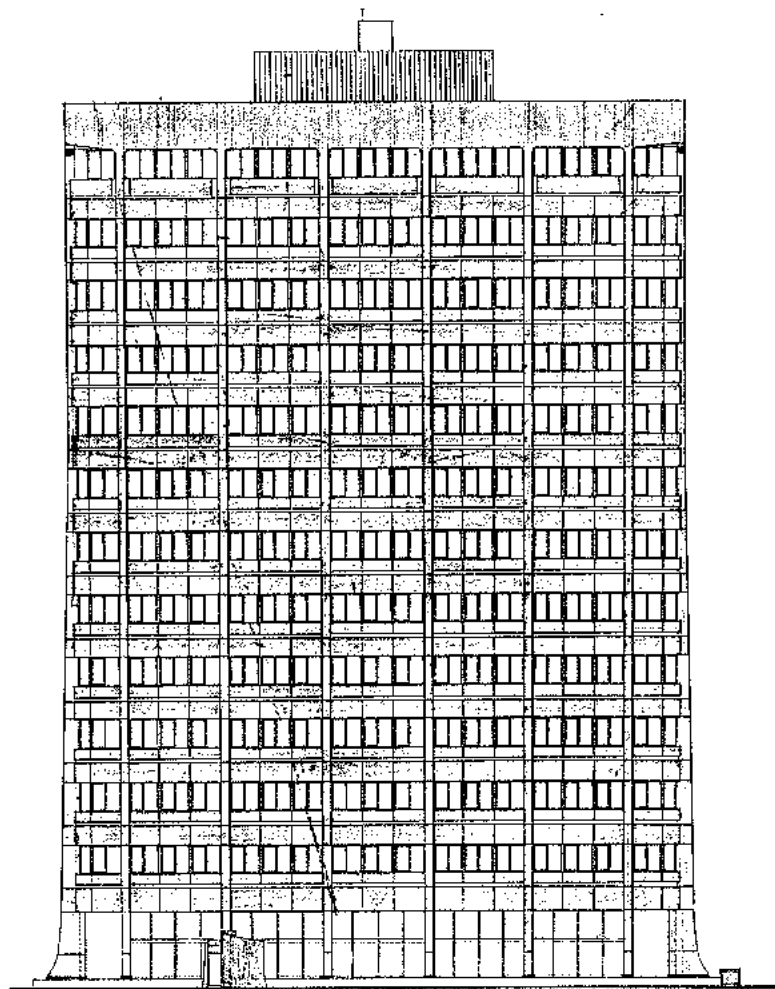
屋外 170 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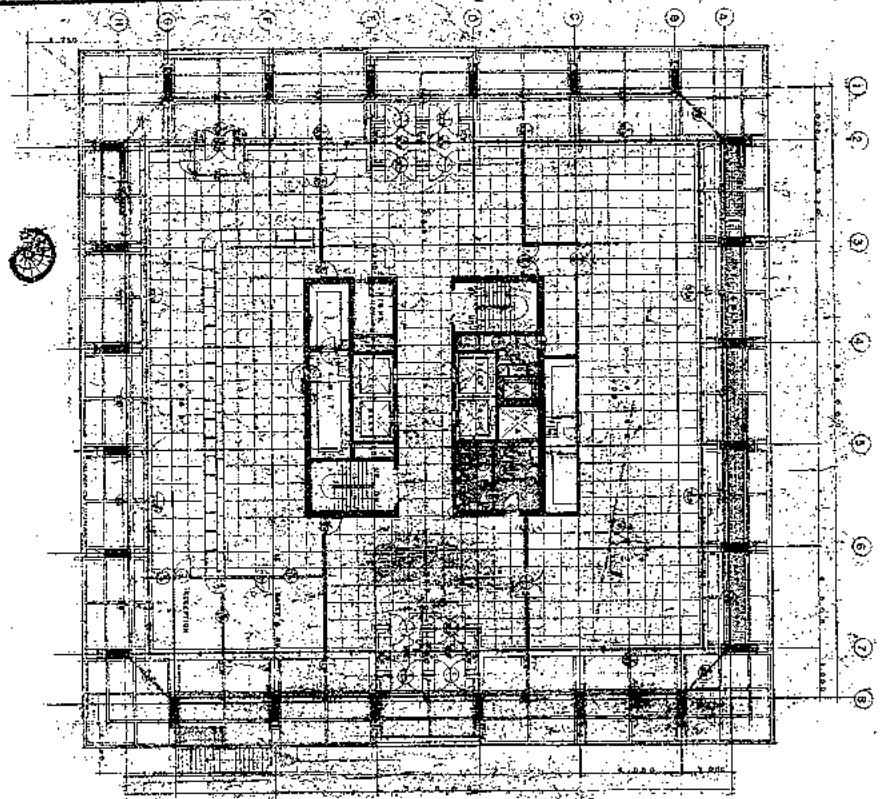


위 치 도
LOCATION 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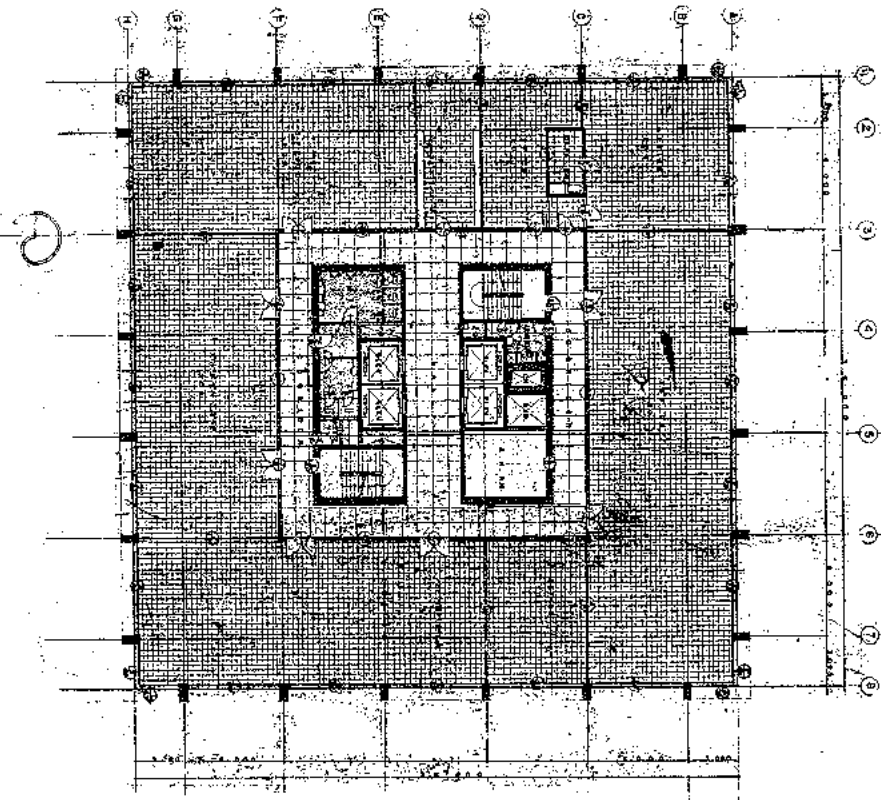


수 협 회 관 나상진설계사무소 나상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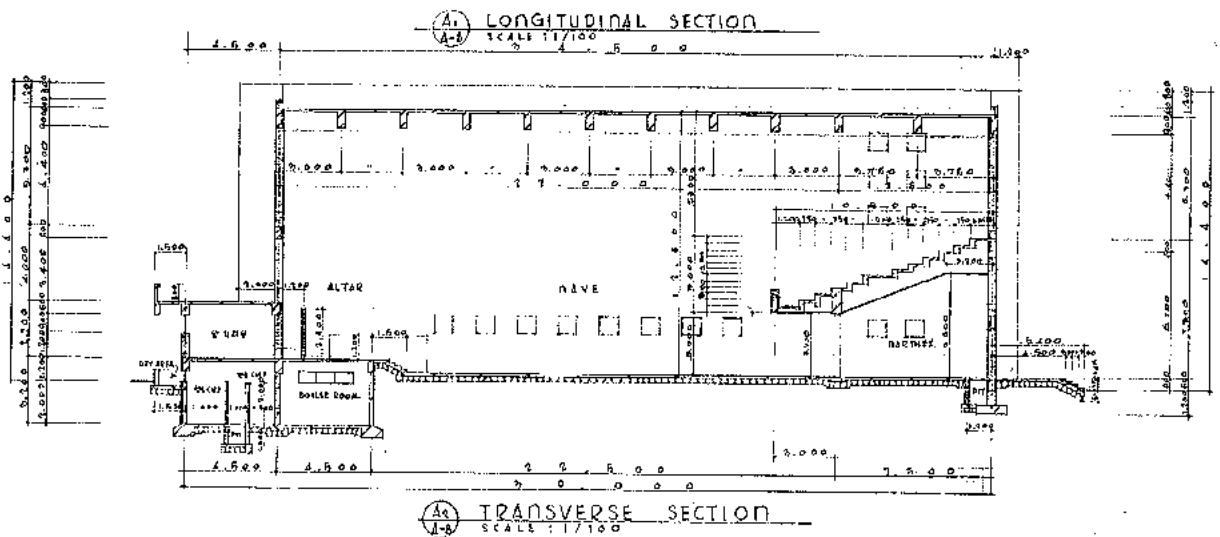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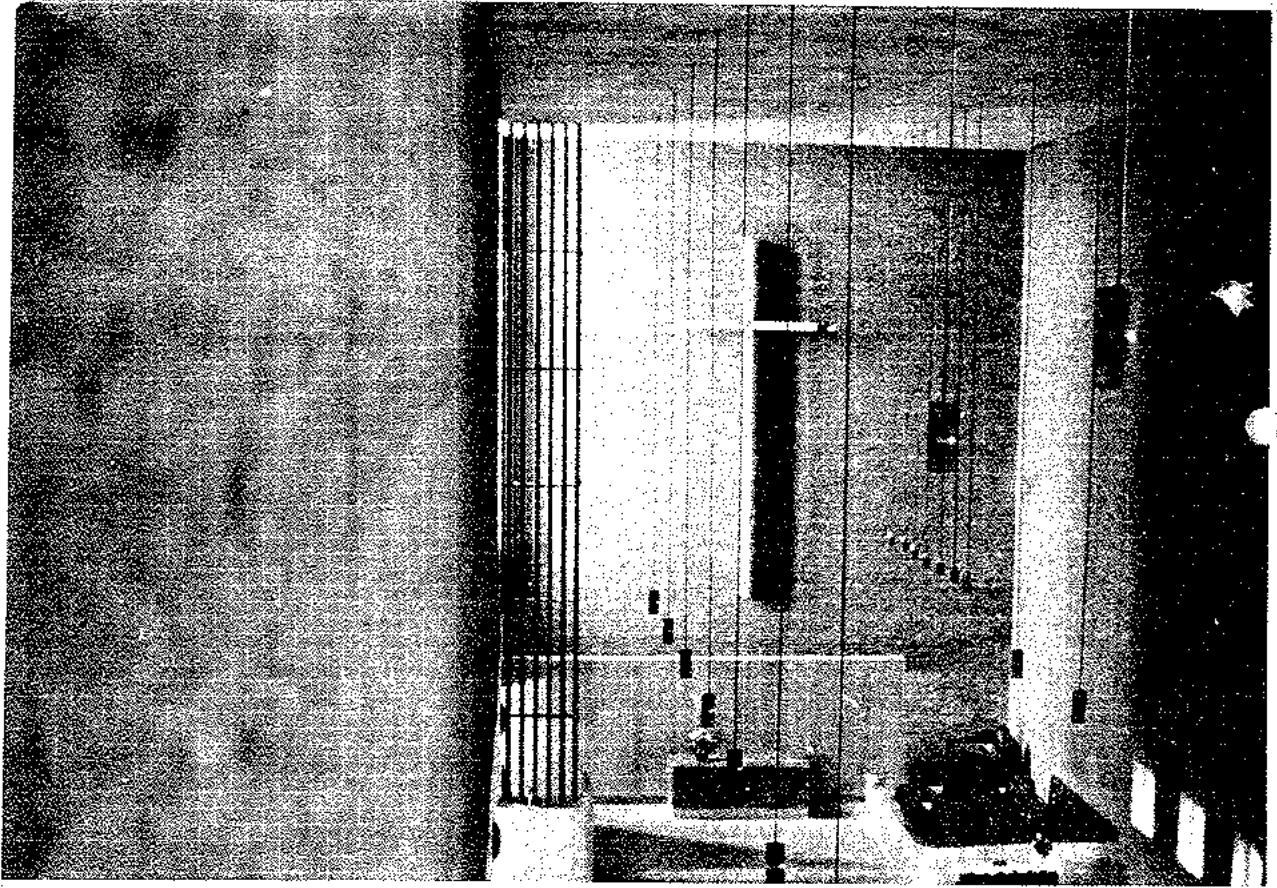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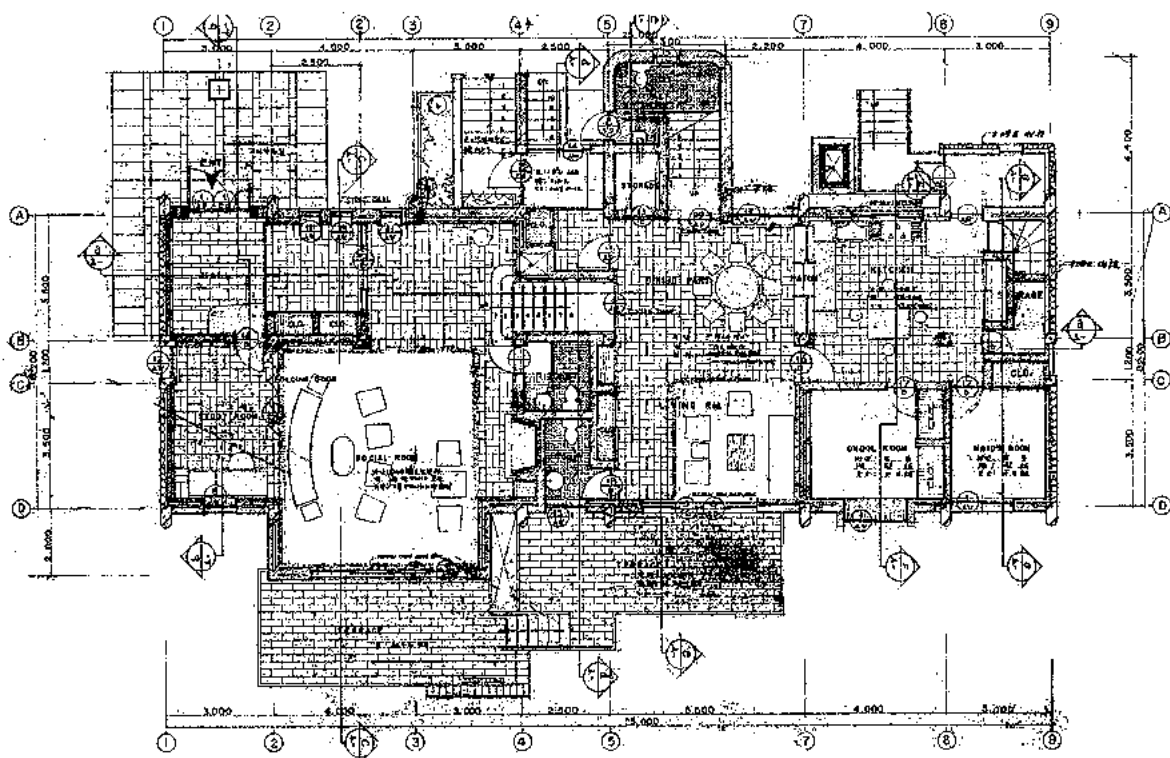
1st FLOOR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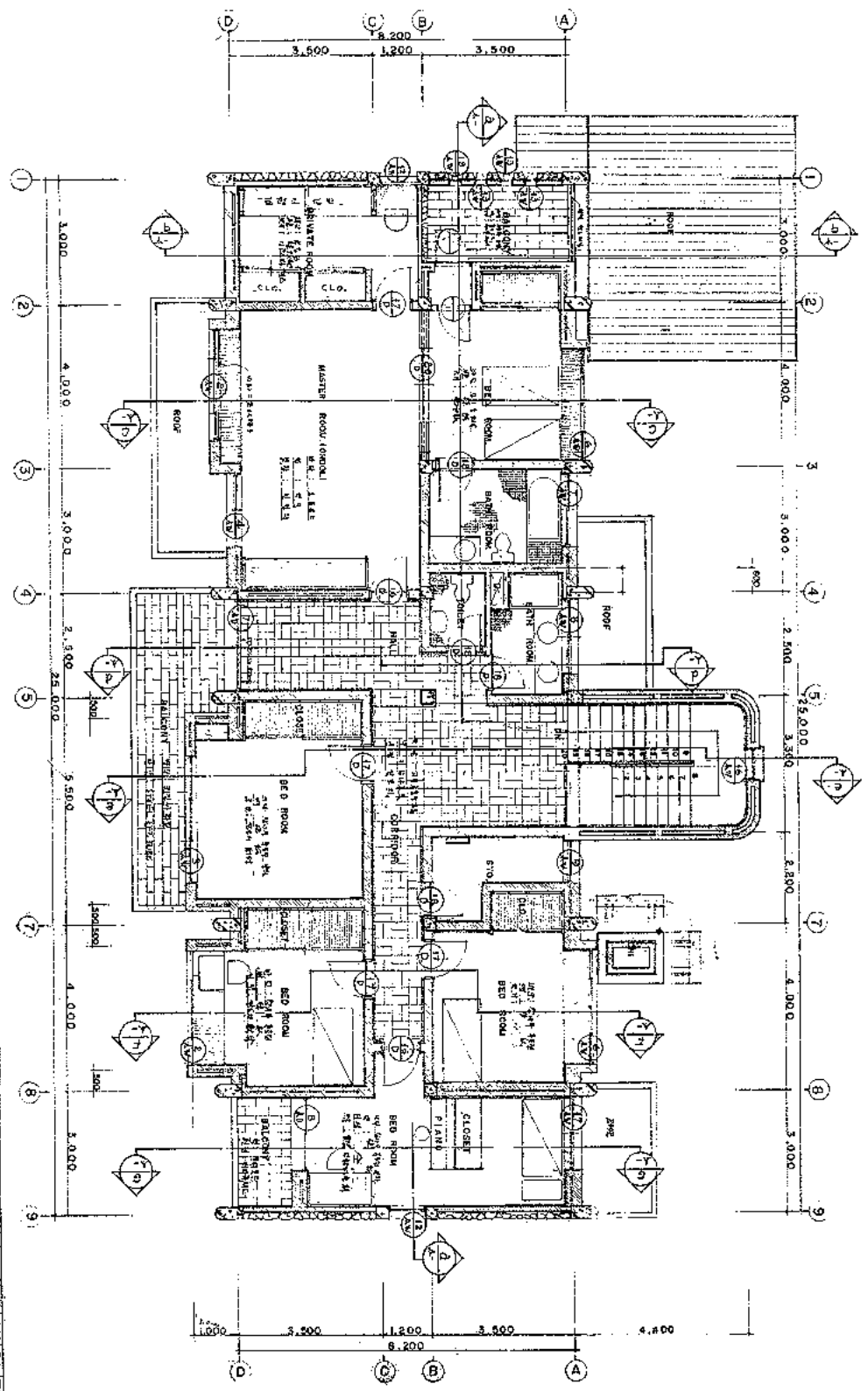
TYPICAL FLOOR PLAN
12th F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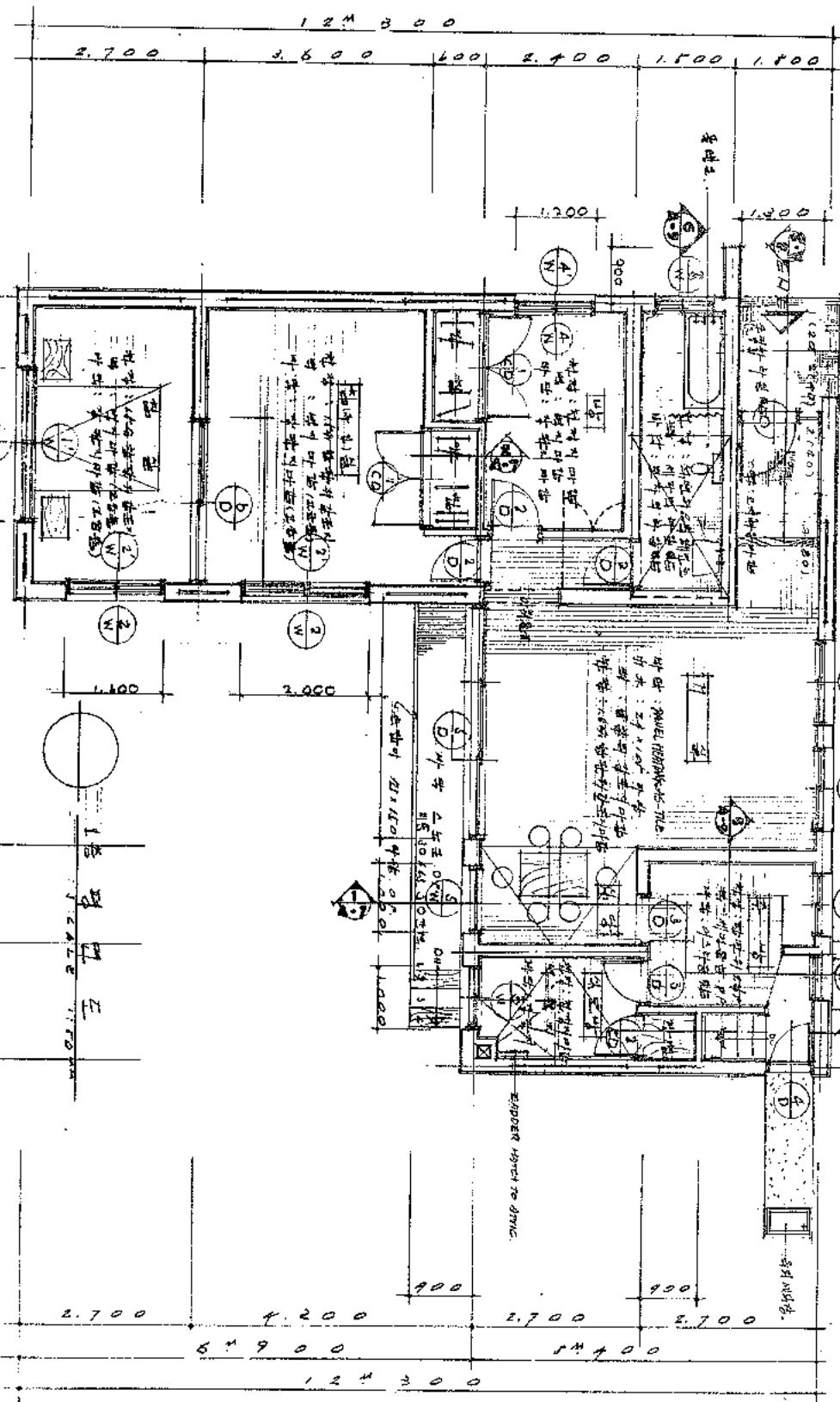
Y 사 장 덕 정인국 정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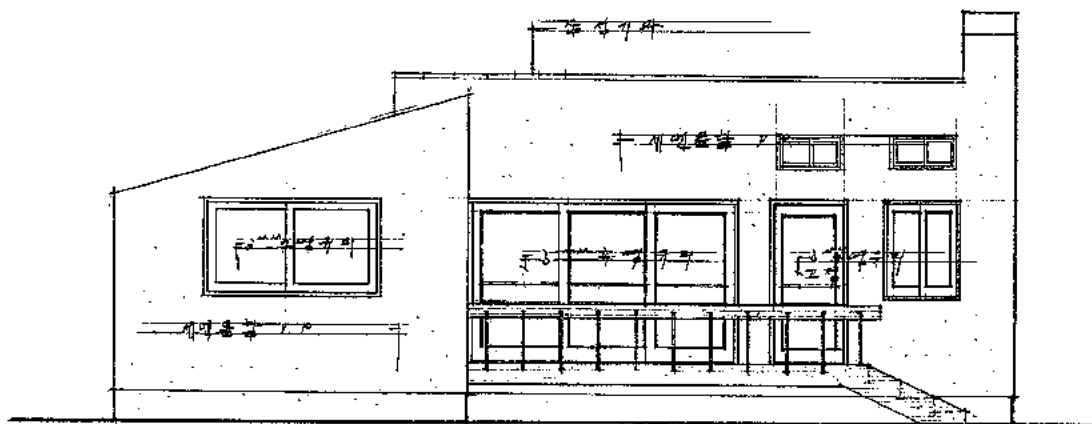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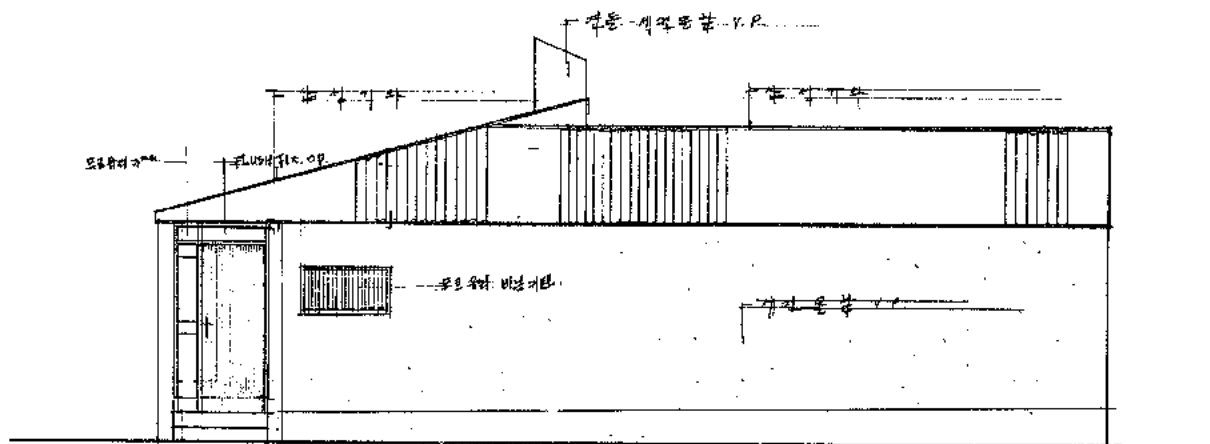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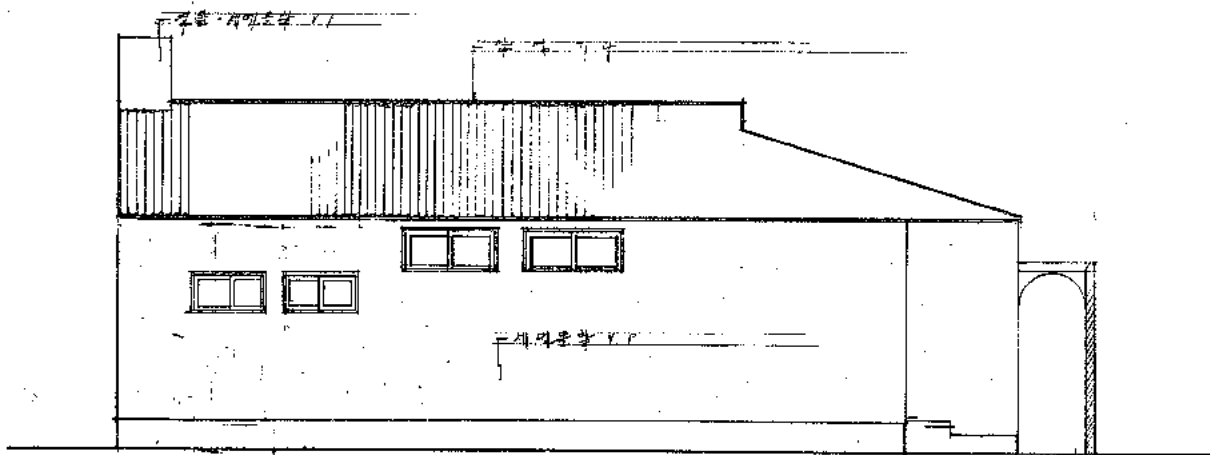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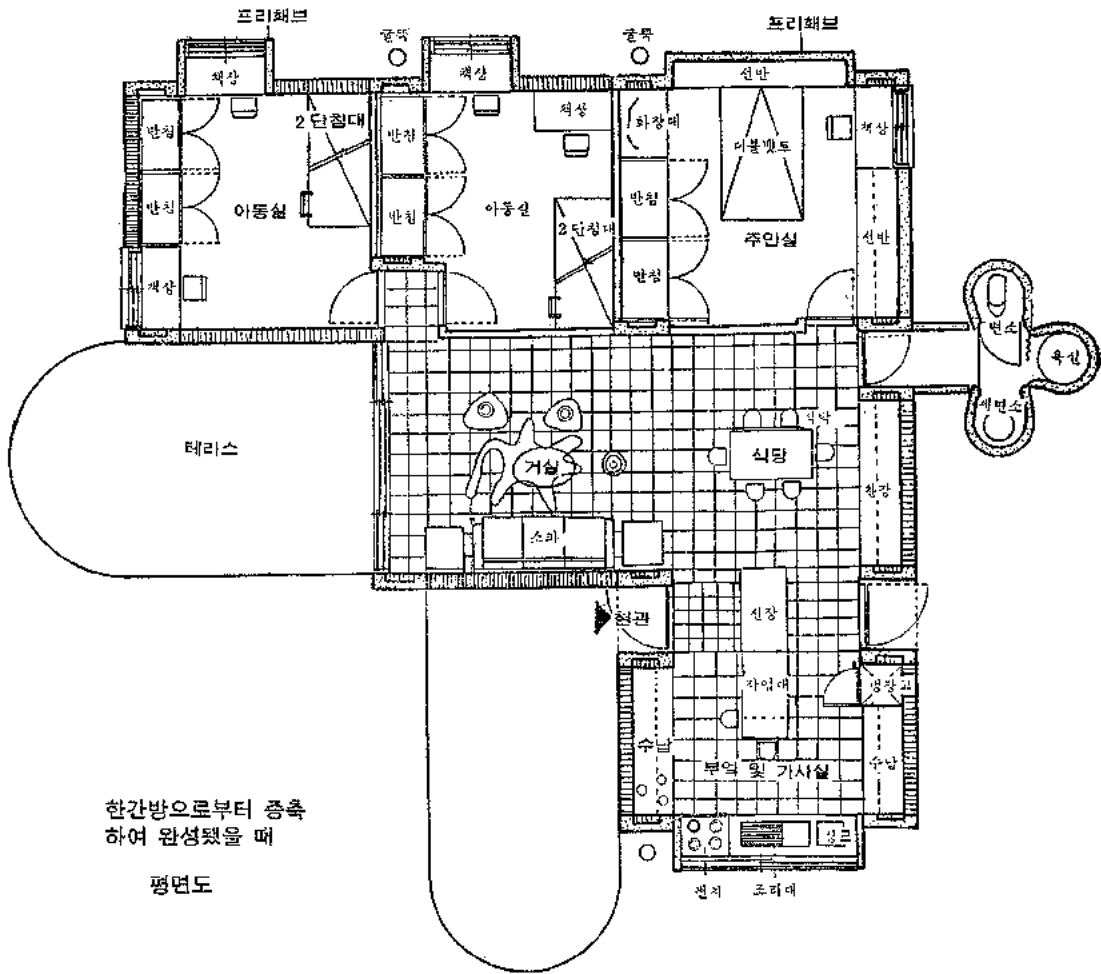
2nd FLOOR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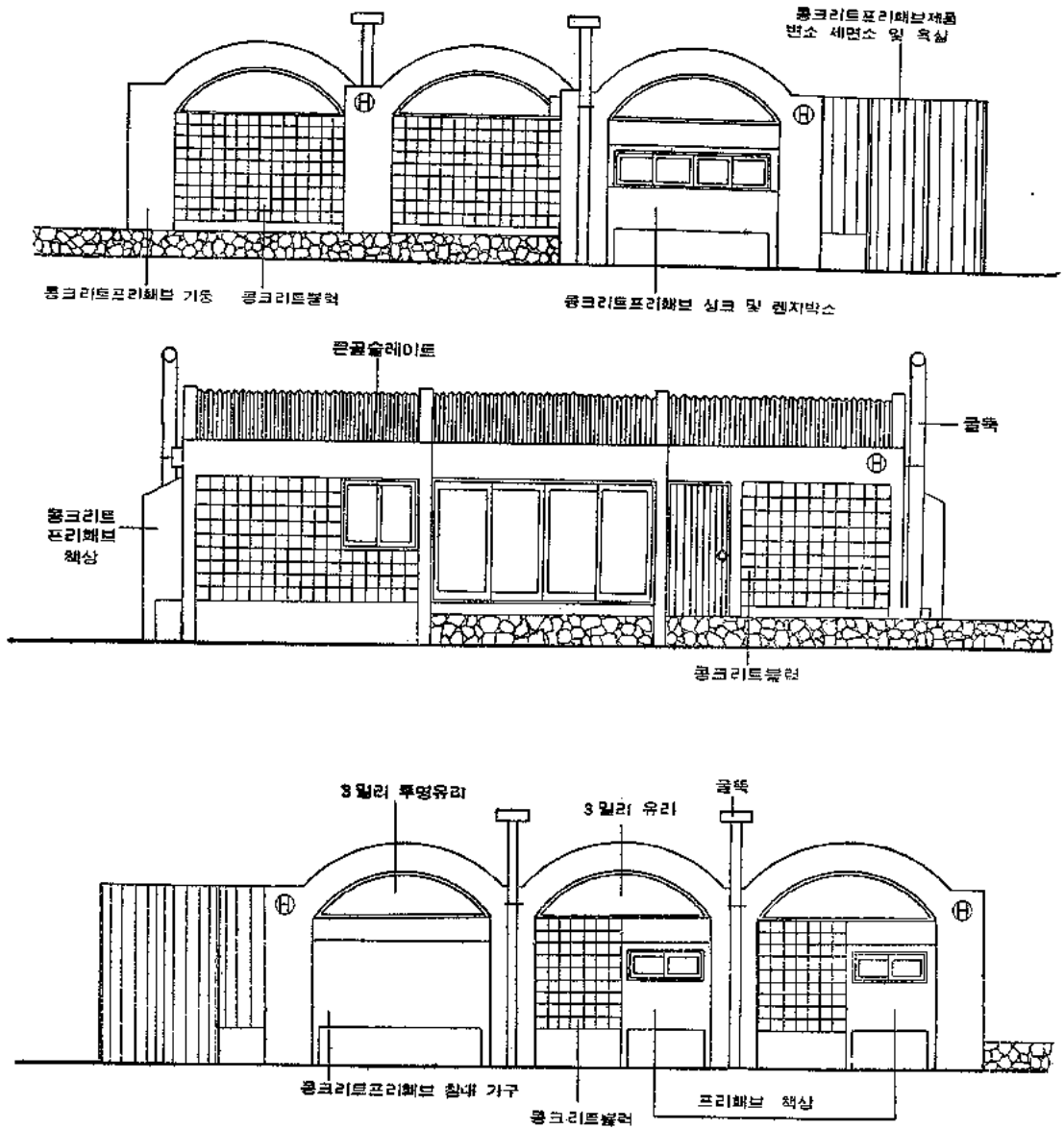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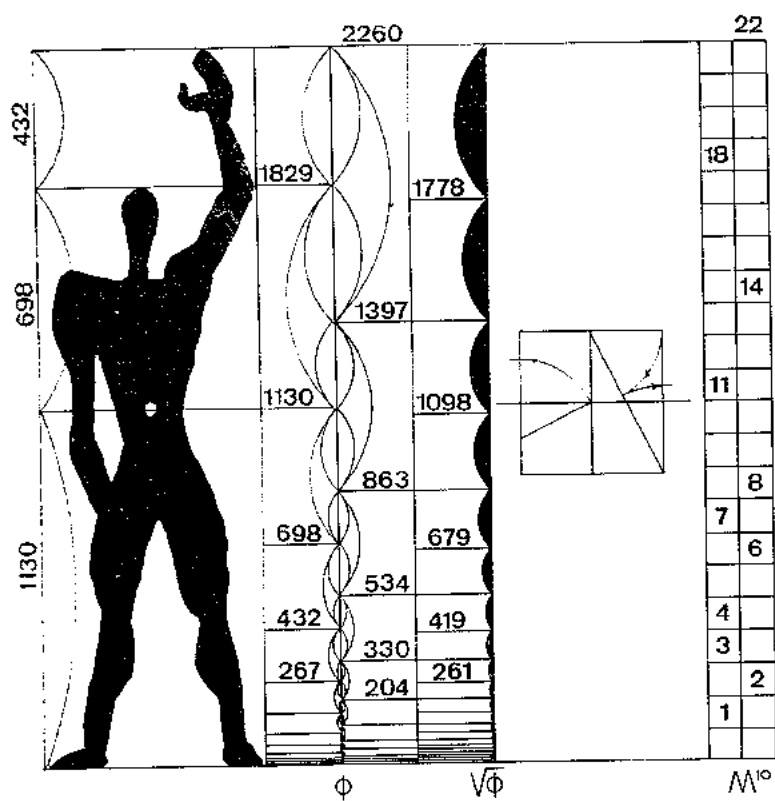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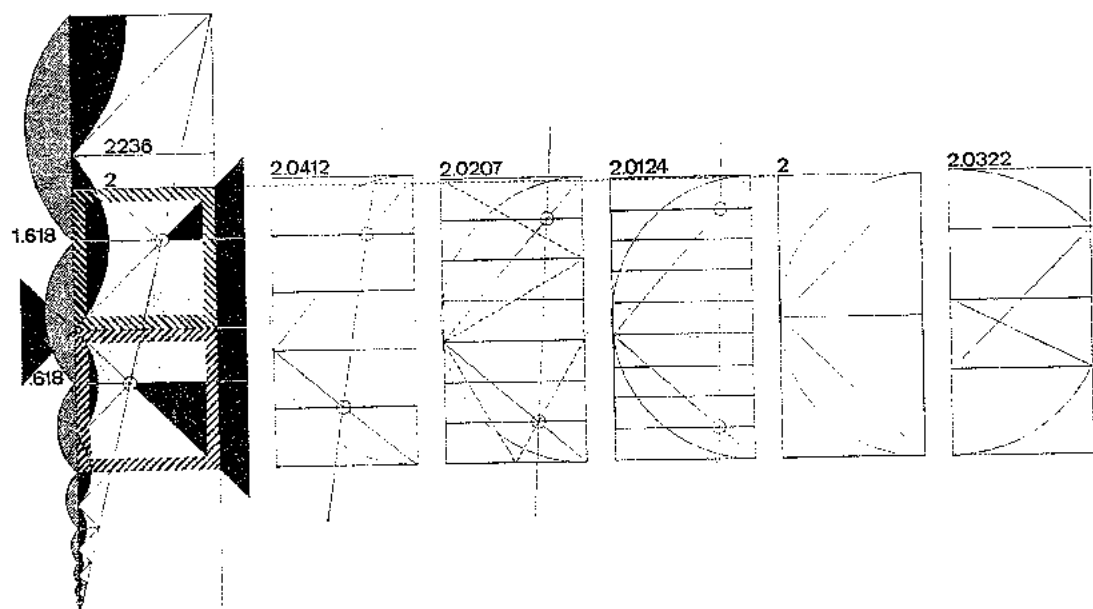
工	第	先	年月日	編出	設計	原圖	米紙	印刷部
新韓建築工事設計圖			07/07	新韓建築設計事務所		一樓設計室		
圖名	2 通平直圖							
事項	欄尺 1/60						石	











20年 後 《사용자에게(다시 한번) 보내는 말!》 나 자신이 진정한 modulator의 사용자인가는 약간 의심스러운 일이지만 1948年 그것이 첫선을 보인 이래, 그 diagram을 벽에 걸어 놓은 책 잡지도 눈에서 떼지 않았고, 나의 모든 건축활동에 일종의 길잡이로 삼아온 것은 사실이다. 20年 동안의 관찰과 연구의 결과 나는 이것에 대해 한마디 “말”을 해도 좋다는 용기를 얻었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될 것처럼 생각이 든다. Le Corbusier는 Modulor를 제도판 위에 놓은 연필이나 삼각자, T尺과 똑같은安心하고 쓸 수 있는 하나의 연장으로서 共通의 尺度가 없는 現代社會에 질서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건축 뿐 아니라 다른 메카니즘에도 적용될 수 있는 調和된 人間尺度로서의 Modulor를 세상에 내어 놓으려 그는 이것이 辭彙 엘리멘트들의 dimension을 해석하고 건축물의 volume에 질서를 주는 하나의 “연장”이 되기를 바랐던 것이다. “MODULOR는 누구나 安心하고 사용할 수 있는 “연장”이다. 오늘 이 순간에 이것은 너무나 명쾌한 사실이다. 여섯달 후 혹은 6년 후 아니 단 몇새 후면 바로 이 나라의 건축가들의 아니 다른 나라의 훌륭한 건축가들의 제도판 위에서 그것이 결코 틀림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될 것이다……. 이것은 확실하고 또 확실한 사실이다!”

時間이 너무 많이 흐르기 전에, 우리는 Modulor와 그 업적——現代建築의 “尺度”와 “질서”——을 要約해두

기 때문에 안겨졌다. 20年이란 세월은 정확한 판단들이 나오기에 充分한 理論을 요구하고 있고 새로운 건축관에 의한 건물들의 과학적인 연구에 뚜렷한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으므로 해서 이러한 「판단」은 더욱 절실히 요망된다.

1948年, 즉 理論적인 연구와 실제적인 적용후 7년이 지난 다음 Le Corbusier는 MODULOR에 대해 다음과 같이 定義를 내렸다. “무한한 數의 계열, 유일한 根源 113이라는 숫자, 人間의 太陽神經叢(plexus-solaire) 그로부터 기본적인 variation이 이루어진다.

培 培

황금분할에 의한 머하기
황금분할에 의한 매기”

나는 좀더 연구해 나가기 위해 두가지 문제를 살펴보려 한다. “6尺의 人間” “階壇 및 황금분할”. Corbusier가 pied-pouce(옛내의 尺度로서 우리나라의 尺과 비슷하다. 1pouce=약 27mm)에 기초를 둔 새로운 尺度를 만듦에 있어 그것을 미터法으로 환산하기 위해 서로 共存할 수 없는 두가지 System을 연결시켜 주는 共通分份를 만들어 냈다고 믿었던 것은 확실하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늘날 변화해 가는 공장 생산품들을 볼 때 그 尺度基準이 pied-pouce에 의한 것과 미터 法에 의한 것이 2가지로 갈려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pied-pouce란 철저히 인간의 身體를 기초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그러나 너무나 복잡하게 조합되어 있다. 반면 미터法은 1/2미터, 1/4미터, 벵치미터, 센티미터, 밀리미터등 편리하게 나누어져 있지만 1미터나 2미터의 키를 가진 人間이 없듯 인간의 身體와는 너무도 무관한 숫자로 되어 있다” 지나간 世紀에 이미 Viollet-le-Duc는 다

수가 많이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미터法을 채용했을 때 古代建築의 난해한 그러나 調和된 尺度基準을 미터법으로 쓸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그렇다면 그의 말은 오늘날에 와서 드디어 뒤집혀질 것인가? “人間, 모든 尺度의 基準!”이라는 유크리드 시대의 사고방식이 오늘날에 와서 다시 재현될 것인가? Corbusier가 “6尺의 人間”이라고 했을 때 그는 Modulor에서 定義하기를 “bonhomme des romans policiers anglais”라고 했지만, 그 보다는 바부르비우스의 定義와 매우 흡사한데가 있다. “1尺이한 일반적인 人體身長의 1/6이다.” 분명히, 1尺의 길이에 대해 나라마다 기본적인 차이들이 있다. ——영국에선 30.5cm, 古代 로마에서는 29.6cm로 사용했다. 根源을 일컬어 밝히는 작업은 Le Corbusier가 그리 즐겨하지 않는 방법이다. Modulor의 根源에 대해서도 그는 유모어와 소박함을 가지고, 타협적인 어조로 말하고 있다. “……결국 언젠가는 사람들이 알아차리고……, Modulor를 처음 發見했을 때의 이상한 느낌은 사라졌다. 그러한 이상한 감정은 直觀에서 출발한 發明에 서려있는 어둠들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의 直觀이란 것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알베르티, Hambidge de Ghyka 그리고 Neufert 등의 연구와 작업에 매우 통한다는 것도 분명한 일이다. 그는 Renaissance의 문헌들을 알고 있었고, Ghyka의 책들을 이용했다는 것이 확실하다. 그밖에도 Neufert의 “Bol”이라는 책을 읽었던 것 같다. 아주 最近의 것으로는 1943年, 제2차 대전이 한창일 때 출판된 “Bauordnung-slehre”가 있다. 이 책은 표준화된 構造物에 관해 많은 자료를 제공해 주는 책이다.

1945년發表된 최초의 Modulor(175cm)와 Zeising의 황금비로 분할된 인간—DIN에서 역시 175cm의身長을 채용했다—사이에 많은共通點이 보인다. Neufert는 12.5 cm 단위의 14개의 Module格字(7等身の Canon에 적용되는)를 추구했다. “DIN 4172”의 8등분된 格字속에서人體가 프러시아와 오래된尺度측.

$$31.3854 \sim 31.25 = \frac{125}{4} \text{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Neufert의 의도는 틀림없이 독일의傳統的인대표를 미터법으로 환산하려 했던 것이었음에나 말이다.

미터法에 의한 175의 Modulor로서는 실제로 “pied-pouce”의 개념을 표현할 수 없음을 알고 Le Corbusier는 불만을 갖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175의 Modulor로 충분히 “pied-pouce”를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영국사람들만은 그렇지 않았다. 영국에서의 pied-pouce의 상태는 아래와 같았으니 1965년 5월 영국 정부는 영국에 미터法(MKS)을 적용하기 위해 10년의 유예기간을 정했고, 그리고 이러한 사태는 Modulor에 의해 제창된 system의 變換性에 대한 흥미를 감소시켜 버렸다.

이제 나는 Modulor의 숫자적 가치를 “율곽”짓기 위해 제출된 두가지 案을 상거해 보려 한다. 첫번째 것은 M. Zlokovic가 Modulor와 국제모든 규정(미터法) 사이를 조정하기 위해 생각해 낸 방법으로 Fibonacci 수열을 이용하는 순환수열(Serie recurrenente voisine)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1 3 4 7 11 18 29.....

혹은 그 培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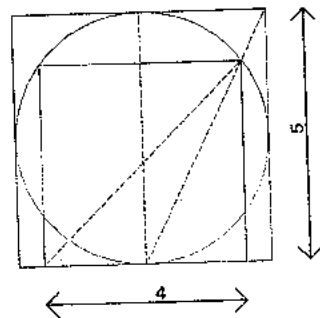
2 6 8 14 22 36 58.....

이렇게 해서 두개의 새로운 수열—다이아그램에서 青色과 赤色으로 구별된—이 국제적 基本모듈의 培數로서 나타난 것이다.

이것과는 아주 다른 방법에 의해 A. Martinot Lagarde氏는 이것과 똑같은 “율곽”에 도달했으나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그는 황금분할 수열을 유사한 그대로 따오는 대신 $1.58 = \sqrt{10}$ 에 가장 유사한 Renarde의 수열(自然數로 되어 있는)을 제시했다. 여기서도身長은 18m(1m=10cm), 팔을 들었을 때 22m으로 되어 있다.

“人體의 중심은 팔팔 나뉘어 없이 배꼽이다. 왜냐하면 만약 사람이 누워서 사지를 활짝 벌히면, 사람은 배꼽을 중심으로 한 콤파스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콤파스로 누워 있는 사람 주위에 원을 그리면 그 선은 손가락 끝과 발끝을 지나갈 것이다.人體가 원안에 들어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人體가 정사각형 속에도 들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즉 팔을 활짝 벌린 길이는身長과 똑같기 때문이다. 그러므로人體는 완전한 정사각형 속에 들어간다.”

원은 正方形을 자르며(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황금분할의 계열이 완전한 적분법을 가질 수 있다는 증거가 된다. 이제 나는 움직이는人間(I'homme dynamique)에 게도 그의 그림이 훌륭히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황금분할법(Schema φ)에 의한 기본적 그림을 그려보았다. 정방형이 원에 접하는 靜的인 圖式은 (4:5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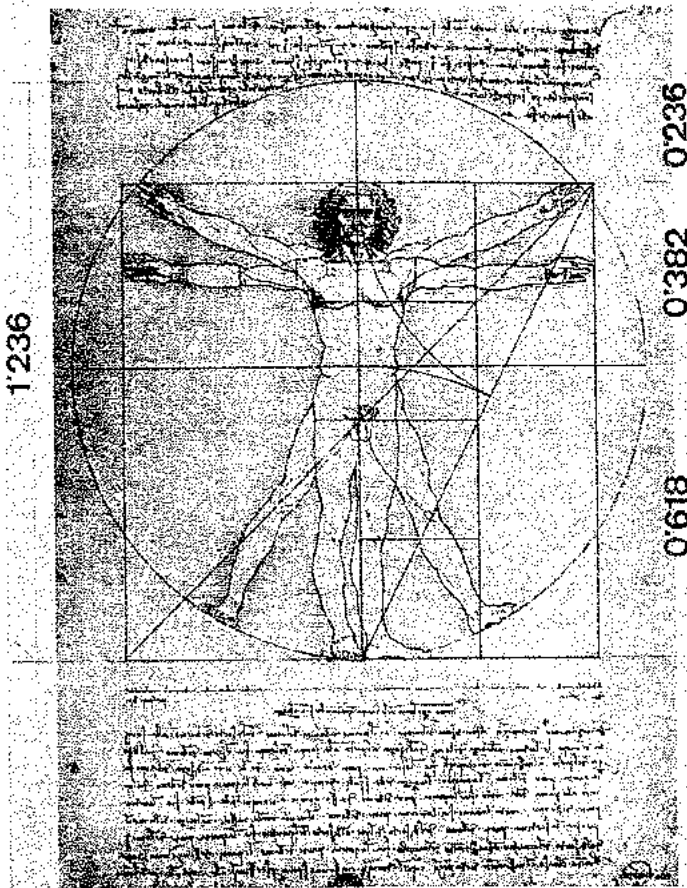
Siegfried, Giedion의 증명을 들어 보자. Giedion 교수는 Modulor에 대해 최상의 찬사를 보내고 있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그 시대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잘못된 증언을 하고 있다. 즉

“그들(레오나르도와 그 시대 사람들)은 비투르비우스를 생각하며 사람이 팔을 펴고 있는 상태를 원 안에 그려 넣음으로서人體의 비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것은 정지된 상태로 있는 건축공간 내응할 수 있는 정지된 상태의人間(I'homme statique)일 뿐이다.”라고 썼다. 그러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도면에 나타난 비투르비우스의人體는 원로네쌍스 시대의 콤포지션의 조화를 지배하는 단순미례법칙에 관한 그림과 더 일치한다. 그러나 그것은 사용되지 않았고 레오나르도는 그것보다는 無理數의 계열을 탐구했다. 그는 움직이는人間(I'homme dynamique)을 추구했던 것이다.

그러나 Le Corbusier는 조금의 양보도 없이 강경한 비판을 하고 있다.

“우리는 숫자의 世界 속에 산다. 당신들은 “율곽”을 짓는 정도로 타점하는 것에 그치고 싶은가? 누구때문에? 무엇때문에?”

확실히 그는 영국의 표준형身長 6尺 쪽에 더 호감을 갖고 있었다.



안에 있을 뿐 아니라 아래와 같은 주석이 붙어 있는 정방형 속에 들어 있다는 것이 주의해야 하겠다.

無理數의 비율에 의한 순차적인 수의 계열에 있어서 培養해 나가는 정방형은 동적 모듈(module dynamique) 형태의 일종일 뿐 아니라(1, $\sqrt{2}$, $\sqrt{3}$, 2, $\sqrt{5}$...) 황금분할법에도 맞는다. 왜냐하면 그 대각선이 $\sqrt{5}$ 이므로.

이렇게 Module의 格字를 만들기 위한 최초의 시도를 하던 중 Le Corbusier는 G. Hanning과 E. Maillard의 도움을 받아 몇 장의 도면을 그려 내었으니 이것은 1951년 Justin Serralta와 Maisonnier에 의한 작업중 고안된 완전한 기하학적 도법과 거의 비슷한 것이었다.

황금분할법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인 培養력은 사각형을 어떻게 숫자로 표현하느냐 즉 기하학적 비율을 어떻게 대수적 비율로 표시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Modulor 2”의 “증언(temoignages)”章에서 Crusard에 의해 개발되었다.

“수의 조합을 될수록 단순히 하기 위한 모든企圖들은(Hanning과 Maillard의) 많은 적은 유사점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Hanning의 式은

$$\frac{\sqrt{3}}{2} + \frac{1}{2} + (\sqrt{2}-1) =$$

2.032 (1.6%의 오차)

Maillard의 방법은

$$\frac{\sqrt{3}}{2} + \frac{2}{\sqrt{5}} = 0.9\sqrt{5} =$$

2.0124 (0.6%의 오차)

이것은 Hanning의 것에 비해

$2\frac{1}{2}$ 배 더 접근하여 있다.

나는 3각형과 4각형에 기초를 둔 2개의 diagram으로서 이 명제를 끝마치려 한다. 이것은 내가 中世建築 속에 채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나는 비교해 볼수 있는 도표를 만들어 $\sqrt{1}$ 에서 $\sqrt{10}$ 까지의 수열로 된 위의 것들과 매우 近似한 培養表를 작성했다. 실제로 사람들은 이런 식의 diagram을 만들기 위해 交互作用을 하는 2 수치의 비율을 近似하게 表示할 수 있는 等價直를 찾게 된다.

Andreas Speiser박사는 Corbusier에게 다음과 같이 써 보낸 적이 있다.

“당신은 나에게 幾何學的 관계와 대수적 관계가 동시에 만족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능한가를 묻는 것입니까? 그것은 가능한 뿐만 아니라, 우리 생애의 진정한 목표입니다.”

Modulor를 위해 Speiser박사는 한가지 理論을 제공하고 있다.

“당신은 Fibonacci의 두가지 수열을 삼입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다른 것이 배수입니다. 우선 이 수열의 4개의 수를 생각해 봅시다. 5, 8, 13, 21의 경우, 첫번째 수와 마지막 수의 합은 즉 5+21은 세번째 수 13의 두배가 됩니다.

Modulor를 만들기 위해 미터法으로 환산되어 쓰여진 Fibonacci 수열의 예를 더 이상 필요가 없으리라 생각한다. 이 상에서 서로 대응하는 두개의 수치(이웃한 赤列과 靑列의 수) 사이는 서로 진동하는 관계임을 증명했다. 즉,

$$\frac{F_{n+1}}{F_n} = 1.309 \text{ 그리고}$$

$$\frac{2}{\phi} = 1.236$$

Modulor의 줄어드는 2 수열은 다음과 같이 된다.

1.829
1.309
1.397
1.236
1.130
1.309
863
1.236
698
1.309
330
534
1.236
432

1.309

$$\frac{1.829}{1.397} = 1.309; \frac{1.397}{1.130} =$$

$$1.236; \frac{1.130}{863} = 1.309 \dots$$

이 두가지 비율의 대수적 평균

$$\frac{1.309 + 1.236}{2} = 1.272$$

은 동시에 직사각형 $\sqrt{\phi}$ 의 정확한 값이 되며, 이 값은 ϕ 수열의 성장에 비하면 그 증가도가 훨씬 느리다. 매수치는 줄어드는 한 개의 ϕ 수열 속에서 다음에 따라 오는 2개의 연속된 수치의 합과 같다. 그러므로 2개의 연속된 수의 합은 그 다음에 오는 4개의 수의 합과 같으며 $\sqrt{\phi}$ 때문에 기하학적 수열이 된다.

183. 144. 113. 89. 70. 55.
43. 34. 27. 21. 16 13. 10.
8.

$$183 = 113 + 70$$

$$144 = 89 + 55$$

$$183 + 144 = 113 + 89 + 70 + 55 = 327$$

우리는 赤數列이 원래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靑數列은 3% 정도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참수록 $\sqrt{\phi}$ 의 비율로 완만해가는 리듬을 가진 Modulor의 정해진 독자적인 수열은 保存된 靑數列과 조정된 赤數列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모양이 된다.

2.261, 1.77. 81. 397. 1.099.
863. 679. 534. 419. 330.....

사각형과 원의 비율들——그 비율 위에 人體가 세워지는——을 비교해 볼 때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즉 ϕ , $\sqrt{\phi}$, 그리고 5/4의 diagram에 나타난 머리(정방향)와 들어올린 손의 손가락 끝(원) 사이에 존재하는 交點 관계의 차이를 최소로 줄였다는 사실이다.

$$1.829:2.261=1:1.236(2/\phi)$$

정방향과 원이 서로 자르고 있다.

$$1.778:2.261=1:1.272(\sqrt{\phi})$$

원이 정방형을 터치지 않는다.

$$1.800:2.250=1:1.25(5/4)$$

원과 정방형은 tangent의 관계다.

나는 Modulor의 기본적인 엘리먼트들을 분석 함으로써 내 생각에 논의의 여지가 있는 듯 보이는 몇가지 논점을 명확히 하려 했다. 나는 황금분할이 우리에게 주는 풍부한 가능성을 보이기 위해 $\sqrt{\phi}$ 의 수열을 첨가해 보았다. 동시에 靜的인 人間(I' homme statique)과 動的인 人間(I' homme dynamique)의 차이를 명확히 하려 했다. 그것은 이미 옛날 사람들이 알고 있던 문제이고 1850년경 V. Zeising에 의해서 재발견되어 “황금분할

(약간 조정된)로 이루어진 6尺의 인간”이라는 公式——사실은 聖賢의 時代에도 存在했다. 비투르비우스를 상기하라——을 만들어 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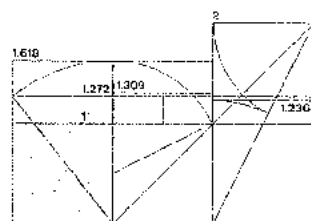
그러나 이런 종류의 모든 비평들에도 불구하고 現代建築에 다 尺度와 푸로포션이라는 문제에 관한 근원적인 대답을 풍요하게 제공해준 LE CORBUSIER의 공적은 누가 어떻게 할 수 없이 공고한 것이다.

R. Wittkower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Modulor에 대해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 古代의 System이 쇠잔한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論理的인 綜合(synthese)이다.”

요즈음 우리나라(불란서)의 기업체들이 이것을 받아 들여 실제로 쓰고 건축 뿐 아니라 경제, 정보, 전자공업 같은 소위 “내일의 공업”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이러한 system들의 일반이론이 널리 선포되어 가고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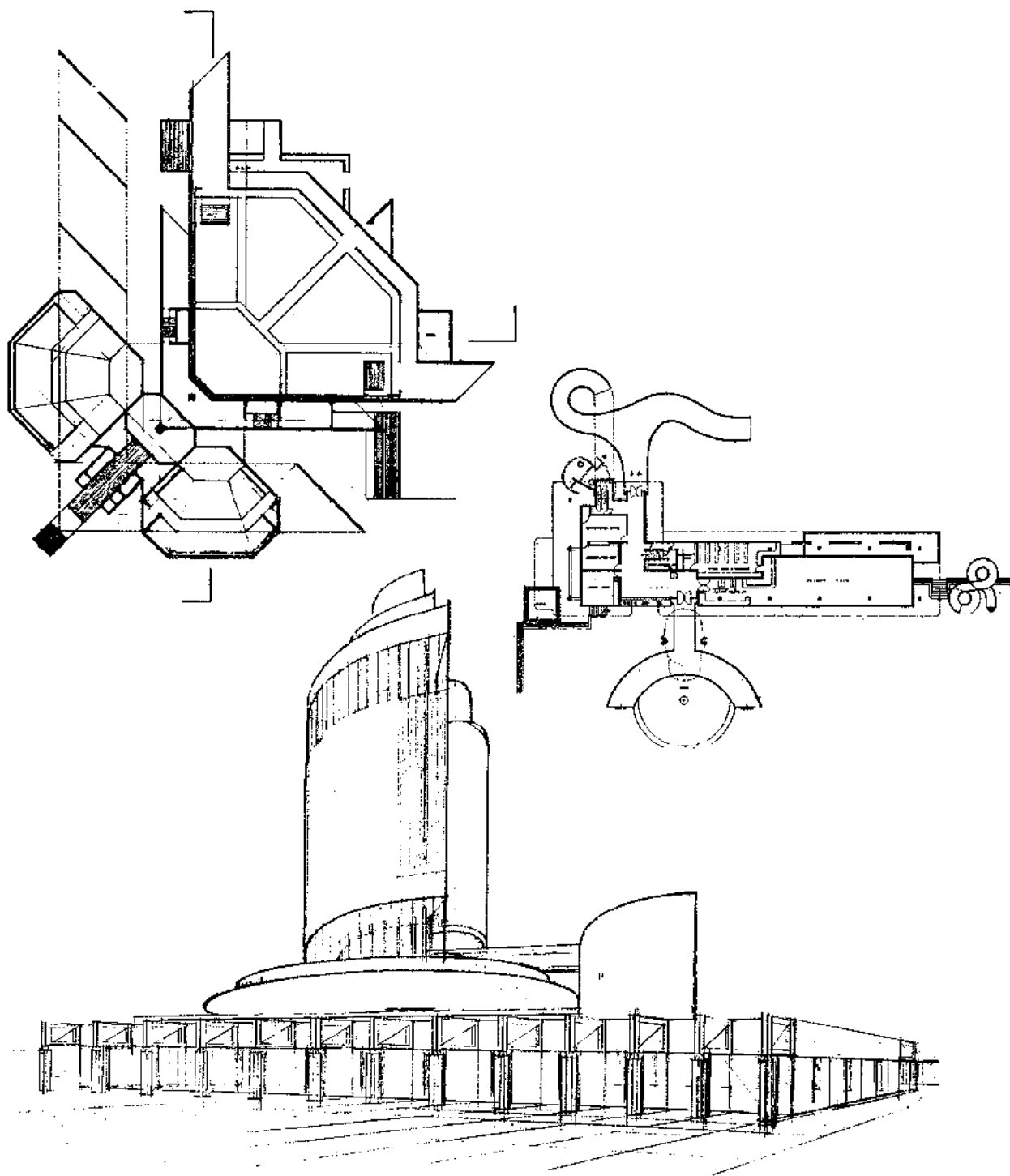
* 흥미로운 (우연의) 일치가 있다.

1.778은 정확하게 로마시대의(비투르 비우스)의 6尺과 같은 길이이다.



지난 달의 작품에 대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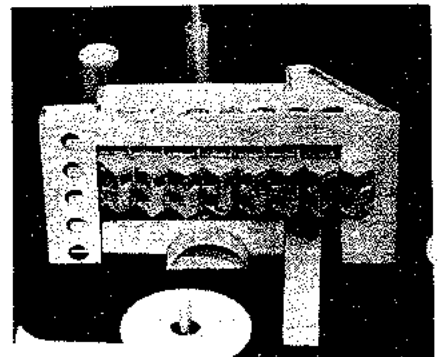
오광수 조창걸



서부 역사

현재의 서울역전물을 령고 역전 재를 복개하고 이를 人工광장으로 하는 거대한 역사가 광장측에서 보면 500m거리를 두고 우뚝 솟아 있게 계획되고 있다. 거대한 타원형의 타워가 접시모양의 원판에 받쳐서 치솟아오르고 있다. 3개의 다른 사상으로 연결되면서 상승하는 이 모뉴멘탈한 건물은 역으로서의 기능과(아래부분) 상징으로서의 만족을 동시에 지니면서 각각 다른 내부공간의 기능을 갖추게 된다. 역과 오피스, 그리고 타워가 호텔로서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타워 부분은 두개의 덩어리의 凸凹에 의한 구조로서 일종의 남녀의 성기의 아나르지를 엿보여준다. 광장에서 들어오는 시선을 하나의 공간에 집중시키고, 거기에 다이내믹한 생성의 힘과 이 거대한 다이내믹에 하나의 인간적인 생명, 활기를 불어넣기 위하여 남녀의 성기를 연상시키므로 지루해버릴, 또는 삭막해 버릴 공간 속에 하나의 훌륭한 生命의 조형을 창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얼마쯤 이 건물은 보여주고 있다.

과연 역으로서의 기능과 오피스 군, 호텔과의 기능의 혼잡이 얼마만큼 극복되며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이 외부의 조형적 스케일 감각과는 별개의 것이다. 이 문제는 이 건축이 세워지고 난 후에 닥쳐올 적절한 성질의 것이다.



EXPO 건축은 하나의 테크닉 건축이다. EXPO '70 한국관은 저층까지의 한국적이란 에피세트로 도배되었던 어설론 전통취미를 전연 개의치 않은 거대한 圓筒의 列柱로서 形象化되었다. 列柱를 연결하는 트라스, 이 가운데 展示空間이 계획되었다. 원통의 기둥과 직선적인 면의 대조가 리듬을 만들며 맛스의 긴장감을 일으키는 外部空間에 비해, 내부공간은 列柱와 展示공간의 기능적인 연결이 훌륭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列柱의 내부공간을 전공간으로 충분히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다. 外部空間의 다이내믹한 조형성을 강조한 나머지, 내부공간의 기능 상실의 초래됨으로써 실제 조화있는 건축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 단순 명쾌한 列柱의 다이내미티가 工業 한국의 성장을 상징한다는 설명은 부차적인 문제이다. 이 부차적인 문제 때문에 건축의 본질적인 기능이 상실될 때가 많다. 이것은 일반대중 속에서 더 많이 저지르고 있는 파오이다.

여의도 교차

서로 파생되어 가는 3각형의 평면으로 발전되는 내부공간의 스케일 감각은 외부면블록의 구조에서도 연결되어 상승해 가는 기원의 자세로서 3각형이 주는 상징을 조형화하고 있는 듯하다. 외부공간의 구조적인 전개는 확실히 조각적인 맛스와 맛스가 자아내는 프락스틱한 리듬과 여기서 생겨나는 긴장감이 교회로서의 모뉴멘을 만족시켜 준다. 연속적인 단계의 발전이 위로 오를수록 十字架의 한 지점으로 集中的으로 집약되어감으로써 상징성을 강조한다. 이와같은 의미에서 본다면 이 건물은 현대의 교적이다.

구조 그것이 건물의 기본적인 리듬과 동선계획을 유도하고 있어 모뉴멘으로서 의미를 한층 강조하고 있다. 예배당과 부속기구의 주종의 기능적 연결이 두개의 3각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부분은 건축적

해조음이라도 들릴 것 같은 조개모양의 타원형으로 이루어진 어프로치, 나선형으로 꼬이는 후면의 입구단계에서 보이는 병원은 어패류의 아나르지를 연상케 하는 데서, 이 건물이 지니는 기능성과 상징성이(제주도란 지역성과 대학이라는 교육기관) 훌륭한 접합점을 찾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엿보인다. 지붕과 이를 지지하는 기둥의 감각은 불란서 대사관의 한 연장같이 생각된다. 불란서 대사관이 보다 명확한 구조의 모습의 표현이 강한데 비해서 폭면과 구조의 유기적인 리듬 때문에 전화적인 분위기는 나약하며 우아하게 보인다. 이 점은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다. 우아한 폭면과 유기적인 면의 처리가 의미없이 반복됨으로써 쉽사리 만능리듬에 빠질 수 있는 위험과, 콘크리트의 프락스틱한 성질을 잘 표현하면서 그 非情性을 배제할 수 있는 서정적인 감도를 전할 수 있다는 두개의 극단을 갖고 있는 듯하다. 자라나는 나무와 같이 위로 퍼지면서 올라가며 지지되는 기둥들의 표현은 경쾌한 리듬감을 자아내면서 이 건물 전체의 통일감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준다.

제주대학 수산학부

본관 건물과는 대조적인 포름의 감도를 지닌다. 단조한 포름, 콘크리트 벽면의 확면적인 바리에이션으로 구조의 단조로움을 극복하려는 듯이 보인다. 정면의 한쪽으로 치우듯 타워 역시 이 건물이 가지는 단조한 포름의 반복을 깨뜨리는 교섭의 결과를 말해준다.

西江大學의 구조적 연장. 그러나西江大學본관보다 에레베이션의 지나친 규칙적인 구성적배치가 한결 감동을 지워버린다. 구조의 어떤 가능성도 보여주지 않는다. 그 자체의 완성으로서 훌륭한 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실제 어떤 비전, 이 건물의 경우, 구조적 가능성이

김수근씨의 여의도 계획

건축가에게 주어진 임무란 사회의 요구에 순응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질서를 관찰 함으로써 얻어지는 논리를 통하여 앞으로의 상황을 예견함으로써 좀더 올바른 발전으로 사회를 LEAD 해 나갈으로써 좀더 우수한 인간과 자연과의 유기적인 질서를 발전하여 형상화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주어진 상황의 현실 파악만을 통하여 앞으로의 상황을 규명하려는 안이한 사고는 반드시 수습할 수 없는 혼란을 초래케 할 것입니다.

잡지뿐 아니라 종합보고서 전부를 읽어 보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 시대의 성장이 올바른 것인지의 여부도 규명되지 않은채 단지 현실의 욕구만을 받아드려 이를 더욱이 변질된 서구의 단어로 구성된 논리로 관찰한 후 앞으로의 상황을 예견해 보려는 허무한 시도에 너무나 많은 노력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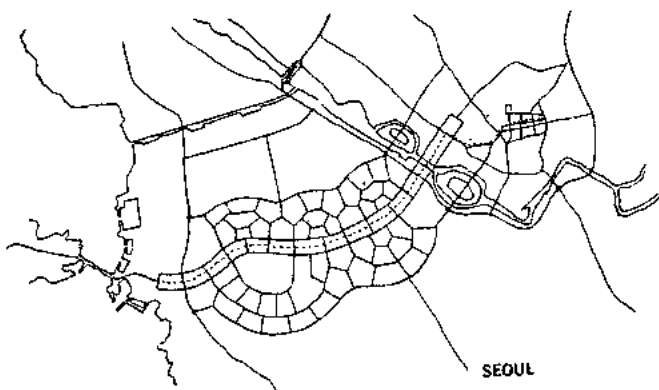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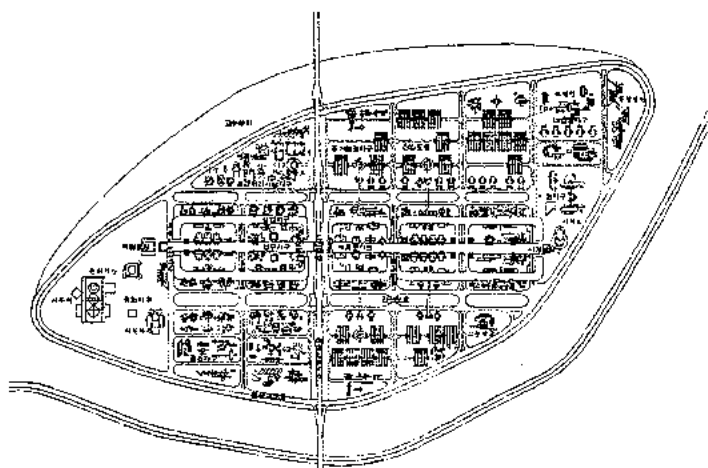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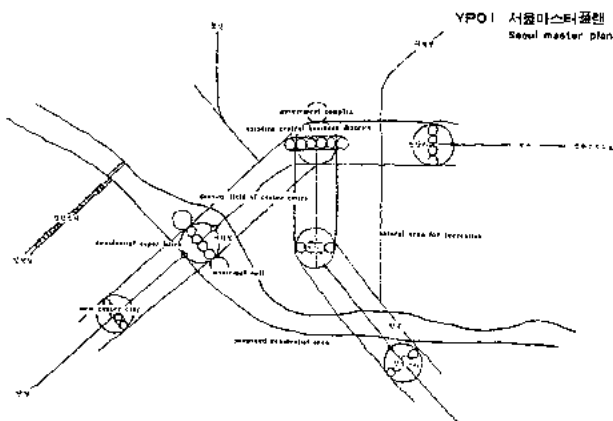
건축가가 사회의 요구를 그대로 비판없이 받아드릴 때 이는 스스로 사회의 LEADER로서의 임무를 포기하는 것이며 안이한 기능공으로의 추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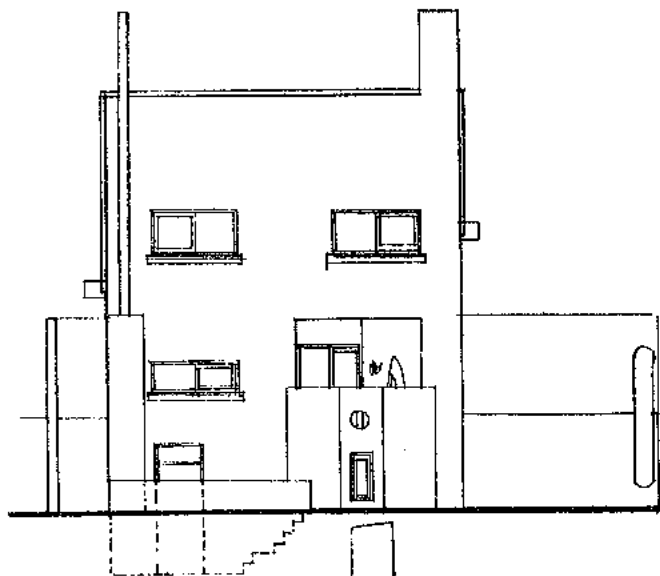
또한 사회가 기능공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을 그 사회는 반드시 붕괴하고 말 것입니다.

김태수씨의 서울 마스터프랜

도시의 성장이 올바른지의 여부보다는 기존도시의 고통에 지나친 연민의 정을 보냄으로써 단지 현실에 대해 욕구의 해방에 대해서만 전력하는 것은 한 도시의 발전을 뜻하기 보다는 오히려 붕괴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서울 마스터프랜의 작가는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이 단지 TRAFFIC SYSTEM의 개선에 의해서만 제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우리의 생활이 TRAFFIC SYSTEM에 의하여 그렇게 변모되어도 올바른 성장이라고 확신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겪고있는 고통은 그렇게 단순한 불합리인 것이 아닐 것이며 생활이 변하기 위하여서는 좀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에서 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서울 MASTER PLAN에 대한 VISION이 아닌 하나의 의견이라고 한다면 그런대로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건축가의 임무가 단지 사회의 일분야의 개발에 있다가 보다는 계사회현상의 변화를 종합하여 조화시킴으로써 한사회 발전이 이룩될 수 있게 하는 데 더욱 중요한 임무가 부여되고 있음으로 이 작품은 비나의 대사가 스 바에 어드 (1961년)





조창걸씨 주택

기능적인 몇가지의 해결외에는 집장사의 집과 별로 다를것이 없는 졸렬한 작품임. 이러한 단편적인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한 작품이 발표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답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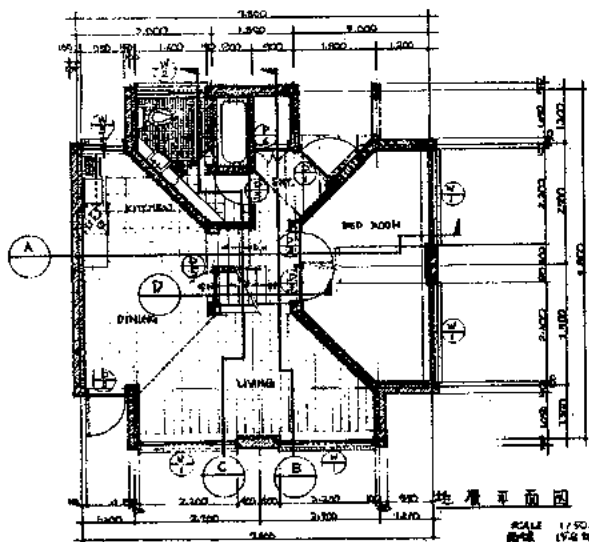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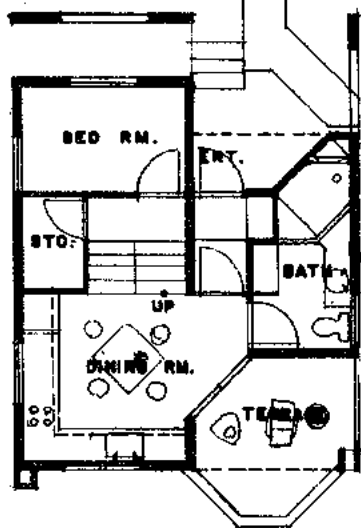
투인하우스

건축은 어느 의미에서는 공간의 항목적인 구성이다. 조화되게 형성된 공간은 용도에 관해서도 타당한 것이다. 아마도 작가는 이런 생각을 꾸준히 해온듯 하다.

그때나 역시 건축가의 첫째 행위는 그에게 맞겨진 설계 조건을 건축의 영역으로 변형해야 하는 것이다. 그럴때 비로써 건축의 평면은 광선에 비추어진 공간의 조화를 표현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 집에서는 이 부분의 과정이 생략되어 있다. 그리고 각각의 공간은 그 구조와 개구부들의 성격에 의하여 깊이나 두께를 가지게 된다. 이것은 자세히 보면 건축공간이 갖게되는 공간의 조화 혹은 밀도라고 표현될 수 있는 바의 것이 빈약하다. 그리고 항목적이지 보다는 다분히 개인적인 취향으로 이루어져 있다.

취미와 가치의 차이를 잘 인식하고 만든 집은 아니다. 이런 정도의 과정이 이루어 놓은 것은 내각선의 벽, 천정, 천창등의 자극적인 요소들의 모습 뿐이다. 그것들이 모여서 공간으로 연계되지 않고 요소들로서만 존재한다. 현관입구에서부터 소위 집내부의 코아 안부분(천창아래)까지의 어프로치에는 깊이가 없고 코아부분의 공간 처리가 미숙해서(천창과 정면의 창문, 천정과 벽면등의 연계가 엉성하다) 좀 특이한 집(우리나라 집장사 집에 비해서)이라는 느낌이 되는 별다른 것이 없다.

사각의 지붕 귀를 도려내고 지붕위에 이상한 스케일로 천창이 돌출하고 입구의 벽이 찌꺼져 내려오는 등 주택의 스케일로는 곤란한 여러 기교가 도입된 형태는 오히려 어느식각에서 반의 왜감(확실히 이것은 취미와 관련된 왜감이다)만을 유인한다.



서부역사

PROJECT 자체가 한지역 및 한국가의 발전의 상징이 여건의 상징이어야 하며 그 지역 및 그 국가의 올바른 성장에 책임을 져야 할 의무와 권리를 건축가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원자연이란 거의 푸른하늘뿐인 MAN MADE SPACE 속에 세워진 이진물이 과연 잘못 성장하고 있는 주변지역을 올바르게 성장시킬 수 있는 규범적인 자세를 갖추고 있는지? 구조적인 기능적인 또한(이런 단어가 성립될 수 있는지 의문이지만) SPACE에 대한 대담한 시도들이 강력한 VISION에 까지 이르지 못한 채 단순한 테크닉으로 끝나버린 아쉬움이 넘쳐 있습니다. 역시 한 사회의 LEADER로서의 건축가 이기보다도 한 테크니션으로의 안이 속에 머무르고 있는 안타까움이 담겨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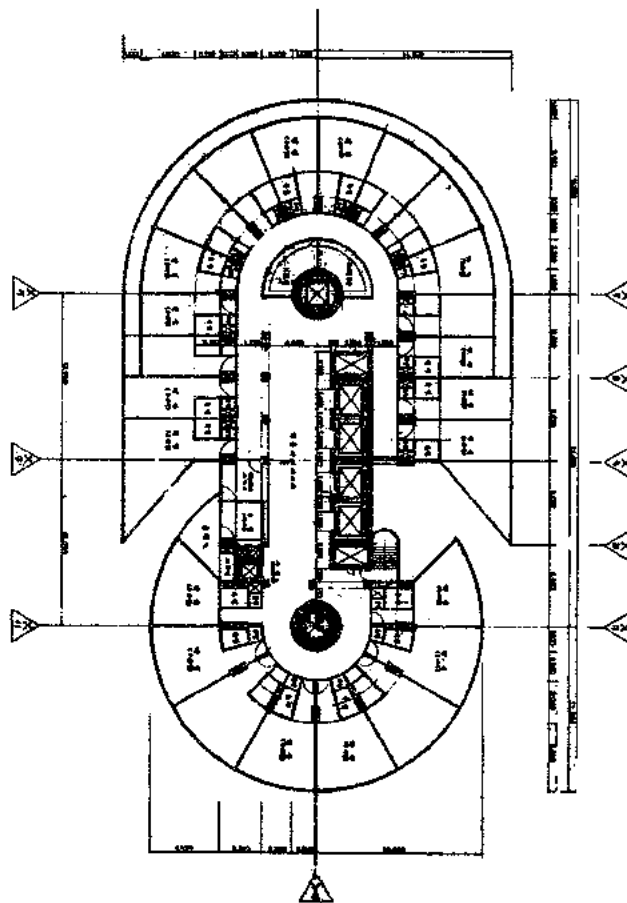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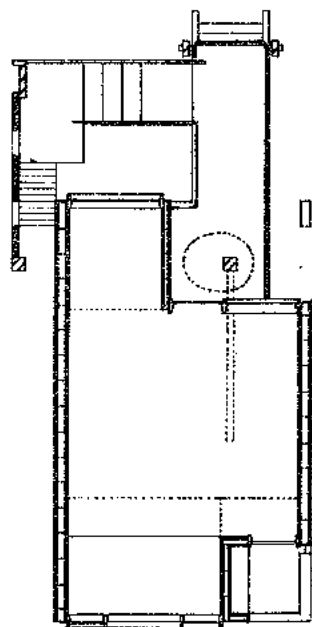
K. I. S. 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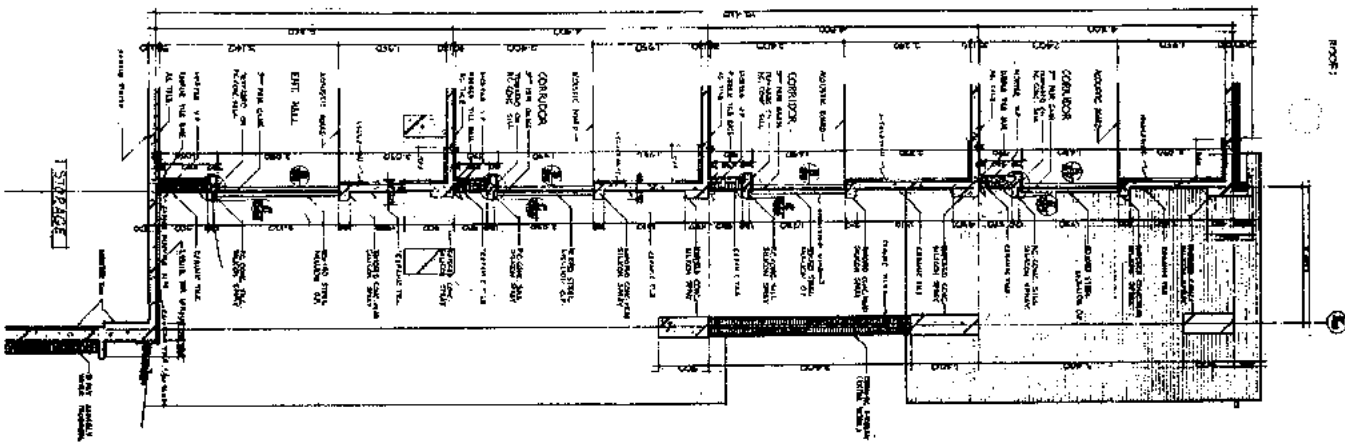
인간의 의지와 자연의 질서와의 유기적인 조화에 대한 강력한 VISION의 제시가 가능하였던 PROJECT를 사실에 기인하지 않는 논리로도 자연의 질서를 변경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탄용에 의하여 너무나 많은 부리를 강요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BACK GROUND 뒤로 밀려버린 자연과 편협한 의지의 외로운 인간사이의 길은 조화에 이르기에는 너무나 먼거리입니다. 본관 역시 스스로의 질서도 갖추지 못한채 몇개의 테크닉에 의하여 너무나 많은 부리와 낭비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김순련씨의 SUMMER HOUSE

인간의 즐거움과 자연의 아름다움과의 조화에 대하여 한국적인 언어로써 작가의 VISION을 성공적으로 제안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안이 불탄서 대사관에서의 제안이었다고 비난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는 전혀 새로운 상황하에서의 내면적인 공감을 통한 제안임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두개의 지나친 테크닉과 재료에의 무리한 요구 등의 결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 작품의 우수성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시공도면의 방법

윌리엄 호르닝

편찬위원회 역편

건축가는 대부분 도면으로 일을 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모두를 보면 도면의 기법이 완전하지 않다. 대부분의 사무실이 서로 다르고 피차 불합리하다. 첫수를 기입하는 것조차 합리적이지 아니다. 그러한 것들은 도면이 드디어는 집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많은 불합리와 차질을 가져왔다. 그러다보니 자신의 생각을 완벽히 도면으로 표현하는 일이 차츰 더 어려워지고 시공업자의 현장을 기준으로 한 도면 기법만이 성행하게 된 것이다. 건축가는 건축주는 물론 건물에 관계된 모든 사람을 설득하고 이끌어가야 하며 그것은 결국 시공도면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시공도면의 기본적인 기법을 몇가지 계속해서 실을 계획이다. 도면은 어디까지나 기호다. 그 기호를 모르고서는, 내지는 불합리한 기호를 가지고는 제대로의 것을 이룰 수가 물론 없는 것이다. 어디까지나 도면은 정확해야 한다. 정확하기 위해서는 조직적이어야하고 도면 상하의 질서가 분명해야 한다. 현장의 도면들을 보면 반 이상이 반복되거나 빠져 있다. 10장이면 되는 도면을 30장씩 그리기도 하면서도, 실은 실지의 것을 다 그리지도 않고 있는 실정이다. 모두들 자기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듯하나 아직 제대로의 도면을 그리고 있는 곳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외국 잡지나 상세도집을 보고 배우는 것은 도면의 기법이 아니고 상세다. 앞으로 우리가 다루려는 것은 상세가 아니고 도면의 기법이다. 이 점 착오없기 바란다. 어떤 생각 내지는 계획을 실지의 집으로 만들기 위해 가장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몇가지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이 시리즈의 의도이다. 몇 모르고 우습게 알지 말고 자세히 들여다 보고 공부하기 바란다.

이번의 것은 내화구조인 공공도서관이다. 평면은 기본적인 부분만 그려 있다. (줄 친 부분) 지하실 평면, 일층 평면, 이층 평면, 옥상 평면, 기준벽 단면, 창호상세, 종단면, 그리고 각 실 일람표.

- A-1 지하실 평면 (CELLAR PLAN)
- A-2 일층 평면 (FIRST FLOOR PLAN)
- A-3 이층 평면 (SECOND FLOOR PLAN)
- A-4 옥상 평면 (ROOF PLAN)
- A-5 개구부 단면도 1 (WALL SECTION)
- A-6 개구부 단면도 2 (WINDOW DETAILS)
- A-7 주단면도 (LONGITUDINAL SECTION)
- A-8 입면도 (FRONT ELEVATION)
- A-9 각 실 일람표 (ROOM SCHEDULES)

A-1

외부 콘크리트 기초벽은 12인치다. 기초벽 콘크리트 기둥은 숫자로 표시되어 있다. ③④ ⑤ 그리고 ⑩, 기둥 ③의 중심은 기준점 (0'-0'')인 기둥 ⑤에서 부터 39'-9'' 거리에 있다. 이런 체계의 기준이나 기초선의 첫수는 기둥을 박는 데에 일어나는 누적적인 실수를 막아 준다. 기준선의 첫수는 철골 기둥 13과 14에서도 역시 사용된다.

기둥 3과 4 사이의 콘크리트 기둥은 3''의 신다블럭으로 덧 붙여진다. 6''의 간격이 웅벽과 덧벽 사이에 생긴다. No.1 계단에서 웅벽은 2'' 벽돌로 처리되었다. 남자 변소에는 웅벽과 덧벽 사이에 파이프 공간이 마련되었다. 위생 파이프를 위한 간격은 간부실과 변소에도 역시 있게 된다. 간벽은 4'' 신다블럭이며 book lift의 벽은 6인치다. 8인치벽이 No.1이라 표기된 계단실에 보인다. 표시된 모든 방은 번호가 매겨졌다. 각 실 일람표에 바닥, 벽 천정의 마감재료가 표시된다.

창고에는 마이너스치수(-11'-8'')가 보인다. 이것은 마감된 지하실 바닥이 마감된 일층 바닥에서 11'-8''의 거리에 있다는 표시다.

그러므로 마감된 일층 바닥은 ±0'-0''가 된다. 변소 문 외의 모든 문이 번호로 표기되었다. 첫번째 번호는 평면에 있는 문의 위치를, 다음의 문자는 문의 형을, 마지막 번호는 문의 크기를 표시한다. 평면에서의 문의 식별 방법은 A-9에서 보여준다.

A-2

측면 벽은 8''며 진면 벽은 12''이다. 계단실의 벽 1'-5'' 공간쌓기다. 공간쌓기의 3'' 간격은 습기와 열, 찬 기운등으로 부터 내벽을 보호한다. 측면 벽의 덧벽도 동일한 막이 역할을 하나 하중을 받지는 않는다.

토비 벽은 대리석 붙이기(marble veneer)이다. 간벽은 4'' 신다블럭이다. book lift의 벽은 6''의 속이 찬 신다블럭이다.

기둥 3, 4, 5, 10은 지하실 평면과 연속되어 있다. 기둥 3의 중심선의 39'-9'' 첫수도 0'-0''의 기준점으로 부터다.

기둥 3, 4, 5, 10은 지하 평면의 철근 콘크리트 기둥으로 받쳐진 철골 기둥이다. 철근콘크리트 기둥 끝과 철골 기둥이 시작되는 정확한 지점은 구조도 S-5의 철골 일람표에 주어 져 있다. 콘크리트 기둥 뒤편에는 철골이 용접되도록 철판이 앵커되어 있다. 전면의 벽돌 벽은 지하실 기초벽과 일치되어 있지 않은 것에 주의해야 한다. 그 벽들은 도면 S-2에 보이는 바와 같이 철골 빔에 지지되어 있다.

A-3

공간 쌓기인 계단실 외에 모든 외벽은 8'' 두께의 벽돌이다. 벽돌벽은 2'' 공간을 두고, 3'' 신다블럭으로 덧벽 되었다. 간벽은 6''의 속이 찬 고강도블럭(solid block)인 book lift 외에는 모두 8'' 벽돌벽이 계단실과 작업실 사이에 있다. 변소와 사무실의 H. C. 표시는 매 단 천정(hung ceiling)(마감된 이층 바닥으로부터 (9'-0'')을 표시한다. 기둥 3, 4, 5, 10은 일층과 지하실 평면과 연속되었고 9, 13의 내부 기둥은 0'-0''의 기준점으로부터 위치 되었다. 14기둥이 일층 평면의 14기둥과 일치되어 있지 않은 것을 주의하라. 이 평면 기둥은 돌출된 철골 빔에 의해서 지지되었다.(철골 도면을 보라.)

canopy slag roof는 낙수구(roof drain)으로 향하는 지붕의 경사를 보인다.

모든 창문(window masonry opening)은 이층 원으로 번호되었다. 계단실 No.1, 작업실, 변소 그리고 사무실 가로지르는 절단면선 A를 주의하라. 그 절단면선은 지하실, 일층 평면에도 역시 보인다.

A-4

이 부분적 평면은 옥상을 표시한 것으로 낙수구(roof drain)으로 향하는 옥상의 물매가 표시되었다. 내려가는 계단 저 쪽으로 옥상으로 가는 문 R-1 이 보이며 그 위에 계단실 지붕을 여웠다. 점선으로 표시된, 전면과 측면의 난간벽(parapet)은 석회석 난간두껍(limestone coping)을 씌웠다. No.1 계단의 벽은 벽돌 공간 쌓기다. 「TOP OF ROOF SLAB EL. +25'-11"」라고 표시된 것은 마감된 일층바닥 또는 입면의 기준점 (0'-0")에서부터 옥상 바닥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평지분은 최고 지점 26'-9"와 최저 지점 26'-1"의 차 8"를 완경사가 되게 채워져 있다. 난간벽(parapet)에 있는 선은 지붕과 만나는 평고대(cant strip)를 표시한 선으로 벽과 roof flashing 과 roof felt 를 위한 경사로 시멘트몰주임(cement grout serving)을 하여 경사지게 하였다. 철제 사다리다리(iron ladder)는 계단실 지붕으로 가기 위한 것이다. 점선으로 보이는 계단 위의 장방향 외각선은 지붕의 채광창의 위치를 표시한 것이다. 기둥 5와 10은 철골 빔으로 지지되는 계단실 지붕에서 밖으로 돌출했다.

벽단면은 일층의 문 116과 이층의 창문 218을 절단한 것이다. 단면은 웅벽의 기초에서부터 No.1 계단실의 지붕까지이다. 12"의 콘크리트 웅벽은 2"의 brick soap 가 덧벽되었다. soap 나 반장벽돌은 중심거리 2'-0"마다 합석 앵커에 의해 벽에 정착되었다. 모든 층의 바닥은 4"의 스톤 콘크리트를 친 위에 3"의 경량 신다콘크리트를 채웠다. 계단실지붕의 신다콘크리트는 8 $\frac{3}{4}$ "다. 지하실, 일층, 이층 바닥은 1" 두께의 테라조 마감을 하였다.

문의 웃인방은 두개의 채널과 두개의 앵글로 고정되어 있다. 이층 바닥의 스펀드럴빔, 계단실 지붕의 빔은 fabric flashing으로 보호되었다. 이층 창문의 웃인방은 세개의 철골 앵글로 되어 있으며 첫수는 인방 일괄표에 나와 있다. 콘크리트 웅벽의 윗벽은 15"의 공간 쌓기며 공간은 3"이다.

도면의 첫수는 마감된 바닥에서 소요의 벽돌층수물 갖춘 마감된 바닥까지의 거리이다.

A-6

창문 상세는 일층 전면 벽의 101번 창문 상세다. 이것은 102와 103 창문의 기 준형이다. 상세는 밑홈대(sill), 선틀(jamb), 수평 멀리온(horizontal mullion), 윗홈대(head)의 부분으로 되어 있다.

밑홈대(sill)의 단면에는 12" 벽돌벽 속에 6 $\frac{1}{2}$ "의 화강암 베이스(granite base)가 전물 전면에 설치된 것이 보인다. 화강암 베이스는 벽돌벽 외부면에서 1 $\frac{1}{2}$ " 돌출했다. 나무 창선반(wood stool)은 나무블럭으로 고정시켰고 벽돌벽과 방열기 위의 공간을 덮었다. 화강암 베이스 위에 보이는 벽돌은 입면으로 보이는 것이며(단면이 아니다) 창문 문틀(window masonry opening)의 특면을 표시하는 것이다.

선틀(jamb) 단면에는 3"의 신다블럭 덧벽을 가진 12"의 벽돌벽이 보인다. 덧벽은 3/4"의 회반죽 마감위에 높이 7'-6 $\frac{1}{2}$ "의 고무판벽(rubber wall)으로 되어 있다. 이 단면에서 화강암 베이스의 위에서 보이는 면은 겹으로 표현했다.

수평 멀리온(horizontal mullion) 상세에서는 알루미늄 창틀이 돌출된 것이 보인다. 윗홈대 단면에서는 철골 위에 있는 1"×3/16"의 철골 달대(steel straps)의 위치에 알루미늄 창틀이 보인다. (상세가 아니다) 4'-0"의 중심간격으로 철골 스타브 밑에 매달린 1 $\frac{1}{2}$ "의 크로스 채널의 배단 천정(suspended ceiling)은 크로스 채널과 직각으로 향한 3/4"의 채널을 지지한다. 철망은 회반죽 천정을 받고 있는 작은 채널에 고정시켰다.

A-7

주단면은 평면의 AA선을 절단한 것으로 건물의 내부를 나타낸다. 마감된 일층 바닥 입면의 기준점 0'-0"으로 표시했다. 이 선 이하의 바닥은 지하실 바닥이 -11'-8"로 표시된 것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치수로 표시했다. 기준점 위의 치수는 플러스 치수이며 그렇게 표시했다.

콘크리트 바닥은 여러가지 치수의 철골 빌라 채널로 된 각 층의 바닥을 나타내고 있다. 빌라 채널은 2" 콘크리트로 내화성을 갖게 했다. 빌라의 간격과 크기는 철골 구조에 나와 있다. 1'-2"의 벽돌 공간 쌓기가 화강암 고막이(granite, base)의 윗면에서부터 계단실지붕 위까지 연속된 것에 주의하라. 철근 콘크리트 기초와 기둥 3, 4, 5는 점선으로 표시했다. 철골 일람표와 철근 콘크리트 기둥 일람표(S-5)에 철근 콘크리트 기둥의 기초와 윗면의 마이너스 치수가 보인다.

A-8

Borough Park Branch Library의 부분 입면도에 나타난 외벽은 벽돌이다. 전면의 자재 문은 알루미늄 속에 매끈한 유리(polished tempered glass)를 끼운 것이다. 문틀(masonry opening) 양측에 있는 기둥은 화강암 갈기(polished granite)한 것이다. 입면의 고막이(base)는 화강암 갈기한 것으로 마감된 바닥 위로 2'-6 1/2" 올라와 있다.

이층 창문에서 창문의 가운데 부분은 알루미늄에 붙박이 유리판으로 설계 되었다. 이층 창문의 문틀(masonry opening)은 석회석으로 장식했다.

입면에서는 마감된 일층 바닥에 있는 입면의 기준점(0'-0")이 높이를 나타내는 데에 중요한 치수가 된다. 석회석 난간 두껍기(lime stone) 바로 밑에 있는 벽돌은 벽면보다 1" 위로 물려 세워 쌓기로 하였다. 그 목적은 음영의 선이 지게 하드로써 지붕 선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알루미늄 기 계양대는 벽면에서 연장시켜 부분적으로 설치한 석회석받침(limestone bracket)에다 설치했다.

마감된 바닥과 관계된 창문 높이의 치수에 주의하라. 콘크리트 기둥 5, 10, 14의 기초는 지하실 바닥 아래쪽에 보인다. 기둥 기초의 크기는 철근 콘크리트 기둥과 기초 일람표에 나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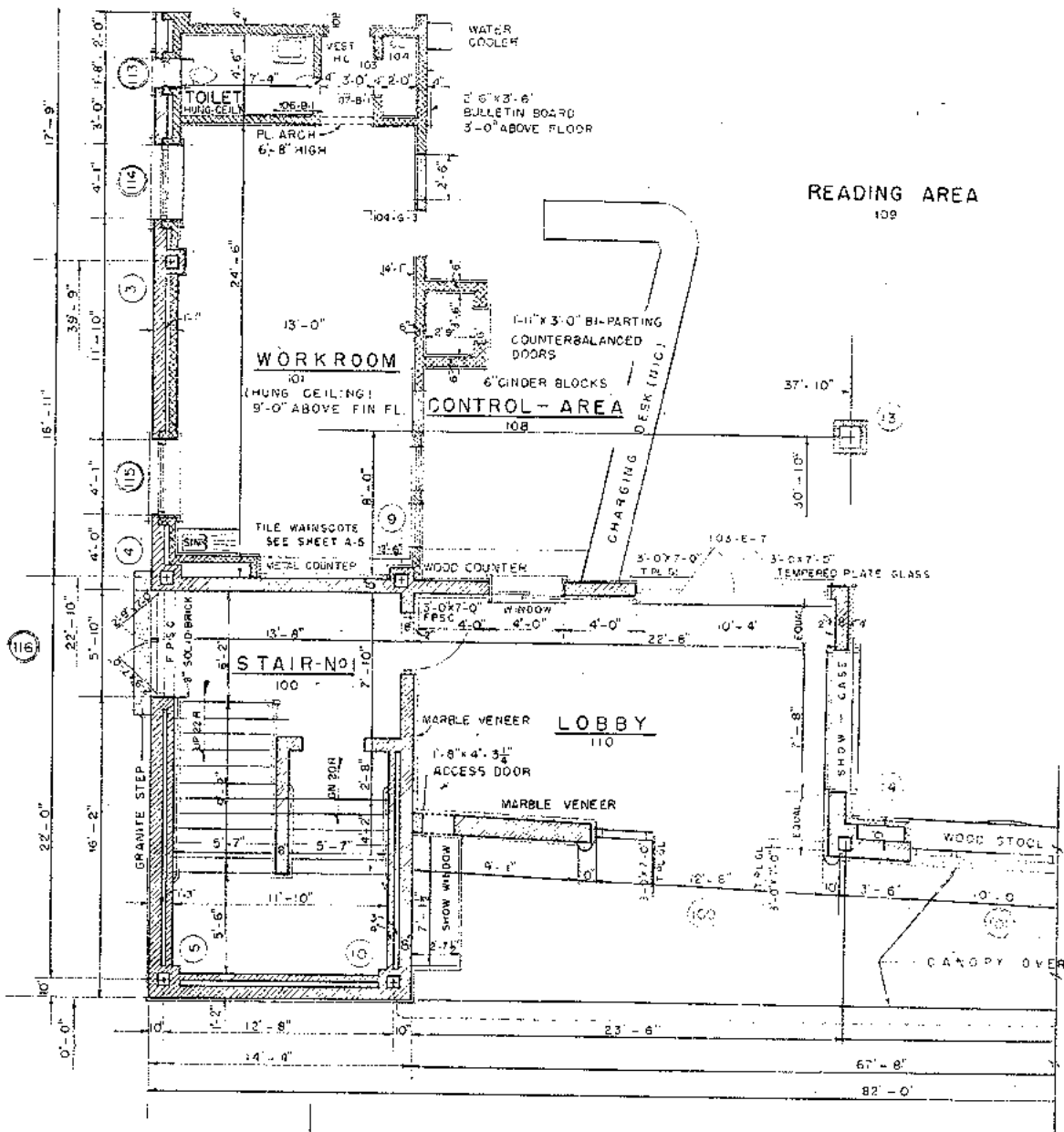
A-9

각 실 일람표는 흔히 평면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을 추가로 시공자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A-9는 본 도서관 건물의 지하실 평면의 기본적 일람표이다.

각 실과 장(棚)들은 번호와 이름으로 목록을 만들고 바닥 마감재료와 걸레받이의 높이와 재료를 명시하였다. 정두리가 있는 방은 일람표에 그것의 재료와 높이를 명시하였다. 벽과 천정의 마감재 역시 일람표에 특기하였다. 메단 천정(suspended ceiling)이 요구될 때는 바닥에서부터 그것까지의 높이를 일람표에 표시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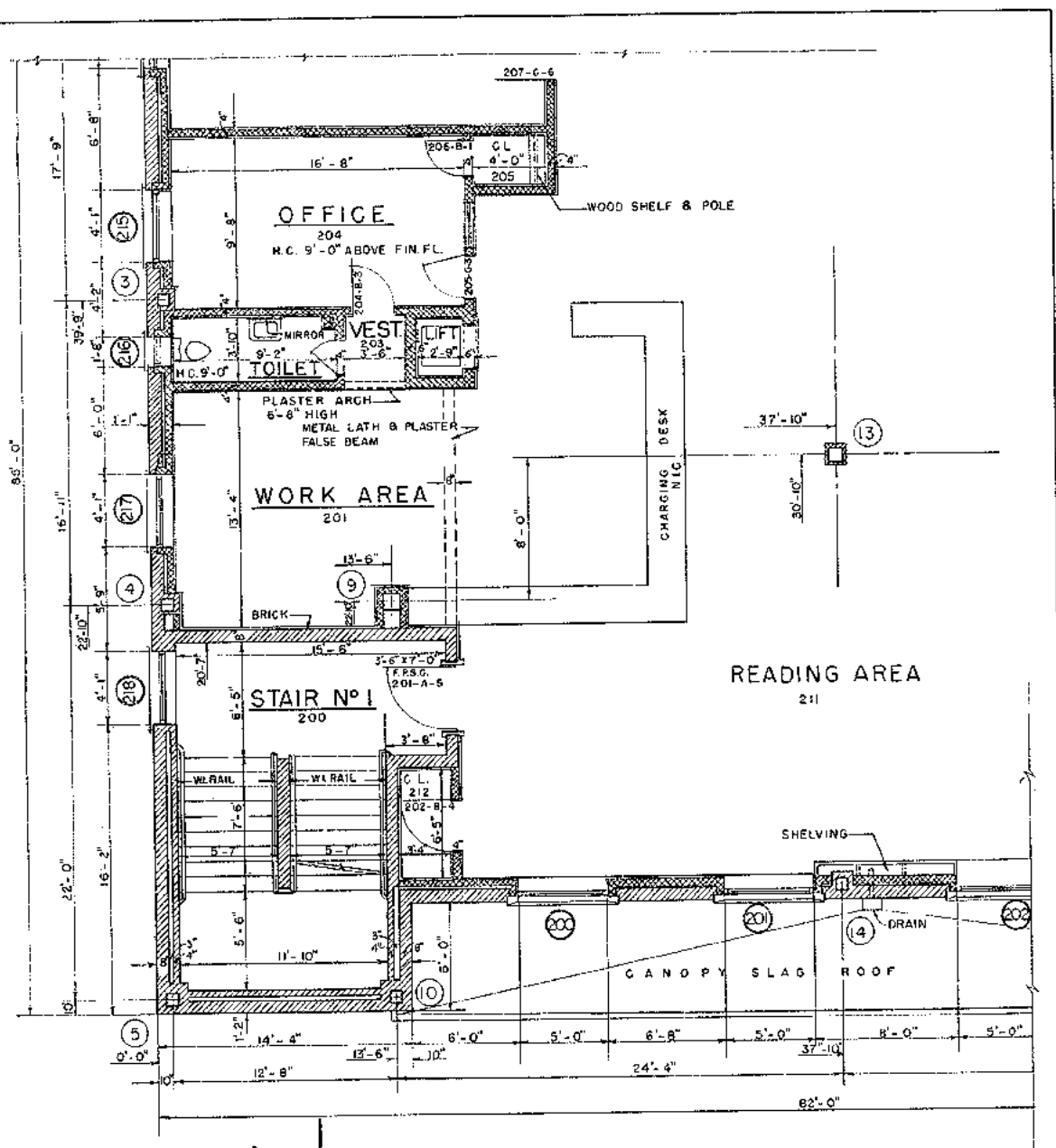
지하실 평면 일람표인 A-9에서는 1번 로비에 주의하라, 그 곳의 바닥 마감과 걸레받이는 아스팔트 타일이며, 걸레받이의 높이는 4"다. 벽에는 정두리가 없고 코르크와 회반죽으로 마감되었다. 천정은 메단 천정(hung ceiling)으로 아코스틱 타일 마감이며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9'-4"이다. 문 아래에는 문지방(saddle)이 필요없다.

본 도서관 건물에 사용된 여러가지 문의 형은 A-9에 표시하였다. 문은 문자 A~H로 식별된다. 평면상의 문의 식별 방법은 일층에 있는 문 번호 103번을 예로 들었다. 만약 문 번호가 216이었다면 이층의 16번째 문을 말하는 것이다. 문자 B는 문의 모양과 재료를 표시하며 번호 7은 작은 일람표에 표시되어 있는 문의 크기이다.



FIRST FLOOR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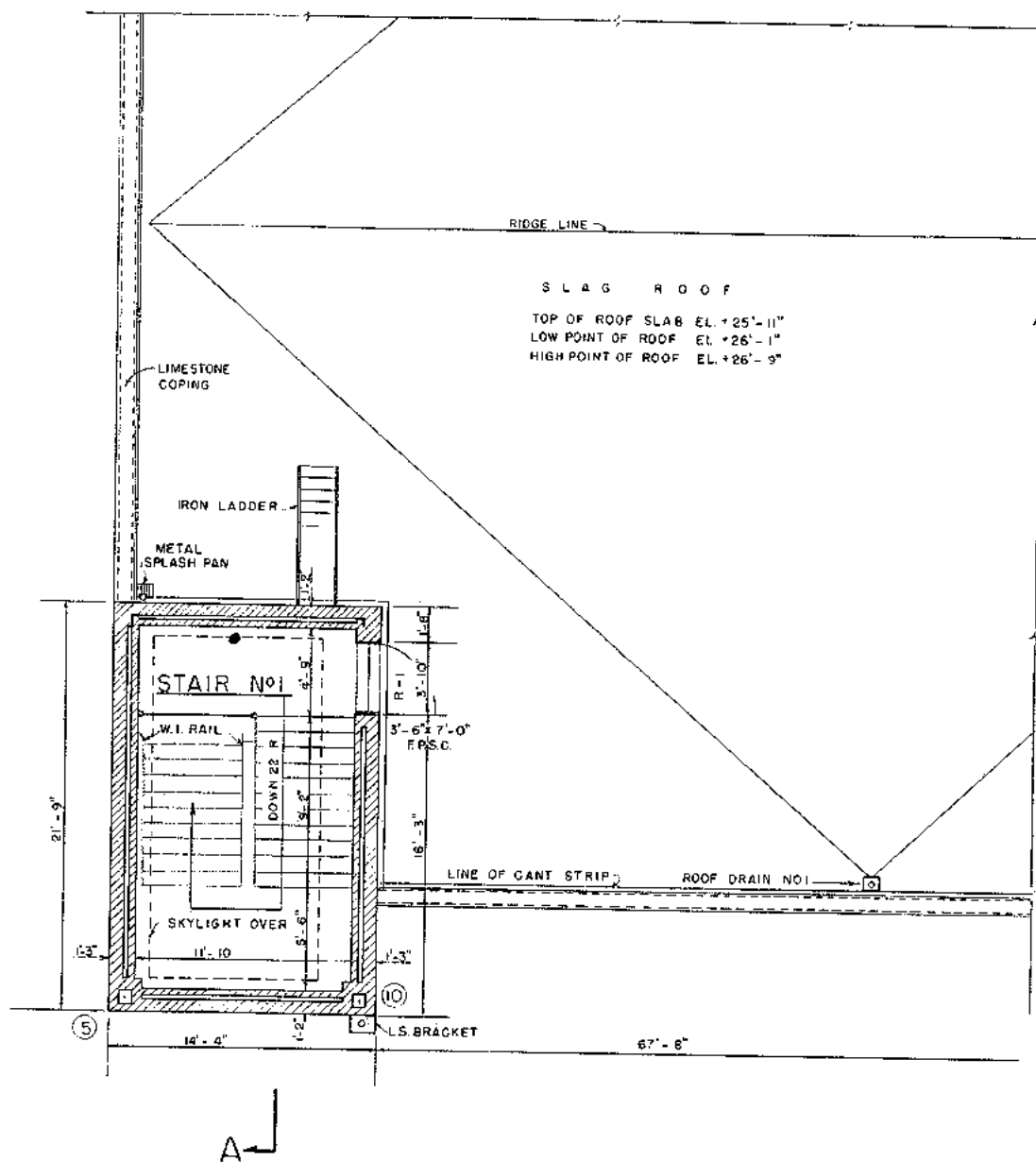
SCALE $\frac{1}{2}" = 1'-0"$



SECOND FLOOR PLAN

SCALE: $\frac{1}{4}" =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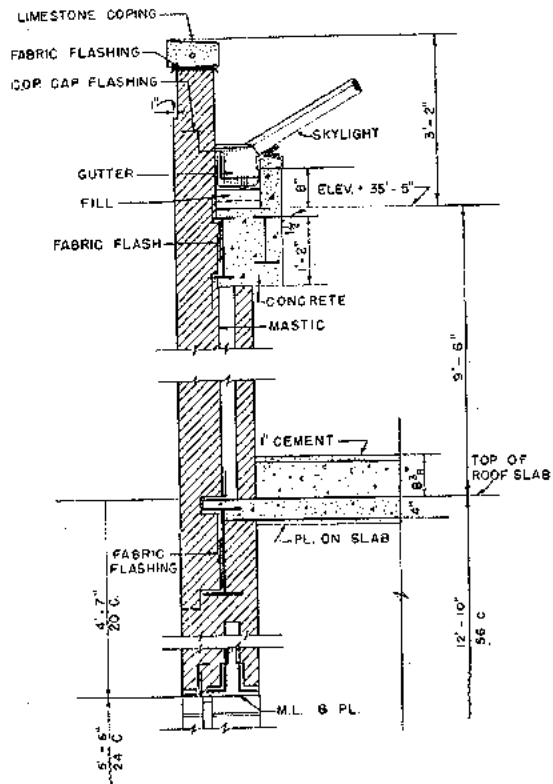
A-3



ROOF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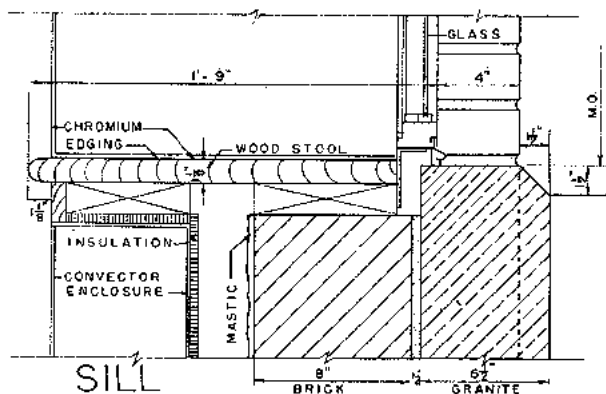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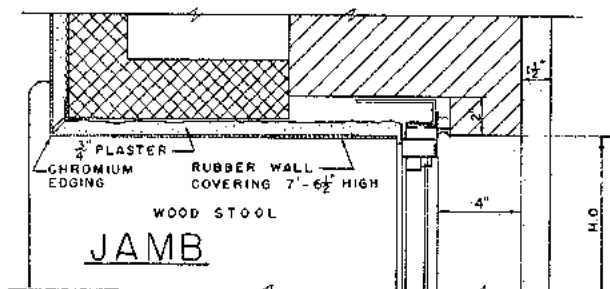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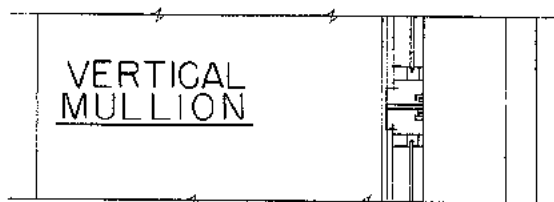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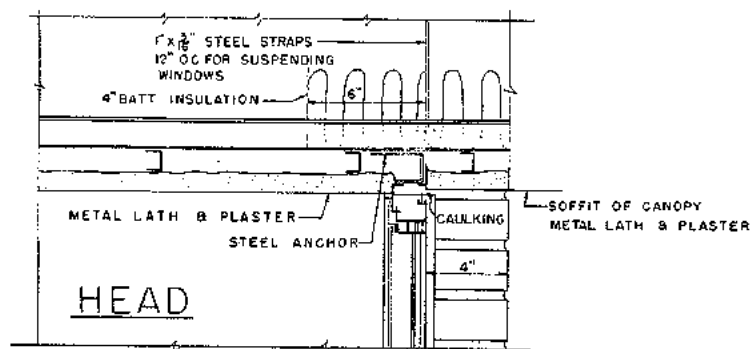
SCALE $\frac{1}{4}" = 1'-0"$

A-4



SCALE $\frac{1}{2}'' = 1' -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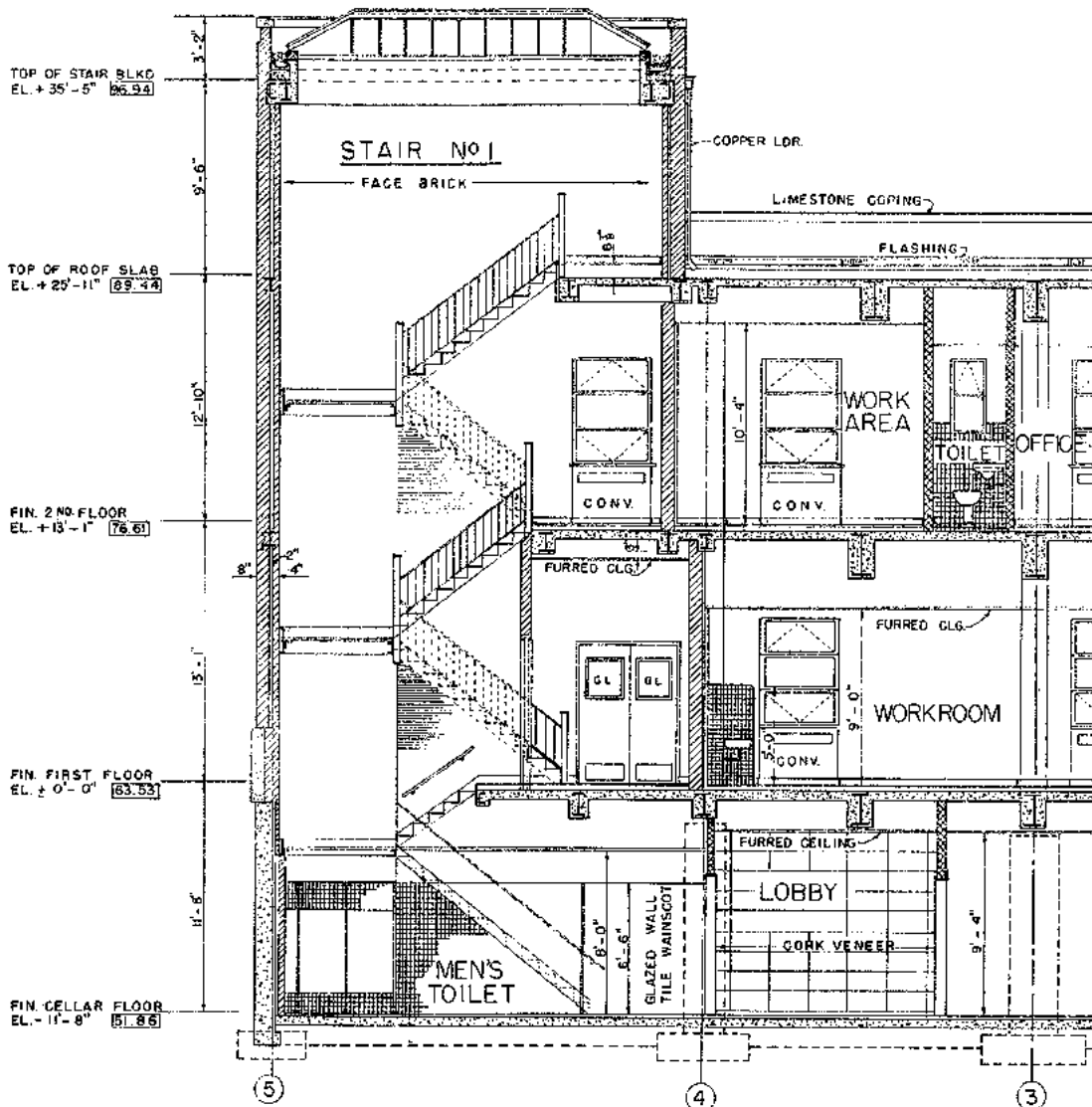
60



SECTION THRU OPNGS

101, 102, 103 SCALE: 3" =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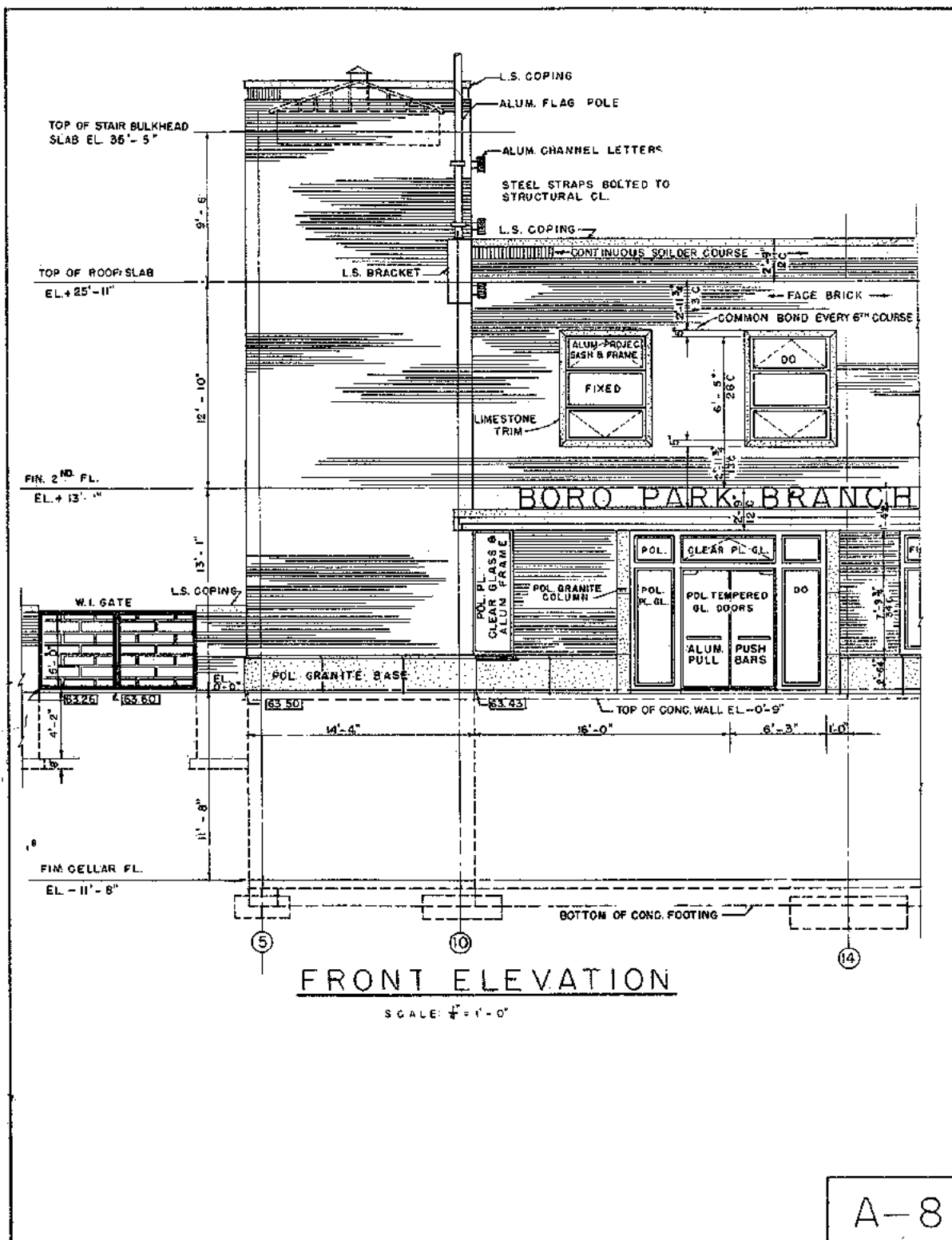
A-6



LONGITUDINAL SECTION "A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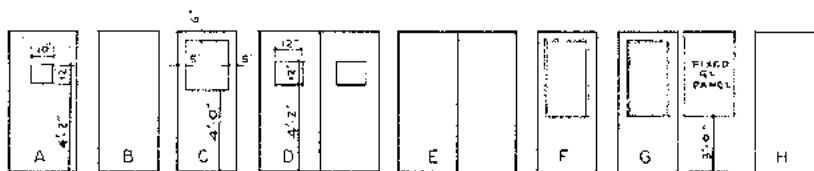
SCALE $\frac{1}{4}" = 1'-0"$

A-7



CELLAR SCHEDULE

NO.	SPACE	FLOOR	BASE		WAINSCOT		WALL	CEILING		SADDLE	REMARKS
			MAT'L	HGHT.	MAT'L	HGHT.		MAT'L	HGHT.		
1	LOBBY	A.T.	A.T.	4"	—	—	CORK & PL	HC-AC.T.	9'-4"	NONE	PAINT WALL
2	LECTURE RM.	A.T.	A.T.	4"	RUBER	4'-0"	PL & FABRIC	HC-AC.T.	9'-4"	"	PLATFORM-WOOD & PLASTER WALLS AC.T. CEILING
3	STORAGE CL.	A.T.	A.T.	4"	—	—	PL. PAINTED	PAINT	SLAB	"	
4	PLATFORM	MAPLE	WOOD	4"	—	—	"	HC-ACPL	9'-4"	"	
5	STACK RM.	A.T.	A.T.	4"	—	—	BLKS. PAINT	PAINT	SLAB	"	
6	BOOK LIFT	CEM.	—	—	—	—	"	"	"	"	
7	COAT RM.	A.T.	A.T.	4"	—	—	PL. PAINTED	HC-PL	8'-0"	"	
8	BOILER RM.	CEM.	CEM.	4"	—	—	CONC. PAINT	PAINT	SLAB	CEM.	
9	CUSTODIAN'S RM.	A.T.	A.T.	4"	—	—	PL. PAINTED	HC-PL	8'-0"	NONE	
10	METER RM.	CEM.	CEM.	4"	—	—	BLKS. PAINT	PAINT	SLAB	CEM.	
11	LOCKER RM.	A.T.	A.T.	4"	—	—	PL. PAINTED	HC-PL	8'-0"	NONE	
12	LAVATORY	CER. T.	GL. T.	6"	GL. T.	6'-6"	"	HC-PL	8'-0"	MARBLE	
13	TOILET	"	"	6"	"	"	"	HC-PL	8'-0"	"	
14	STAFF ROOM	A.T.	A.T.	4"	—	—	PL. PAINTED	PAINT	SLAB	NONE	
15	JANITOR'S CL.	CER. T.	GL. T.	6"	GL. T.	4'-0"	"	"	"	MARBLE	
16	CLOSET	A.T.	A.T.	4"	—	—	"	"	"	NONE	
17	TOILET	CER. T.	GL. T.	6"	GL. T.	6'-6"	"	HC-PL	8'-0"	MARBLE	
18	WOMEN'S TOILET	"	"	6"	"	"	"	"	"	"	
19	MEN'S TOILET	"	"	6"	"	"	"	"	"	"	
20	STAIR NO. 1	TERR.	—	—	—	—	FACE BRICK	PL. SOFFIT	FLUSH MRB.		
21	" NO. 2	CEM.	STEEL	—	—	—	PL. PAINTED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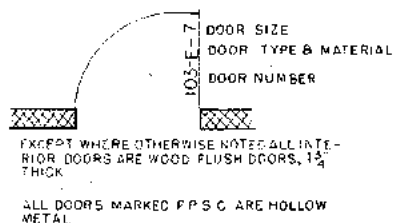


NOTE: DOORS NOS. 2-3-4-7-12-14 IN CELLAR SHALL BE UNDERCUT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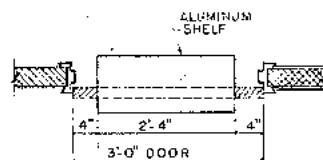
DOOR TYPES

SIZE NO.	DOOR SIZE
1	2'-0" x 7'-0"
2	2'-4" x 7'-0"
3	2'-6" x 7'-0"
4	3'-0" x 7'-0"
5	3'-6" x 7'-0"
6	2'-2'-6" x 7'-0"
7	2'-3'-0" x 7'-0"

INTERIOR DOOR SIZE INDICATIONS



KEY TO IDENTIFICATION OF DOORS ON PLAN



DETAIL OF DOOR "F" (COAT ROOM)

A-9

A-1

1. 콘크리트 기둥 4와 5사이의 중심거리.
2. 콘크리트 기둥 3의 길이(표준 첫수와의 차이)
3. 웅벽의 두께와 재료
4. 강외실의 외벽과 덧벽 사이의 6"공간을 제한하라.
5. 간벽의 재료와 두께.
6. 철골기둥 8과 13 사이의 중심거리.
7. 기준점 0'-0"으로부터 철골기둥 14까지의 거리.
8. 쌍의실의 첫수.
9. 마감된 지하실 바닥의 마이너스 첫수.
10. 쌍의실 문 3-F-4의 의미.
 1. 콘크리트 기둥 3의 첫수(길이, 폭)
 2. 4번 콘크리트 기둥 기초의 크기.
 3. 10번 콘크리트 기둥 기초의 마이너스 첫수.
 4. 5번 콘크리트 기둥 윗면의 마이너스 첫수.
 5. 13번 철골 기둥 기초의 치수.
 6. 8번 철골 기둥 기초의 마이너스 치수.

A-2

1. 9번 기둥과 기준점 사이의 중심거리
2. 외벽의 문과 창문틀(window masonry opening)의 번호.
3. 작업실의 내부 첫수.
4. 114번 창문의 물결 폭.
5. 2층까지 올라가는 총계 수.
6. 전면 벽의 두께와 재료.
7. 간벽의 두께와 재료.
8. 공간 쌓기의 두께.
9. 전면 현관문의 첫수.
10. 로비의 show case의 문결 폭.
 1. 관리실(control area)에서 작업실로 가는 문의 번호, 형, 크기.
 2. 전면 벽돌벽을 지지하는 철골빔의 크기.
 3. 철골기둥 4의 크기.
 4. 철골기둥 10의 하부에서 기준점 0'-0"까지의 거리.
 5. 철골기둥 13의 크기.
 6. 철골기둥 10을 지지하는 철근 콘크리트 기둥의 크기.

A-3

1. 사무실의 내부 치수
2. 217번 창문의 문결 폭(masonry opening)
3. 계단실의 폭.
4. 변소와 사무실의 천정 높이.

5. 전면 공간 쌓기의 두께.
6. 기둥 5와 10 사이의 중심거리.
7. 전면 공간 쌓기의 외부에서부터 No. 1 계단의 8" 벽까지의 거리.
8. 플로젤 212의 첫수.
9. 기둥 9의 첫수를 도면액 기입하라.
10. 204번 문의 크기.

1. 사무실과 작업장중 천정 높이가 더 높은 곳.
2. 218번 창문의 높이.
3. 이 평면에서 4번과 9번 기둥이 지지하는 보의 크기.
4. 철골기둥 13의 크기.
5. 기둥 13과 14 사이의 철골빔의 크기
6. 창문 200의 철골 옷인방의 크기.

A-4

1. 계단실 지붕의 총 길이와 폭.
2. 옥상 바닥에서 2층까지의 총계수.
3. 기준점 0'-0"에서부터 옥상 바닥 위까지 높이.
4. 지붕 메꿈(roof fill)의 최대 두께.
5. 지붕 메꿈(roof fill)의 최소 두께.
6. 공간 쌓기의 두께.
7. 옥상으로 가는 문의 치수.
8. 문자 F.P.S.C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9. 문 R-1의 폭.
10. 석회석 받침(L.S. bracket)의 목적.
 1. 옥상 바닥의 두께.
 2. 기둥 5의 크기.
 3. 옥상 바닥 윗면에서 계단실 지붕 윗면까지의 거리.
 4. 기둥 5에서 옥상 바닥 윗면까지의 거리
 5. 계단실 상부에 있어서 바닥위의 메꿈(fill)의 두께.
 6. 물받이(splash pan)의 목적.

A-5

1. 웅벽의 두께와 재료.
2. 모든 바닥 두께.
3. 바닥 위 경량 콘크리트 채우기의 두께.
4. 출입문의 높이.
5. 공간 쌓기의 두께와 재료.
6. 지하실 덧벽의 형.
7. 창문 밑홈대(window sill)의 재료.
8. 이중 바닥의 마감 재료.
9. 벽돌을 통해 스며나오는 물과 습기를 방지하기 위해 스펀드럴빔은 어떻게 처리하나?
10. 문자 M.L과 P.L.을 설명하라.

1. 현관문 위의 채널의 횡수물 기입하라.
2. 이중 스펀드럴빔의 횡수.
3. 외벽면에서 스펀드럴빔까지의 중심 거리.
4. 계단실 지붕 근처에 보이는 두개의 빔 사이의 거리.
5. 이 두 빔의 횡수물 기입하라.
6. 화강암 더딤돌(granite step)의 횡수를 기입하라.

A-6

1. 나무 창선반(wood stool)의 두께를 기입하라.
2. 벽돌벽의 안쪽은 무엇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적당한가?
3. 화강암 베이스의 폭.
4. 벽돌벽의 외부에서 화강암 베이스는 얼마나 돌출했나?
5. 알미늄 창문틀은 윗홈대(head)에서 어떻게 지지되나?
6. 전면 캐노피 천정의 마감재.

1. 창문의 문꼴 폭(masonry opening)을 기입하라.
2. 마감된 이중 바닥 윗면에서 화강암 베이스 윗면까지의 거리.
3. 선틀(jamb) 단면에서, 벽돌벽의 안쪽부터 덧벽까지의 거리.
4. 화강암 베이스의 윗면에서 창문의 윗면까지의 정확한 벽돌의 총 수.

A-7

1. 마감된 이중 바닥에서 마감된 이중 바닥까지의 거리.
2. 공간 쌓기의 두께.
3. 난간두껍(coping)에서 계단실 지붕 윗면까지의 거리.
4. 작업장의 천정 높이.
5. 지하실 로비의 천정 높이.
6. 지하실 로비의 벽 마감재료.
7. 계단 위의 바닥 채우기(floor fill)의 두께.
8. 간벽의 재료.
9. 도면에 있는 창문의 형.
10. 지하실의 glazed tile벽의 높이.

1. 철골빔의 윗면에서 콘크리트 바닥까지의 거리.
2. 4번 철근 콘크리트기둥 기초 아래의 마이너스 횡수.
3. 3번 철근 콘크리트기둥 윗면의 마이너스 횡수.

4. 5번 철근 콘크리트기둥 기초의 두께.
5. 로비 천정의 철골빔의 크기.
6. 계단실 지붕의 채널 크기.

A-8

1. 기준점 0'-0"에서 이중 바닥까지의 거리.
2. 전면 현관문의 문꼴 폭(masonry opening)
3. 이중 창문의 높이.
4. 이중 바닥의 화강암 프락이(granite base)의 높이.
5. 이중 창문 주위의 재료.
6. 옥상 난간벽(parapet)의 높이.
7. 이중 창문의 개로와 형.
8. 기준점 0'-0"에서부터 그 아래에 있는 응벽의 윗면까지의 거리.
9. 화강암 고막이(granite base) 윗면에서 캐노피 아랫면까지의 벽돌층 수.
10. 캐노피 처마फल(canopy fascia) 높이.

1. 이중 창문의 문꼴 폭(masonry opening)
2. 14번 철근 콘크리트기둥 기초 아랫면의 마이너스 횡수.
3. 10번 철근 콘크리트기둥 기초의 횡수.
4. 계단실 전면 벽은 이중 벽면에서 얼마나 돌출했나?
5. 화강암 고막이(granite base)는 벽면에서 얼마나 돌출했나?
6. 10번 철근 콘크리트기둥 기초 윗면의 마이너스 횡수.

A-9

1. 보일러실의 바닥 마감재료.
2. 창고의 바닥과 질테받이의 마감재.
3. 창고의 질테받이의 높이.
4. 13번 실의 이름을 쓰고 벽의 마감재료를 정하다.
5. 문 아래에 대리석 문지방(marble saddle)을 사용한 방 이름 둘을 써라.
6. 판터인 클로젯(Janitor's closet)의 장두리의 재료와 높이.
7. No.1 계단의 바닥 마감재료?
8. No.1 계단의 벽 마감재료.

1. 103번 문이 있는 방은?
2. 104-G-3 문의 크기.
3. 206-B-1 문이 있는 방.
4. F.D.S.C.의 뜻.
5. 104-G-3 문은 왜 1"를 절단했는가?
6. F는 어떤 형의 문인가?

협회기사

▲ 제 6 회 정기이사회

(1970. 2. 25 본회의회의실)

出席 강명구 회장, 김진천, 강봉진, 한창진(이사),
서울시지부장, 함정호, 성일영.

討 議 事 項

1. 편찬위원회 개최에 대한 보고
2. 직원채용의 건
3. 건축사업 개정안 심의.
결의—무수정 통과 건설부에 건의하도록 결의
4. 보수기준 개정안 심의
결의—무수정 원안대로 건설부에 일단 건의하기로 함.

▲ 제 7 회 정기이사회

(1970. 3. II 본회의회의실)

出席 강명구 회장, 강봉진, 김진천, 한창진(이사),
서울지부장, 구윤희감사.

討 議 事 項

1. 3월 실행예산 승인 및 결산.
결의—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의.
2. 1969년도 결산총회일자 결정.
3월 28일로 예정하고, 추후개조정키로 함.
3. 본부 감사 일정
3월 16일 17일 양일간에 실시키로 함.
4. 사무실 보증금 임대료 인상의 건
보증금은 인상하여야 할 것임(추후결정)
5. 보수기준 개정안 심의.
원안대로 일단 건설부에 제출하기로 함.
6. 68년도 69년도 미수금 징수의 건
6개월 이상 미납회비자의 명단을 각 시도 지부에
서 보고 받아 처리하도록 함.
7. 회원명부 인쇄
서형윤에게 위탁, 3,000부 인수하기로 함
8. 과세 소득을 인하
국세청, 재무부 장관에게 건의서를 제출하기로 함
9. 입회비 통일

각 시도 지부에 공문사달하여 입회비는 10만원으로 통일하여 초과징수하지 않도록 지시할 것.

10. 경남지부 감사 결과 조치.

일단 경고 통보하고 기일내에 시행처 않을 시는
도서등록을 부산으로 위임할 것을 공문으로 경고
통지할 것.

▲ 제 8 회 임시이사회

(1970. 3. 18 본회의회의실)

出席 강명구 회장, 김진천, 강봉진(이사)

討 議 事 項

1. 총회일자확정
기획위원회의 소집 3월 23일
지부장회의 " 3월 24일
총 회 " 4월 3일
2. 미수금처리
회비 미납자에 대하여 6개월 이상 체납자는 3월말
까지 납부하도록 경고장을 발송하고 기일내에 납
부하지 않을 시는 징계 처분하도록 함.
3. 도서등록비 통일
일단 지부장 회의에서 다시 지시통일 하도록 함.
4. 건축가협회 경기 위원회 초안 위원 추천.
회장에게 일임하기로 함.
5. 경남지부 문제
3월 25일까지 변상 납부토록 하고 입회비는 10만
원 이상 받지 않도록 공문 발송할 것.
6. 사무처장 채용의 건.
결의—박수돈을 사무처장으로 채용할 것을 결의

▲ 제 9 회 정기이사회

(1970. 3. 25 본회의회의실)

出席 강명구 회장, 김진천, 한창진, 이봉로(이사),
서울시지부장

討 議 事 項

1. 1969년도 결산
결의—지부장회의안(案)대로 통과
2. 예비비, 지출승인(회직금 추가지출분)

협회기사 · 회원동정

결의—회직금 초과 지출액을 예비비 항목에서 유용결산카보함.

충남지부 수습대책회의비 예비비에서 지출

3. 출판 인쇄 계약의 전

결의—3월 30일 지명 경쟁입찰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 사무처에서 처리토록 함.

4. 전생규 가치분 신청 취하서 접수

결의—고문 변호사에 문의하여 처리토록 함.

5. 건축사법 개정안(보완)

결의—건축사업무 위원회를 소집 일관 심의하여
이사회에 상정하도록 함.

6. 기타사항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제자 발행

결의—연구비 항목에서 인쇄비를 지출하기로 하고
전직을 받아 인쇄하여 무상 배부함.

사 무 소 이 전

박 필 근 (전흥설계연구소)		
부산시 중구 대교동 2가 72	6—1838	
김 인 호 (대원공무소)		
부산시 중구 부평동 1가 36	22—1422	
주 력 중 (대진건설연구소)		
부산시 중구 동광동 2가 15	22—3640	
박 기 도 (삼도건축설계사)		
부산시 영도구 대교동 5가 103	23—1174	
김 민 철 (성림건축설계사)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395		
조 득 래 (해동건축연구소)		
부산시 중구 범일동 665	4—6149	
강 석 근 (국제건축연구소)		
부산시 중구 광복동 1가 5	22—4008	
최 경 원 (대영건축사무소)		
부산시 중구 광복동 1가 5	22—7816	
강 요 준 (영준건축연구소)		
제주시 1도 1동 1451—1	2693	
강 은 홍 (금성종합설계공사)		
제주시 1도 1동 1450—1		
김 수 현 (건축사무소)		
제주시 3도 2동112—7	4223	
한 필 (동성건축설계사무소)		

대구시 남구 대봉동 3구 638	4—5694	
김 준 필 (미예건축설계연구소)		
대구시 남구 남산동 2구 651	3—3330	
박 중 섭 (서대구건축설계사무소)		
대구시 서구 비산동 395		
박 중 명 (남미건축설계사)		
부산시 중구 보수동 1가 75	6—2980	
김 성 길 (신동양건축설계사)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동 352—5	3—4872	
최 춘 화 (최 공무소)		
광주시 구동 55—16	2—5085	
이 현 우 (태창건축설계사)		
부산시 동래구 광안동 659	7—0564	
이 치 규 (남광건축사)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260—18	3—0090	
안 광 모 (삼우설계사)		
부산시 동구 범일동 668	6—6249	
안 종 회 (정동사)		
부산시 동구 대창동 3가 40	6—6664	
박 원 일 (고려건축사무소)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135—2	3—2781	
최 행 용 (공간건축연구소)		
부산시 중구 동광동 1 : 5	22—9924	
안 일 성 (극동건축설계사무소)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194—8	3—0464	
박 원 갑 (선진건축설계사)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 2가 265	4—6974	
이 국 남 (선진건축연구소)		
춘천시 문교동 153		
권 배 식 (홍익건축설계연구소)		
대구시 중구 하서동 34	3—4509	
권 영 환 (구조사건축연구소)		
대구시 중구 동인동 2가 18—4		
김 남 석 (천우종합설계사무소)		
대구시 중구 동문동 13	3—7183	
한 석 배 (하는건축설계사무소)		
대구시 북구 칠성동 2가 407	4—4013	
이 태 수 (수명사건축설계사무소)		
대구시 중구 공평동 55—54	2—1969	
이 우 일 (우일건축설계사무소)		

회원동정

대구시 동구 신천동 827		
유 일 우 (국채건축설계사무소)		
대구시 북구 칠성동 2가 409		
이 중 섭 (동남건축설계사무소)		
대구시 중구 신천동 772	4-4111	
이 중 우 (광일건축기술공사)		
대구시 중구 동인동 2가 18-4	4-4020	
선 온 국 (남성건축설계사무소)		
영등포구 노량진동 315-5	69-5447	
홍 지 호 (전조시설제사무소)		
중구 삼각동 28 금봉빌딩 701호	28-7844	
강 봉 진 (국보건설단)		
종로구 종로 1가 24	73-5917	
한 기 룰 (삼익건축연구소)		
중구 필동 1가 35-1	72-4903	
백 남 규 (신문화건축설계사무소)		
영등포구 신림동 86	74-3137	
고 원 섭 (원우건축연구소)		
서대문구 용암동 283	22-9647	
홍 철 수 (한국건축문화연구소)		
중구 인현동 1가 112-3		
정 중 조 (강남건축설계사무소)		
영등포동 2가 5	62-1431	
이 명 춘 (이명춘건축연구소)		
동대문구 이문동 346-57	96-8119	
김 배 식 (김배식건축사무소)		
중구 무교동 6	22-7577	
김 순 혁 (공신기술공사)		
중구 남대문로 5가 17-13	23-3974	
김 수 근 (환경설계사무소)		
종로구 관훈동 198-1	72-0226	
이 문 복 (남일건축연구소)		
중구 을지로 1가 95	23-9993	
신 한 복 (태한건축연구소)		
종로구 도렴동 150-1	72-9692	
최 웅 길 (성건축설계사무소)		
중구 을지로 6가 20-4	53-6323	
서 서 택 (흥익건축기술연구소)		
종로구 관훈동 198-1	74-6969	
김 요 섭 (로타리건축연구소)		

영등포구 시흥동 539-6		
박 태 수 (태창건축)		
종로구 청진동 276-1		
강 태 운 (대원건축연구소)		
동대문구 청량리동 172	96-3973	
이 지 춘 (복지건축연구소)		
마포구 서교동 354-1	33-1633	
최 광 현 (범미건축연구소)		
중구 명동 1가 5-1	22-0531	

전화 번호 변경

박 정 욱 (미도건축설계사무소)	6-5651
이 용 구 (대성설계사)	6-7530
주 혁 중 (대진건설연구소)	22-3161
황 인 성 (화성건축설계사)	3-2354
황 계 효 (부민건축설계사무소)	23-3164 신설
정 환 호 (미래건축연구소)	3-0410 신설
이 문 남 (태화건축사무소)	5-4359 신설
한 상 길 (한성건축설계사무소)	6-1683
조 독 태 (해동건축연구소)	4-6141

자격 갱신 (2급에서 1급으로)

김 천 독 (경희건축설계사)	
부산시 영도구 대교동 5가 94	22-7241
정 환 호 (미래건축연구소)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396	3-0410
전 현 길 (도시건축사무소)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156-33	3-7600

상호 명칭 변경

한 상 길 : 한성건축설계사무소	
전 현 길 : 도시건축사무소	
김 민 철 : 성림건축설계사	
이 치 규 : 남광건축사	
고 원 섭 : 원우건축연구소	
김 수 근 : 김수근환경설계사무소	
유 재 현 : 유성건설공사	
서 서 택 : 흥익건축기술연구소	
최 웅 : 길성건축설계사무소	
황 범 구 : 부전건설공사	

현회기사 · 회원동정

휴업신고

심재석 (청화건축사무소) 부산시 동구 범일동 103

휴업중 재개업자

원혁렬 (한일건축설계사무소)
영천군 영천읍 금로동 512

유판렬 (현대문화건축설계사)
대구시 서구 비산동 528 2-7344

백정음 (신원건축설계사무소)
대구시 서구 비산동 440 3-8416

윤태식 (건조사)
대구시 중구 하서동 34 3-4509

신입회원 가입

이진우 (대정건축설계사무소)
마포구 합정동 414-3 32-1079

장술 (장전사)
마포구 마포동 156-1 32-8981

유기조 (동문건축연구소)
서대문구 갈현동 456-3 38-0431

박광호 (우진건설연구소)
동대문구 신설동 102-5 94-1714

신운국 (남성건축설계사무소)
영등포구 노량진동 315-5 69-5447

임상원 (삼화건축설계사무소)
마포구 마포동 145-1 32-9598

장광수 (광수건축연구소)
중구 남대문로 4가 17-9 22-2515

조정상 (실험건축공사)
영등포동 1가 96 62-1430

이문조 (주식회사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용산구 순암동 339 43-0141

이정식 (대한도시건축기술공사)
성동구 무학동 44 54-5260

이병철 (동일건축)
영등포구 신도림동 960-4 69-6678

문영길 (경인건축공사)
영등포동 2가 148

구자현 (경동건축연구소)

성동구 신당동 244-44 52-7437

이정일 (범선건축)
중구 을지로 2가 88-5 22-1663

가심기 (청송건축)
성동구 통인동 122 54-5147

김형곤 (삼호건축연구원)
종로구 신문로 2가 89-22

최찬희 (우주건축연구소)
영등포동 2가 332 92-6535

강원순 (남서울건축설계사무소)
영등포구 상도동 370 69-5538

☆ 소 식

부산지부 총회

① 제5회 정기 총회 개최

1969. 12. 23. 부산은행 본점 회의실에서 회원 총 103명중 98명 출석으로 1970년도 수지예산 6,635,200 원율 심의 통과시켰으며, 임원개선으로는 자부장 이수중, 감사 황제효, 김영원, 문찬도, 전현길, 천창길, 감사에 천창길, 장기수 회원을 각각 선출하였음.

② 1970년도 제1회 임시총회 개최

1970. 1. 24. 부산은행 본점 3층 회의실에서 회원 총 105명중 65명 출석으로 1969년도 결산총회를 가졌음.

④ 강원도 지부

회원 상호간의 보다 많은 친목과 발전을 도모코저 회원일동은 3월 1일 춘천시 공제회를 발기. 발기인 총회를 열고 초대회장은 황기정씨를 선임하였음.

건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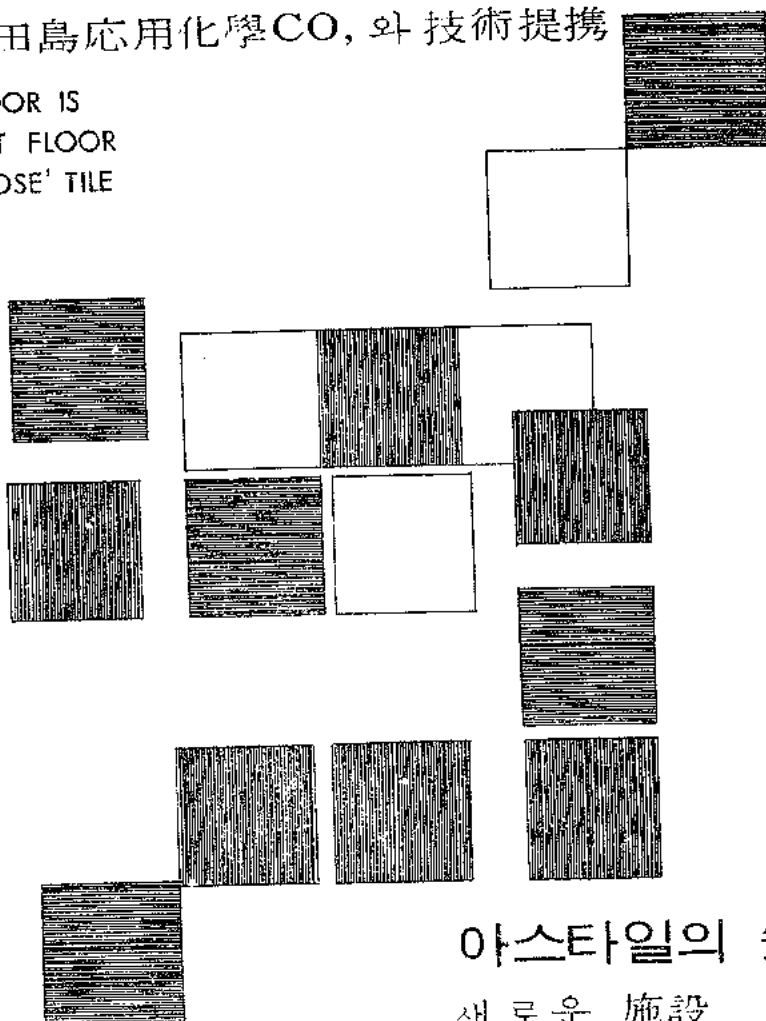


和鴻

푸라스타일

日本・田島応用化學CO, 와 技術提携

ANY FLOOR IS
THE RIGHT FLOOR
FOR 'GOOSE' TILE



아스타일의 先驅者

새로운 施設

새로운 製品

- ◇特色◇—
- ◇아름다운 色彩
 - ◇長久한 壽命
 - ◇簡便한 施工
 - ◇底廉한 價格

和鴻푸라스타일工業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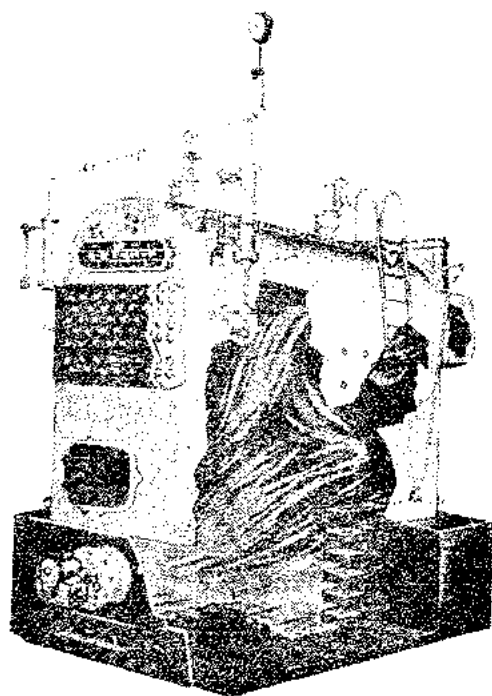
서울特別市城東區壘水洞 1街 449-1

電話 (直) 54-7651

便利하고 合理的인!

一實用新案 特許 第2845號 一

東光 DW 型 水管式 보일러



用途

政府廳舍、醫院、學校、病院、食品工場、化學工場、製藥工場、紙維工場、沐浴湯、機械工場、洗濯所 等 其他。

(受賞種別)

- 第一回全國優秀建設資材展示會에서 서울 特別市長 優秀賞
- 第二回全國優秀建設資材展示會에서 大韓建築士協會長 優秀賞
- 1967年度優良工產品生産獎勵會에서 優秀賞
- 第七回全國商品會에서 內務部長官의 優秀賞
- 第八回發明品展示會에서國會議長의最優秀賞
- 第九回發明品展示會에서大法院長의最優秀賞
- 上記展示會에서 商工部特許局長의 優秀賞
- 科學의 날 優秀한 機械 工產品의 發明으로 科學技術 振興한 功勞로 韓國 科學技術總聯合會長으로 부터 表彰狀을 받음.
- 原動機 技術審査委員會의 審査에서 特殊水管式보일러部門의 技術 開發과 振興에 寄與한 功勞로 國立工業研究所長 으로 부터 技術開發賞을 받음

主要納入處

大韓住宅公社
시온제과 Co.
自由선 타
産業 銀行
産業 皮革 Co.
서울여자 學院
韓一染色 Co.
世宗호텔
中央産業 Co.
奎山鐵道廳

三岡産業 Co.
仁川園藝組合
國防部建設本部
春川聖心大學
美八軍洗濯所
大韓體育會
大韓重石 Co.
宇盛化學 Co.
東洋紡織 Co.
首都醫附屬病院

大韓染織 Co.
同和藥品 Co.
柳韓洋行 Co.
韓國유리 Co.
韓國나일론 Co.
大韓물크 Co.
清溪商街아파트
大韓造船公社
大韓인포스호텔
웅당산호텔

호수호텔
韓獨商社 Co.
聖바오루病院
大興성유 Co.
聖心綜合病院
大韓生命保險
公務院訓練場
林業試驗場
南大門警察署
大韓産業

京畿農産 Co.
廣日발딩
韓國洋灰
麗水觀光호텔
第一病院
自動車保險
새한발딩
江原道廳
韓獨産業
韓國산토리

東光보일러製作所

東光工營株式會社

代表理事 朴 鍾 泰

本社：서울特別市龍山區交培洞14의 1

電話 (42) 1673 (42) 9775-6

工場：서울特別市龍山區文培洞12番地